

발간등록번호

15-0218-0106-0005

杏雲



목차

<하나> 격려사

- 박매자 원장님
- 김재식 명예교수님
- 김건업 지도교수님
- 학생회장

<둘> 학교/병원 이야기

- 체육대회
- 기숙사 축제
- 1학년 중강파티
- 동창회 신입생 환영회
- 동창회 정기총회
- 설문조사로 돌아보는 2015 골학
- 김용희 교수님 인터뷰
- 허근 교수님 인터뷰

<셋> 문예

- 자는 여자 - 정지운
- 축하 - 김로데
- 첫사랑 에세이 이별선언 - 안상준
- 신입생이 쓰는 시 - 이원석

<넷> 기고글

- 의사학(醫史學)講義 切實性 - 김재식 명예교수님 특별기고
- 살며 생각하며 - 김아람 의전원 1기 선배님 기고
- 대구광역시 의사회 라는 이름 - 송광익
- 30대가 말하는 인생에 대한 소고 - 익명
- 무제 - 박명현
- 서브인턴체험기 - 강정우
- 인턴X의 일독을 권하며 - 권혁주
- 해부학 실습 - 박주성
- 봄 - 익명
- 쉽게 쓰여진 시 - 권혁주
- 당신은 행복한가요 - 권영욱
- 산을 오르자고 했다 - 김정철

<다섯> 질병에 관한 편지 속 글귀

-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 그 현주소 - 이지운, 최유진
- “당신은 자신보다 학벌이 높은 상대에게 열등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 이지운
- 육아와 삶의 균형 대학 내 엄마, 아빠들의 이야기 - 이지운

<여섯> 에세이

- 선택 - 오정석
- 그렇게 되어가나 보다 - 김로데
- 강건너의 사람들 - 정재현
- 조르지아에서의 입찰 - 정재현
- 호모 사피엔스의 생각 - 윤민혁

<일곱> 여행과 여가

- 힐링...김광석과 함께 - 김혜진
- 삶을 담은 찰나, LIFE 사진전 - 박혜진(90)
- 누가 런던을 맛없는 도시라 했는가 - 강주연
- 뮤지컬 <모차르트!> - 강주연
- 자전거 나들이 - 전은유
- 기차, 여행, 성공적 - 이소래
- 이 공연 갈 수 있을까? - 이혜진
- 열심히 공부한 우리들 즐겨라 - 박혜진(90)

<여덟> 영화와 독서 그리고 우리들의 일상

- 조선시대 양반의 발자취 - 김혜진
- BLACK - 강주연
- 미움받을 용기 - 이승제
- 향수 :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 - 유지훈
- 두근두근 내인생 - 박혜진(92)
- 우리가 잘하는 것 - 윤영삼
- 커피에 관하여 - 유지훈
- 어벤저스2 재밌게 보기 - 조형준
- 세계 10대 금지구역 - 노현영

<아홉> 동아리 소개

- 아름(유화 그림동아리)
- 포커스(사진동아리)
- 행림(서예동아리)
- PMA(봉사동아리)
- 여명(봉사동아리)
- 천광(봉사동아리)
- 한빛(봉사동아리)
- 장승(봉사동아리)
- 정우회(테니스동아리)
- 눈사람(스키/스노우보드동아리)
- 포물선(농구동아리)
- 쿠스막(산악부)
- M11(축구동아리)
- CPR(춤동아리)
- 이검(검도동아리)
- 반야회(불교동아리)
- CMF(기독교동아리)
- 카당(카톨릭동아리)
- Medical sound(음악밴드)
- 에델바이스(아카펠라/합창동아리)
- 우리하나(기타,노래동아리)
- MCO(오케스트라)
- 현우회(클래식기타동아리)
- 의향회(클래식음악동아리)

- 편집 후기 - 편집부원
- 편집 후기 - 편집장

살구나무행(杏) 구름운(雲)을 사용하는 행운(杏雲)은 살구나무 구름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예로부터 서양의학과 한의학을 구분하지 않고 의학계를 지칭할 때 행림(杏林)이라는 말을 써 왔습니다.
 화타, 장중경과 함께 3대 신의로 불린 오나라의 동봉이 치료비대신 살구나무 묘목을 받아 심어
 그의 집주변이 살구나무숲(杏林)을 이루었다는 중국고사에서 유래되어 살구나무가 의료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행운(杏雲)은 살구나무숲속의 모습이 살구나무 구름 속에 있는 듯 착각을 일으키는 장관을 의미합니다.
 본 호의 표지는 59년에 발간된 창간호의 필체를 복원하여 사용하였고 복원을 기념하여
 창간호에서 그랬듯이 살구나무사진으로 장식하였습니다.
 편집부 이름의 고문 김재식 교수의 사진입니다.



杏雲

2015
행운 제36호

하나. 격려사

- ▶ 박매자 원장님
- ▶ 김재식 명예교수님
- ▶ 김건엽 지도교수님
- ▶ 학생회장

행운 36집 발간을 기념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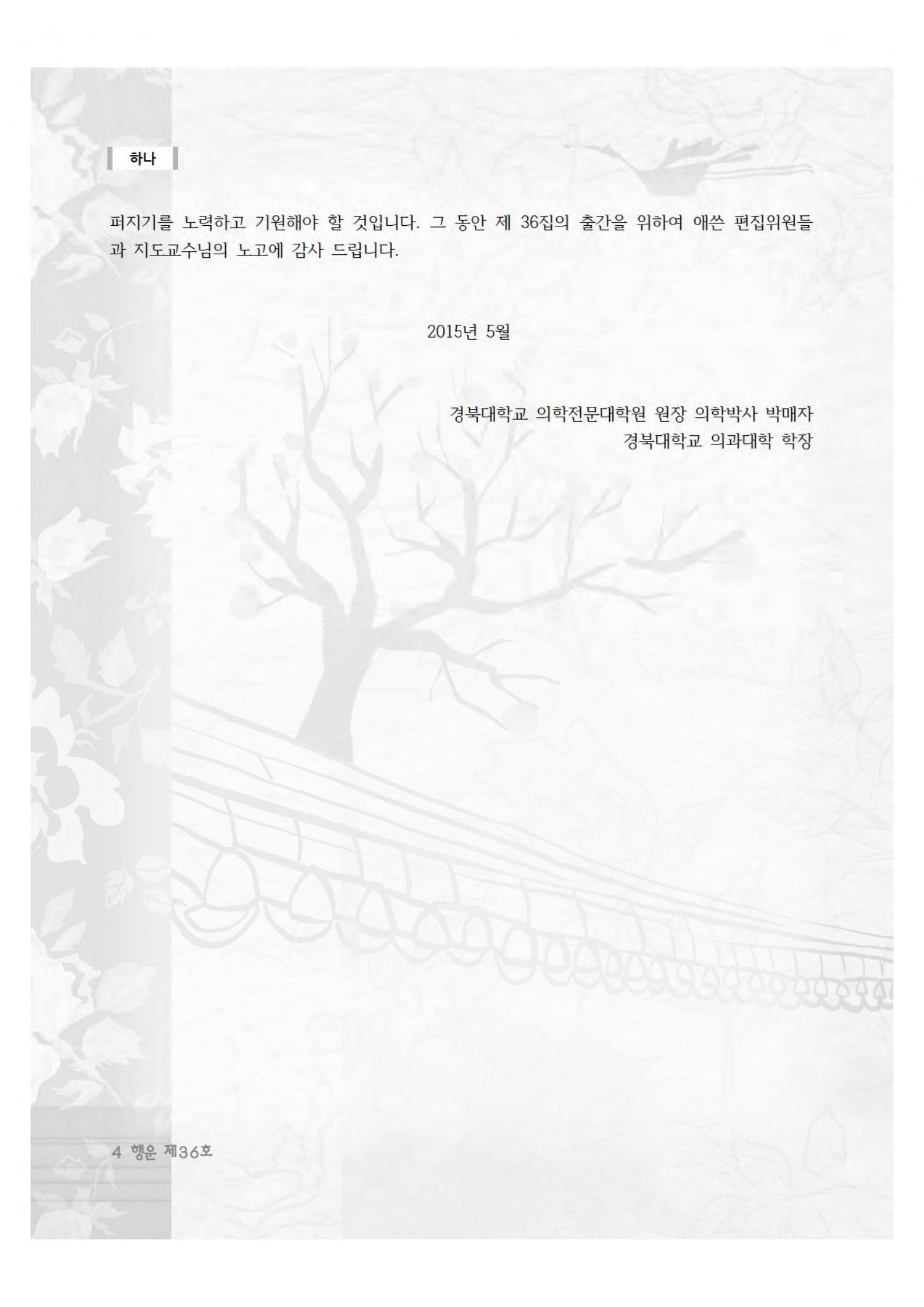
아름다운 봄입니다. 제가 우리학교에서 맞이하는 30번째 봄이기도 합니다. 문득 제가 30년 전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했던 봄이 기억납니다. 꽃샘 추위가 예고 없이 닥치는 바람에 일찍 나온 개나리가 사정없이 얼어버리기도 하고, 우리 예비 숙녀들은 '멋쟁이 멋 내다가 이른 봄에 얼어 죽는다'는 말을 실감하기도 했던 어설편던 19살의 봄. 지금 이 글을 쓰면서 그때를 떠올리니 웃음이 새어나옵니다.



원장 의학박사 박매자

우리도 예과 때, 문학잡지를 만든 적이 있고, 가을에 예술제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때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했기에 즐거움도 모르고 했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새롭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가 치열하게 즐기고, 느끼고, 말하고, 그리고 쓰고 해야 했던 때였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각자의 인생에서 아직은 결정되지 않은 불안감이 약간 있고, 충족되지 않은 무엇인가에 대한 갈증이 우리 안에 어슬렁거리며 뭔가 사고를 치고, 뭔가 인생에 큰 흔적을 남겨야 할 것 같은 시절. 그 시절에 대한 기록은 개인의 있었음에 대한 흔적이자 대학의 구성원에 대한 인간적인 기록입니다.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하여 그 조직의 역사를 건물과 사건에서 그 시대의 사람과 그들의 생각으로 이해하게 되고, 드디어는 그 시절을 살았던 사람의 흔적으로써의 역사를 절절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기록의 단편들은, 오늘 우리의 삶이 쉽지만은 않듯이 과거의 선배들도 시험, 사랑, 친구, 미래 그리고 가족 등에 대한 복잡한 감정으로 하루 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갔다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어떤 과거의 시간도 똑같이 빛 바랜 흑백사진처럼 하나의 색깔로 과거의 시간에 갇혀 버린다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미래도 과거도 아닌 오늘을 사는 존재이고, 오늘 이 순간은 절대적인 나의 시간이며 가장 숭고한 기회이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57년 전인 1956년에 우리들의 선배들도 그들의 인간적인, 또는 의학도로서의 고민을 '행운'이란 잡지 창간으로 표출하여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유서 깊은 '행운'의 지속적인 발간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를 알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시대의 흔적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은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과대학)의 자랑스런 전통이자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봄, 우리에게 이유 없이 주어진 축복에 감사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진 것은 없습니다. 내게 내린 축복은 감사히 즐기고, 이 축복이 더 큰 축복이 되어 세상에



하나

퍼지기를 노력하고 기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제 36집의 출간을 위하여 애쓴 편집위원들과 지도교수님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2015년 5월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원장 의학박사 박매자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杏雲(행운)의 발자취와 감회

시간은 어김없이 흐른다. 그러나 다 때가 있는 법이다. 1959년 본인이 경북의대 본과 3학년 때 학생회의 후생부장을 맡아 있었을 때 고인이 된 서재관동기가 편집부장으로서는 우리의 교지 杏雲(행운)을 창간하였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때 편집부원들의 발상과 선견지명을 칭송하지 않을 수 없다. 공부도 하고 열심히 놀기도 하면서 부지부식간에 교지(校誌)를 만들은 것이다. 선배들은 왜 못했을까 싶다. 아마도 시험지옥 의대에서 억눌려 살았지 않았던가 상상해 본다. 그러나 호사다마라 했던가 그 다음 해인 1960년에 4. 19혁명이 터졌다. 부패정부의 타도이었다. 그 다음 해에는 5.16군사혁명이 일어 났다. 장기간의 독재정권으로 오래 동안 우리 대학은 교지 '행운'이 있는 것도 모르고 한 참 뒤인 1976년 학생회에서 행연(杏淵)이라는 제호로 교지를 발간하는 아 이러니칼한 일이 생긴 것이다. 사실 '행연'은 살구나무가 못에 있는 어감이 있기 때문에 이견도 있었으나 다행히 2000년 이죽내학장 때 의논이 되어 행운으로 환원이 된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다. 또 한 참의 시간이 흘렀다. 1998년에 결본이 되었지만 1999년에 22집이 나왔고 2000년도에 환원 시킨 '행운'을 연결하여 금년으로 36호가 된다. 교지연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본인이 기고한 2000년 여름호 동창회보 42 ~45P에 실려 있다. 중국고사의 의원 명의 동봉(童奉)의 치료비로 받은 살구나무묘목 한구루 두그루 심어서 살구밭에 꽃이 만발하면 구름을 만드는 행운(杏雲)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뿌듯하다. 실제로 살구열매씨앗을 짜서 만든 행인수(杏仁水)는 지금도 기관지염에 효과가 많다. 그러니까 살구는 약이다. 본인은 살구꽃을 보러 가고 여름이면 살구를 따러 간다. 그래서인가 지병인 기관지천식이 차유되었다. 살구는 본인과 깊은 불가분의 바늘과 실의 관계이다.



명예교수 김재식

한편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이 되어 있어서 한이 되지만 경제강국으로서 이 만큼 잘 살게 된 것은 다행지사이다.

우리 대학의 현재 위상은 대단하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세계속의 명문이라는 점이다. 본인이 이 대학을 다닐 때만 한님에서는 그 명성이 1위이었고 하늘을 찔렀다. 지금도 이러한 포부와 긍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제 우리 대학의 역사를 한번 되새겨 본다.

1905년 일본의 침략아욕으로 경부선철도를 부설하면서 주요 거점 지역의 민심을 사면서 결국 1907년 대구와 평양에 일본의 병원으로 사립동인위원을 개설하였다. 인심을 사는데에는 병원이

요긴한 것이다. 물론 병원에 의학교육도 있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일본의 사립기관이었고 우리의 뿌리인 관립대구자혜의원(조선총독부 통감부 고시 제208호)이 1910. 9. 7에 창설 되었고 사립동인의원건물을 매입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절대로 인계(引繼)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관립(官立)은 바로 국립(國立)이다. 우리 대학병원에서 역사왜곡이라는 대 과오를 저질른 불상사가 생겨 현재 약속을 받아 시정단계에 있음을 밝혀 둔다(동창회 회지 제 6집, 2006. 4). 병원보의 창간호(1982)와 동창회보등 많은 기록과 자료에서 밝힐 수 있었고 역사적인 많은 자료에 명기되어 있고 다행히 이 기록과 자료들은 그대로 살아 있다. 침략을 했던 일본인의 자료로 그 일본어필체가 엄연히 증거를 해 준다(大邱醫院 醫院概況書 1928 ~1944 /원문일본인 필체). 지금 현재 병원보는 왜곡한 1907을 쓰고 있고 대학은 1910. 9. 7을 쓰고 있어서 제 각각이다. 이는 슬픈 일이다. 신임 조병채병원장에 이르러서 달성된다고 보면 된다. 어떻게 한 기관이 두 역사를 쓴단 말인가? 통탄할 일이다. 그러나 시정은 된다. 왜냐하면 사필귀정이고 역사는 진실이기 때문이다.

자 이제 우리는 흐트러진 의료제도(의료이원화)를 바로 잡고 만능의사를 만드는 의학교육혁신 그리고 양극화된 의료인수입균형조정을 전문의제도개혁으로 달성하여야 한다. 내과전문의지망의사가 격감했다니 우리의 의료가 심히 걱정거리이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의사학시간에 배운 히포크라테스정신(선서)와 공자선생의 인술(仁術)을 옹기 띄는 우리 의학과와 의사를 지향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정확하고 첨단과학의 의술(醫術)과 인류가 행복해 지는 이상(理想)을 향하여 매진할 것을 다짐하자. 나는 아직도 학생들에게 광전 의도(匡正醫道)와 인술제세(仁術濟世)를 부르짖고 있다!

(2015. 3 팔공산 살구꽃구름과수원에서)

2015년 행운 제36호 지도교수 축사 (격려사)

글을 쓴다는 것, 한편의 책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힘이고 자신을 포함한 누군가와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창조와 소통의 멋진 작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하신 모든 분들께 고맙습니다.



지도교수 김건엽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과대학)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과 고민들을 담은 교지는 그 역사가 1959년 ‘행운(杏雲)’ 창간호 탄생부터 시작됩니다. 이후 오랫동안 속간을 내지 못하였다가 1976년 ‘행연(杏淵)’이란 제호로 교지가 재출간되었고, 2000년에 본래의 창간호인 ‘행운’으로 제호를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행운’은 중국 진나라 갈홍의 신선전(神仙傳)에 나오는 명의(名醫) 동봉(董奉)의 일화에서 나온 것으로, 삼국시대 오나라 동봉이 환자로부터 치료비 대신 살구 나무를 기증 받아 의원 주변에 심었는데 세월이 지나 의원 주위가 살구나무 숲을 이루게 되었고 꽃이 피면 마치 구름과 같이 보인다고 하여 ‘행운’이란 제호를 붙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올바른 의술로 덕을 펼치는 것인 것 같습니다.

학생 때는 의과학적 지식을 배우고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훌륭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능력과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책, 여행, 영화, 문화 등을 통한 다양한 경험과 서로 다른 생각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행운’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이고 장소였으면 합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의 저자 김난도 교수는 학생들에게 “에베레스트 산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유는 히말라야 산맥 안에 있기 때문이다. 티베트 거봉의 고원들과 어깨를 맞대고 그 준령에서 한 뼘만 더 높으면 바로 세계 최고의 산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비유하며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바다 위에서 홀로 높이려고 해서 안 되고 ‘우리’를 히말라야 산맥으로 함께 키워나가자고 했습니다. 이번 행운 36집이 ‘우리’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과대학)을 확인하고 ‘우리’를 높이 세우고자 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면 좋겠습니다.

2015년 5월

이음 편집부 지도교수 김건엽

행운 제36호 발간을 축하드리며

봄이라고 하기엔 꽤나 쌀쌀했던 3, 4월이 지나고, 5월에서야 완전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올해 따라 하루 맑고 하루 비가 오는 날씨의 반복과 아침저녁으로 큰 일교차로 인하여 봄이라는 것을 잘 실감하지 못 했었는데, 주변의 만개한 꽃들과 따사로운 햇살을 보고 느끼니 이제는 확실히 봄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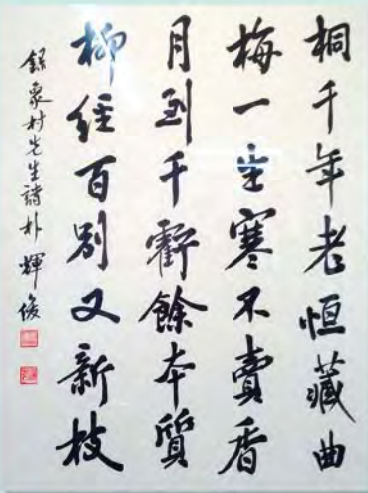
학생회장 장 재 선

‘행운’은 매년 열리는 경북의대 전통의 축제인 ‘행운제’가 열리는 시기에 맞추어,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학생회 편집부이자 웹진인 ‘이음(E:UM)’에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벌써 36번째 발간되는 ‘행운’은 우리 학교 소식을 담은 기사들과 더불어 교수님, 졸업하신 선배님 및 교내 재학생의 글이 담겨, 명실상부 우리학교의 소식지이자, 학교를 대표하는 책자입니다. 또한 ‘이음’이란 이름은 선뜻 다가가기 어려운 선배님들과 재학생들 사이를 든든한 밧줄과 같이 이어준다는 의미에서 지어졌습니다. 이러한 ‘이음’의 정신은 ‘행운’지를 통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고, 이를 통해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끈끈한 유대를 엿볼 수 있어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 이미 학교를 졸업하신 선배님들께서도 현재 재학 중인 후배들을 통해 종종 ‘행운’을 찾으신다고 하니, 이 소식지는 단순히 교내의 잡지를 넘어서 밧줄처럼 끈끈하게 경북의대생들 간의 소식과 함께 정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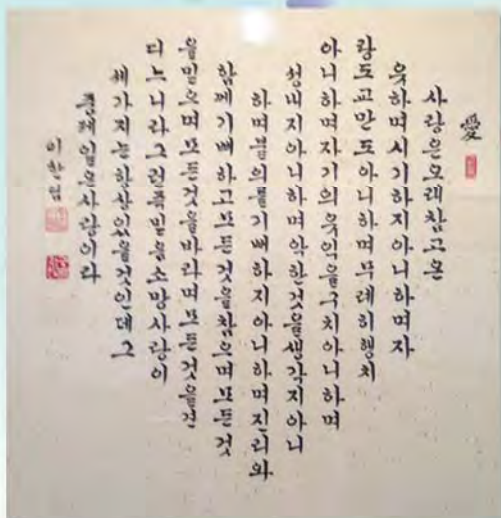
올해, 제 36호 행운지를 발행하는 데 도움을 주신 학교, 병원 내의 여러 교수님들 및 편집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학교 밖에서도 이 행운지에 담길 좋은 글을 보내주신 선배님들과 바쁜 와중에도 다양한 글을 기고하신 학생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36번째 ‘행운’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끈끈한 ‘이음’정신을 이 행운지로 한번 더 이어가며 아름답고 추억거리 가득한 2015년을 만들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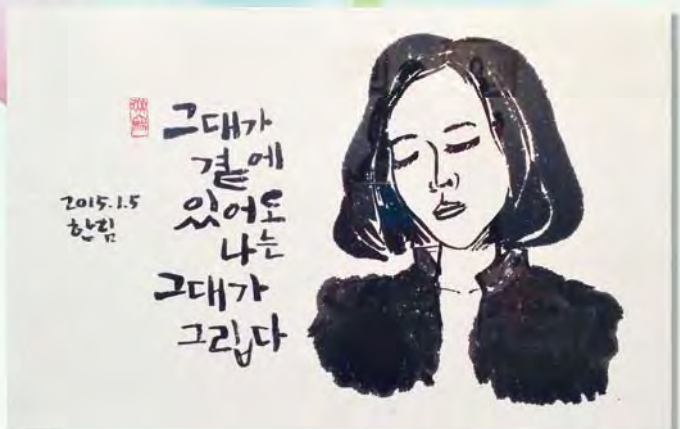
서른번째 행림서전 杏林書展



28代 박회준
 桐千年老 恒藏曲 梅一室寒 不賣香
 月到千虧餘本質 柳經百別又新枝
 (동천년로 항장곡 매일세한 불매향
 월도천후여본질 유경백별우신지)
 오동나무는 천 년을 늙어도
 항상 노래를 품으며,
 매화는 일생을 추위에 떨어도
 향기를 팔지 않으며,
 달은 천 번을 이지러져도
 본 모습이 변치 않으며,
 버드나무 가지는 백 번을 꺾어도
 새 가지가 돌아난다.



29代 이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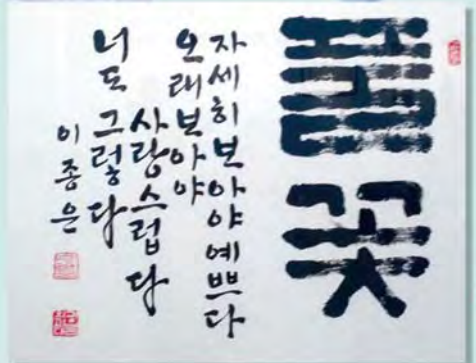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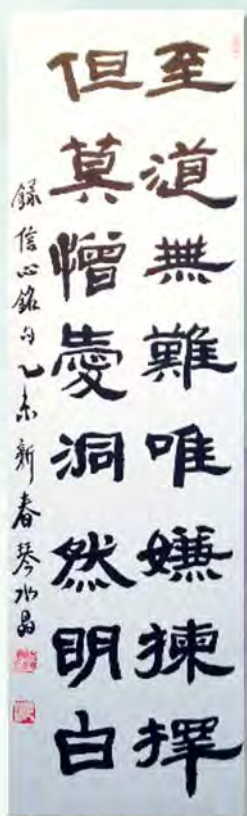
29代 김수정
梅經寒苦發清香
(매경한고발청향)
추위가 매울수록 매화는
더 맑은 향기를 피우고
사람은 어려움을 겪을수록
그 절개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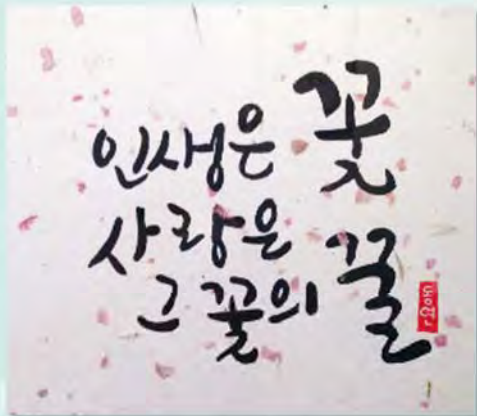
29代 이종은



29代 이종은
踏雪野中去 不須胡亂行 今日我行跡 遂作後人程
(답설야중거 불수호란행 금일아행적 수작후인정)
오늘의 내가 남기는 발자국은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니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에는
함부로 어지럽게 권지를 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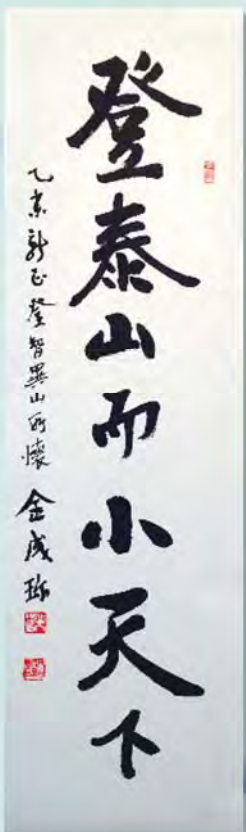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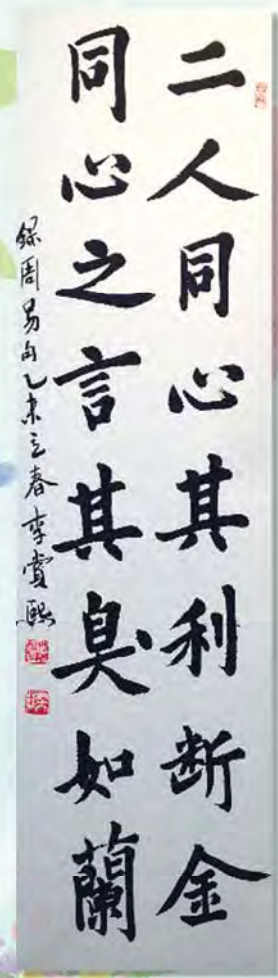


29代 김수정
至道無難 唯嫌揀擇 但莫憎愛 洞然明白
(지도무난 유헤관택 단막중애 통연명백)
진리를 깨우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사람이 관택을 함으로써
만물의 이치를 있는 그대로 보려 하지 않고
한 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진리에서 멀어지게 되며
미워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게 되면
만물의 이치를 보는 눈의 쓰이면서
세상이 명백해 지고 진리를 깨닫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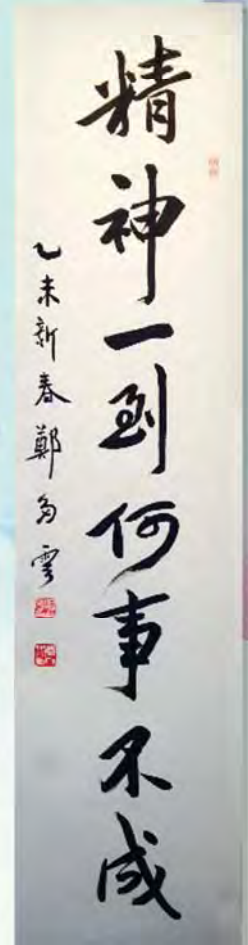


30代 이동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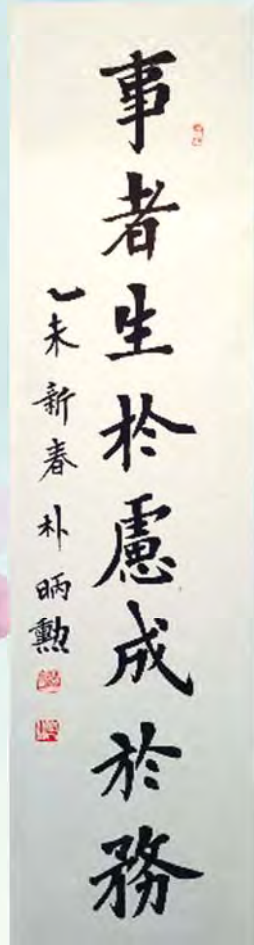
29代 이상희
二人同心 其利斷金
同心之言 其臭如蘭
(이인동심 기리단금 동심지언 기취여란)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면
그 날카로움은 쇠를 끊을 수 있고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의 말은
그 향기가 난초와 같다



30代 김성진
登泰山而小天下
(등태산이소천하)
공자가 높은 산에 오르니 노나라가 조그맣게 보이고
태산에 오르니 온 천하가 작게 보인다는 의미로
학문으로 큰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사고의 깊이와 폭이 넓어져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뜻이다.



30代 정다운
精神一到何事不成
(정신일도하사불성)
한가지 일에
정신을 집중하여
정신을 통일하면
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



30代 박병훈
事者生於慮成於務
(사자생어려성어무)
천하의 일은
생각에 의해 시작되지만
그 성공은
노력에 의해 있다.

金宰환
金宰煥

正通必事

30代 김재환

事必歸正(사필귀정)

행한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가게 마련이다.

30代 류승협

방황하고
넘어저도 류승협
청춘이기에
다시
일어나줄수있다

30代 서지원

그리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들꽃처럼 피어난
그대를 향한 사람

행림 서지원

30代 박소영

내가 새라면
너에게 하늘을 주고
내가 꽃이라면
너에게 향기를
주겠지만
나는 인간이기에
너에게
사랑을 준다

행림 박소영

30代 이동연



사랑은 언제나
우연처럼 오는거야
이렇게 사랑하는
너처럼...

2015년 행운 제36호 지도교수 축사 (격려사)

글을 쓴다는 것, 한편의 책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힘이고 자신을 포함한 누군가와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창조와 소통의 멋진 작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하신 모든 분들께 고맙습니다.



지도교수 김건엽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과대학)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과 고민들을 담은 교지는 그 역사가 1959년 ‘행운(杏雲)’ 창간호 탄생부터 시작됩니다. 이후 오랫동안 속간을 내지 못하였다가 1976년 ‘행연(杏淵)’이란 제호로 교지가 재출간되었고, 2000년에 본래의 창간호인 ‘행운’으로 제호를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행운’은 중국 진나라 갈홍의 신선전(神仙傳)에 나오는 명의(名醫) 동봉(董奉)의 일화에서 나온 것으로, 삼국시대 오나라 동봉이 환자로부터 치료비 대신 살구 나무를 기증 받아 의원 주변에 심었는데 세월이 지나 의원 주위가 살구나무 숲을 이루게 되었고 꽃이 피면 마치 구름과 같이 보인다고 하여 ‘행운’이란 제호를 붙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올바른 의술로 덕을 펼치는 것인 것 같습니다.

학생 때는 의과학적 지식을 배우고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훌륭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능력과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책, 여행, 영화, 문화 등을 통한 다양한 경험과 서로 다른 생각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행운’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이고 장소였으면 합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의 저자 김난도 교수는 학생들에게 “에베레스트 산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유는 히말라야 산맥 안에 있기 때문이다. 티베트 거봉의 고원들과 어깨를 맞대고 그 준령에서 한 뼘만 더 높으면 바로 세계 최고의 산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비유하며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바다 위에서 홀로 높이려고 해서 안 되고 ‘우리’를 히말라야 산맥으로 함께 키워나가자고 했습니다. 이번 행운 36집이 ‘우리’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과대학)을 확인하고 ‘우리’를 높이 세우고자 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면 좋겠습니다.

2015년 5월

이음 편집부 지도교수 김건엽

행운 제36호 발간을 축하드리며

봄이라고 하기엔 꽤나 쌀쌀했던 3, 4월이 지나고, 5월에서야 완전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올해 따라 하루 맑고 하루 비가 오는 날씨의 반복과 아침저녁으로 큰 일교차로 인하여 봄이라는 것을 잘 실감하지 못 했었는데, 주변의 만개한 꽃들과 따사로운 햇살을 보고 느끼니 이제는 확실히 봄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생회장 장 재 선

‘행운’은 매년 열리는 경북의대 전통의 축제인 ‘행운제’가 열리는 시기에 맞추어,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학생회 편집부이자 웹진인 ‘이음(E:UM)’에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벌써 36번째 발간되는 ‘행운’은 우리 학교 소식을 담은 기사들과 더불어 교수님, 졸업하신 선배님 및 교내 재학생의 글이 담겨, 명실상부 우리학교의 소식지이자, 학교를 대표하는 책자입니다. 또한 ‘이음’이란 이름은 선뜻 다가가기 어려운 선배님들과 재학생들 사이를 든든한 밧줄과 같이 이어준다는 의미에서 지어졌습니다. 이러한 ‘이음’의 정신은 ‘행운’지를 통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고, 이를 통해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끈끈한 유대를 엿볼 수 있어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 이미 학교를 졸업하신 선배님들께서도 현재 재학 중인 후배들을 통해 종종 ‘행운’을 찾으신다고 하니, 이 소식지는 단순히 교내의 잡지를 넘어서 밧줄처럼 끈끈하게 경북의대생들 간의 소식과 함께 정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올해, 제 36호 행운지를 발행하는 데 도움을 주신 학교, 병원 내의 여러 교수님들 및 편집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학교 밖에서도 이 행운지에 담길 좋은 글을 보내주신 선배님들과 바쁜 와중에도 다양한 글을 기고하신 학생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36번째 ‘행운’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끈끈한 ‘이음’정신을 이 행운지로 한번 더 이어가며 아름답고 추억거리 가득한 2015년을 만들어 봅시다.

돌. 학교 / 병원 이야기

- ▶ 체육대회
- ▶ 기숙사 축제
- ▶ 1학년 종강파티
- ▶ 동창회 신입생 환영회
- ▶ 동창회 정기총회
- ▶ 설문조사로 돌아보는 2015 골학
- ▶ 김용희 교수님 인터뷰
- ▶ 허근 교수님 인터뷰

푸르름의 중심에서 열정을 외치다

- 2014 경북대 의전원 체육대회 -

글, 사진 : 본과 1학년 유지훈, 강주연

사진 : 본과 2학년 신아름, 윤영상

지난 10월 9일, 학기 초부터 책과 시험과 씨름하며 바쁘게 달려온 학생들이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경북대학교 본교 대운동장에 모였습니다. 푸르고 맑은 가을 햇볕 아래, 매년 치러지는 체육대회는 학생들에게 단순한 체육활동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답답했던 강의실과 학교에서 뛰쳐나와 그 동안 숨겨놓았던 젊음의 활기를 맘껏 뽐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체육대회는 전통적인 여학생들의 스포츠인 '발야구', 남녀가 한 쌍을 이루어 즐기는 ' 짝피구', 구기 종목의 대표주자 '축구', '농구', '족구'를 비롯하여 새로 도입한 슈퍼볼을 이용하여 '슈퍼볼 배구' 등이 진행되었고, 대결의 장이 아닌 화합의 장을 위한 '명랑운동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스릴 넘치는 승부를 보여주던 계주와 재치 넘치는 장애물들을 접목한 '장애물 달리기'까지, 다양하고도 끼가 넘치는 여러 종목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체육대회의 개막을 알리는 개회식은 박매자 의학대학원장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정당한 경기를 진행하겠다는 학생대표의 선서, 끼가 넘치는 코스튬의 새천년체조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개회사를 해주신 박매자 교수님과 3학년 대표 채민철 선배님의 선서



슈퍼맨과 배트맨의 사이좋은 새천년 체조



어마어마한 크기의 공을 네트 너머로 던져 넣기 위해 한마음으로 뭉친 모습

관록은 패기를 넘어선다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켜주신 선배님들의 활약이 돋보이는 발야구와 함께, 큰 공을 따라 합심하여 밀고 쳐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던 슈퍼볼 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슈퍼볼 배구는 협동의 재미와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해준 독특한 종목이었습니다.

대운동장 건너편 농구코트에서 펼쳐진 2학년과 3학년의 농구 결승 경기는 열정적인 농구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큰 사고 없이 경기가 끝이 났으며, 이어서 화려한 발재간이 매력적이었던 족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3번의 기회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치밀한 작전이 돋보인 경기였습니다.



시작을 알리는 점프볼, 선공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수비가 모든 것을 지배한다. 발 끝에 모든 신경을 집중해서!



짜피구 결승전, 지키려는 자와 끝내려는 자 사이에 오고가는 눈빛, 그 순간을 담아봤습니다.

남자라면 누구라도 한 번쯤 뛰어 보고픈 인조잔디구장 위에서, 수비와 공격 모두가 열정적이었던 축구경기가 벌어졌습니다. 결승골, 그 한 골을 위해 모두가 합심하는 모습이 보기 좋은 경기였습니다. 끝까지 정정당당한 스포츠맨십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흐르는 공을 잃지 않기 위해 한시도 눈을 떼지 않는 열정이 돋보이는 축구 경기였습니다.

시작은 판이었으나 끝은 몸싸움이라. 명랑운동회에서는 판 뒤집기, 풍선기둥 릴레이/다함께 통통통, 단체 줄넘기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판을 넘기기 위한 동기들과 선배님들의 집념은 경기를 더욱 재밌게 해주었습니다. 형형색색 풍선이 쌓여 올라가는 모습은 푸른 하늘에 무지개가 걸리듯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들고 있기도 힘든 슈퍼볼을 이리저리 튕겨가며 반환점을 돌아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같은 순간 하나가 되어야 하는 단체 줄넘기는 끝의 끝까지 승부가 이어질 정도로 치열한 접전이 계속되었습니다.



균형이 무너지면 공은 그대로 땅바닥으로!
집중, 또 집중
다함께 통통통



선배님 이 판은 제가 접수하겠습니다.
판뒤집기



누가 누가 더 많이 불어 넣었을까?
결과를 기다리는 장면입니다.
풍선기둥 릴레이

마지막 하이라이트로는 장애물 달리기 that 진행되었습니다. 밀가루에서 사탕 찾기, 미꾸라지 잡아 옮기기, 2인 3각 달리기, 세숫대야 썰매 등 각종 난관이 기다리고 있던 경기였지만, 선수들의 열정과 빠른 경기 진행을 위한 새마을 자봉들의 따뜻한 응원 아래 재미있는 모습이 많이 연출 되었습니다.



개구진 자봉의 시원한 응원(!)아래 열심히 뛰어가는 선수들입니다.
장애물 달리기 - 2인 3각 달리기

마지막으로 폐회사가 울려 퍼지기 전, 1학년 학우의 찰진 진행 하에 각종 상품이 걸린 행운권 추첨이 진행되었습니다. 행운권을 뽑는 것은 맘대로였지만, 가져가는 것은 아니었던 기막힌 자리였습니다.



저 상품은 내 것이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폐회사를 해주시는 3학년 대표 채민철 선배님입니다.

폐회사를 끝으로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선수들은 큰 사고 없이 좋은 추억을 한아름 선물 받았습니다. 큰 일교차에 고생이었을 자봉단, 굶은일을 도맡아 학우들을 챙겨주던 대표단, 그리고 학생들의 열정을 응원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셨던 교수님들, 이하 여러 경기를 이리저리 뛰며 활약했던 동기, 선배님들 전부 고생하셨다고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3rd dormitory festival 그 현장 속으로

- 명의관 축제현장 취재 기사 -

본과 2학년 김 혜 진
본과 2학년 박 혜 진(92)

지난 11월 26일(수) 단 하루 동안 명의관을 사용하고 있는 의전원 및 치전원생들만의 축제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한 명의관 축제는 기숙사 조교들의 성실한 준비 아래 오후 6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추웠지만 많은 사생들이 찾아주었습니다. 겨울바람까지 뜨겁게 만들었던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볼까요?



즐거운 축제에 맛있는 것이 빠지면 서운하죠! 명의관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메뉴입니다. 평소에는 부담스러운 양과 가격 때문에 시켜먹기 망설였던 치킨을 이곳 명의관에서는 사생들을 위해 값은 싸고, 양은 푸짐~하게 내놓았습니다. 이정도면 롯데* 통큰 치킨보다 더 통큰 명의관 치킨!!이죠?



맛있는 치킨과 족발, 거기다가 빠질 수 없는 음료(맥주)까지 완벽한 조합에 많은 사생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모의고사가 얼마 남지 않으신 3학년 선배님들부터 1학년까지 자리가 없어서 복도에 서서 먹는 사생까지 발생했습니다. 저도 족발과 치킨.. 참 좋아하

는데요... 다음에도 꼭 있었으면 하는 메뉴들이라고 여러 사생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더군요.

드디어 기숙사 축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탁구대회 결승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탁구 대회는 작년과 같이 남자단식, 남자복식, 여자단식, 혼합복식으로 이뤄졌습니다. 가장 먼저 이뤄진 경기는 남자단식 결승입니다. 작년보다 3배나 많은 참가자가 신청하여 가장 치열한 경기이기도 했는데요. 의전원 1학년 김동환 사생과 치전원 손민혁 사생이 남자단식 결승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남자부 최강을 가리는 자리이니만큼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경기는 3판 2선승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남자 단식 결승전을 치루고 있는 의전원 김동환 사생(좌), 치전원 손민혁 사생(우).



1세트가 끝나고 의전원 김동환 사생을 격려해주는 동기들의 모습이 보이네요.



남자 단식 최강자 치전원 손민혁 사생이 1등 상품을 수상하고 있습니다.



의전원 김동환 사생이 남자 단식 준우승 상품을 수상하고 있습니다. 커트면 커트, 공격이면 공격, 서브면 서브 빠지는 게 없는 김동환 사생의 내년 경기를 기대해야겠네요!

정말 아쉬운 남자단식 승부가 끝나고 곧이어 남자 복식 결승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남자 복식 역시 작년보다 많은 사생들이 참가해주었습니다. 치열한 예선전 끝에 두 팀이 결승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의전원 강신재, 김동호 사생과 치전원 손민혁, 장지환 사생입니다. 남자 단식만큼 남

자 복식경기 역시 응원전이 치열했습니다. 한 포인트씩 점수를 얻을 때마다 의전원 사생들과 치전원 사생들이 각자의 팀을 위해 힘을 불어넣는 모습에서 동기애가 느껴졌습니다.



의전원 김동효, 강신재(좌), 치전원 장지환, 손민혁(우). 5판 3선승제로 실시되었던 이번 경기는 접전 끝에 치전원 장지환, 손민혁 사생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작년 남자 복식 우승에 이어 2연패를 달성한 치전원 남자복식 팀 장지환(좌), 손민혁(우) 사생입니다.



남자복식 준우승을 한 의전원 강신재(좌), 김동효(우) 사생입니다. 날카로운 드라이브의 김동효 사생과 커트의 제왕 강신재 사생의 멋진 플레이를 했으나 너무 안타깝게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여자단식탁구는 참가자가 의전원 김혜진, 치전원 윤재희 사생밖에 없었던 관계로 바로 결승전을 진행하였습니다.



여자탁구 단식에 출전한 의전원 김혜진 사생(좌)과 치전원 윤재희 사생(우).



여자단식종목에서 우승한 의전원 김혜진 사생(좌)과 이상은 명의원조교(중앙), 준우승을 차지한 치전원 윤재희 사생(우).

3판 2선승제로 진행된 이 경기는 서로 한 세트씩을 이기며 마지막 한 세트만을 남겨둔 가운데, 많은 의전원 1학년 학우들의 열띤 응원 속에 김혜진 사생이 최종 우승을 하며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해에 있을 제 4회 명의원 축제 탁구대회에서는 더 많은 여자 사생들이 참여한 흥미진진한 경기를 기대해 봅니다.

남녀 혼합복식경기에서는 세 팀이 지원하였지만 한 팀(의전원 정민혜, 권영옥 사생)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출전을 포기하여 여자 단식경기과 마찬가지로 바로 결승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전원 김혜진, 김동환 사생과 치전원 윤재희, 박종열 사생이 결승전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김혜진 사생과 윤재희 사생은 여자단식 결승경기 뿐 아니라 남녀혼합복식 경기 결승전에서 만나게 되었네요!



의전원팀 김혜진, 김동환 사생(좌)과 이에 맞서는 치전원 팀 윤재희, 박종열 사생(우)



혼합복식경기에서 우승한 치전원팀(윤재희, 박종열 사생) (우), 준우승을 차지한 의전원팀(김혜진, 김동환 사생) (좌)

3판 2선승제로 진행된 경기는 먼저 의전원 팀이 1세트를 이겼고 그 후 다시 치전원 팀이 한 세트를 가져가면서 1:1 동점이 되었고, 마지막 세트에서 연달아 듀스를 이어가며 정말 승부를 가늠할 수 없는 박진감 넘치는 경기였습니다. 아쉽게도 의전원팀이 치전원팀에 점수를 내어주면서 치전원팀의 승리로 모든 탁구대회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여자단식 탁구결승전과 혼합복식 결승전이 치러지기 전에 그 열기를 조금 식히는 시간으로 빙고게임이 진행되었습니다. 명의관 조교 네 분이 만든 5x5 빙고판을 나누어 주고 먼저 5줄의 빙고를 만든 사생이 제비뽑기를 통해 상품을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상품으로는 학용품, 셀카봉, 샴푸/린스, 바디워시, 32G USB, 스타벅스 상품권 등 사생들이 정말 가지고 싶어 하는 것부터 정말 뽑고 싶지 않은 것까지 매우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빙고게임을 위해 펜을 준비하고 모인 사생들



모두들 빙고판에서 빙고가 완성되기를 기대하며 자신이 원하는 숫자가 불리우기를 간절히 바라는 가운데, 가장 먼저 빙고 5개를 완성한 의전원 정진우 사생이 경품을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정진우 사생을 제외한 모든 사생들이 학용품이 나오기를 기대하며 “학용품!”을 외쳤는데요. 정진우 사생이 뽑은 상품은 셀카봉이었습니다. 이후 여러 번의 빙고게임을 통해 많은 사생들이 여러 가지 상품들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경품추첨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많은 사생들이 남아서 경품추첨에 참여하였고, 경품추첨만을 노리고 뒤늦게 온 사생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호실이 적힌 종이가 있는 상자에서 추첨을 하였는데 당시 자리에 있는 사생들만 경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3초를 세는 동안 나오지 않으면 무효처리를 하였습니다.



제비를 뽑을 때마다 모두 한마음으로 3, 2, 1을 외치며 당첨된 사생이 없기를 바라는 진풍경이 연출되었습니다.

2번이나 당첨되었지만 사이좋게 학용품과 셀카봉에 당첨된 호실도 있었고, 같은 호실의 두 사생모두가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첨되지 못한 호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첨되기를 바라며 기다리는 것 자체로 즐거운 시간이었고 당첨된 사생들에게는 더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후 11시경에 모든 경품추첨이 완료되어 명의원 축제의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같은 기숙사에 살고 있지만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생들과 조금 더 가까워 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4회 명의원 축제를 준비하고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내년에는 더욱 알차고 즐거운 축제로 만나요!

일학년 강의실을 떠나며

본과 2학년 박 해 진(90)

165. 34. 무엇인지 떠오르시나요? 위 숫자들은 2014년 한 해동안, 14학번 본과 일학년 학생들이 일학년 강의실에 출석한 수업일수와 시험횟수입니다. 일년동안 이루어졌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잦은 시험횟수였지만, 사실 일주일만 지나도 쌓여있는 공부량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만큼 자주 시험을 치루는 것이 어찌보면 다행스럽기도 합니다. 처음 165일이라는 수업일수를 들었을 때에도 모두들 아득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숨을 쉴 틈조차 없이, 일주일 단위로 반복되는 수업과 시험에 휩쓸리다보면, 어느새 사람들의 옷이 긴팔에서 반팔로, 다시 반팔에서 긴팔로 바뀌곤 했습니다.



2014년 12월 19일, 1학년 마지막 시험인 역학시험을 일주일 앞두고 일학년 강의실에서의 마지막 종강총회를 한 후, 다같이 기념사진을 찍으며 이 지긋지긋한 강의실에 이젠 정말 안녕을 고했습니다. 시원섭섭할 만도 한데, 정말 시원하기만 하더군요. 그와 더불어 더 흥겨운 작별을 위해, 1학년 대표단이 일과 틈틈이 송'일강'회 & 종강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일시가 우선 정해진 후, 장소가 정해지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었습니다. 장소는 약 100여명의 사람이 들어갈 수 있고, 작은 무대가 마련되어있는 동성로의 THAT. 프로그램에는 동기들의 공연 순서 또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동기들의 다양한 모습을 보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는데요. 사실 다들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느라 바빠서 공연 모집이 걱정되었으나, 이런 행사는 또 어찌나 모두들 즐거운지 자진해서 총 7팀의 공연팀이 참가하였습니다.

파티는 2부로 진행되었습니다. 총 7개의 공연팀과 여러 게임들, 양케이트 결과 발표 등의 순서를, 14학번에서 말을 가장 잘하기로 소문난 두 학생이 맡아 진행해 주었는데요. 정말 매끄러운 진행은 그 두 사람이 왜 의과대학에 진학했는지 이해 못하게 할 정도였죠.



공연을 했던 7팀은 대부분 동아리 단위의 팀이었습니다. 우리하나, 에델, 그리고 CPR. 사실 동아리들의 방학 일정이 겹치는 경우도 많아서, 다른 동아리를 하는 동기들의 공연을 놓친 경우가 많았었죠. 이번 기회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동기들의 공연을 볼 수 있어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공연이 아닌 팀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매일 강의실에서 잠을 자던 동기, 독서실에서 고개도 들지 않던 동기, 먹는 거라곤 술 밖에 없던 동기들이 말끔히 입고 노래를 부르고, 날 봐라 하면서 장기자랑하는 모습은 무척 낯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학교에서 공부하며 끼를 숨기고 있느라 참 고생도 무척 했을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임들은 다양하게 준비되었습니다. 학우들의 신체 일부분의 사진을 보고 누구인지 맞추는 태깅게임, 교수님의 목소리만 듣고도 어느 교수님인지 맞추는 '교수님영역 듣기평가', 먹기 게임 등이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지난 11월 병리학 태깅시험이 우리들 일생의 마지막 태깅일 줄 알았던 동기들에게 인물태깅이 공개되었을 땐 아주 작은(?) 비명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감탄사도 잠시, 열광적인 정답세례에 총 10분으로 예정되어있던 게임이 단 2분만에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먹기 게임이 시작되자 14학번에서 먹는거 하면 지지 않을 동기들이 여럿 모였는데요. 먹어야 할 음식이 레몬으로 밝혀지자 다들 손사레를 치는 와중에, 불굴의 의지로 세 개의 레몬을 기어이 다 먹어낸 동기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 외에도 지난 12월 한 달간 동기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앙케이트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항목들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항목이 있었으니, '우리 학번 최고의 신랑/신부감은?'이었습니다. 결과 발표시엔 시간 관계상 일등만 발표했으나 저는 앙케이트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모든 답변을 볼 수 있었는데요. 물론 익명이었지만, 정말 실명이 궁금해 질 정도로 숨겨져 있던 사심을 고백하는 동기들이 많았습니다. 누구의 웃는 모습이 이쁘다거나, 누가 잘 챙겨줘서 팬서리 설레었다거나 등등이었죠.



그렇게 모든 순서가 끝나니, 2시간으로 예상되어있었던 종강파티는 7시에 시작해 어느덧 10시를 넘겼습니다. 조금은 아쉬운 마음을 달래고 싶었던 동기들은 2차로 향했고, 나머지 동기들도 삼삼오오 짝을 지어 파티의 여운을 더 즐겼습니다. 글을 쓰는 저는 파티를 준비했던 사람 중 한 명으로서, 시작하기 전 무척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떤 걸 해야 재미가 있을까, 술을 안 먹는 동기들도 즐길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사회자는? 선물은? 등등 시작 10분 전까지도 안절부절 했었습니다. 하지만 마치 대표단에게 지난 1년 간 수고했다며 동기들은 마음 놓고 파티를 즐겨주었고, 그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동기들이 신이 난 모습에 저까지 흥겨워 파티가 끝날 무렵엔, 1학년을 끝마친다는 것이, 그제서야 섭섭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파티를 준비한 사람도, 그리고 파티를 신나게 즐겨준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과대학 동창회, 그 열기의 현장 속으로!

인터뷰 : 본과 2학년 김 혜 진

사진 : 본과 2학년 유 지 훈

2015년 1월 20일 화요일은 그야말로 뜻 깊은 날이었습니다. 83회 졸업식이자 동창회 환영회가 있었기 때문이죠. 행사시간이 다가오자 정장을 입으신 4학년 선배님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에 학교에서 뵈던 선배님들을 학교가 아닌 밖에서 보니 더 멋져보였는데요. 가장 먼저 2014년도 4학년 대표를 맡았던 최효훈 선배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014년 4학년 대표 최효훈 선배님

Q. 안녕하세요? 선배님, 먼저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루 만에 졸업생에서 신입생이 되어버렸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A. 일단 졸업식을 끝낸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리둥절하네요. 오늘 졸업식을 하기 전까진 '이제 끝났구나!'하는 후련함 반, 걱정 반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졸업식이 끝나고 동창회 환영회에 오니 더 큰 무리에 속해지는, 진짜 의사의 집단에 속한다는 설렘이 더 큰 것 같네요.

Q. 우리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A. 제가 아직 본격적으로 병원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추억을 많이 가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주위에 돌아보면 아시겠지만 아무리 바쁘더라도 시간이란 것은 만들면 있거든요. 시간을 만들어서 동기들과의 추억, 개인적인 추억 등 많이 남겨보면 뜻 깊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행사가 시작되고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즈음 푸근한 인상을 가지신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동창회 지용철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Q. 지금까지 졸업생에게 동창회 환영회를 개최한 적이 없는데, 이런 행사가 생기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A. 저는 항상 동창회의 임원 의견을 존중합니다. 임원들이 여태까지 새로운 동창회의 일원이 되는 졸업생들을 환영하고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되면 좋겠다고 말하더군요. 뿐만 아니라 동창회의



임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동창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기에 동감하였습니다. 그래서 박매자 원장님과 학생부원장님께 연락드렸고 최효훈 학생회장과 긴 논의 끝에 이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호탕하게 웃으시며)이 자리가 괜찮은지 모르겠네. 만약 학생들이 만족한다면 이러한 자리를 계속 마련하고 싶습니다.

지용철 동창회장님께서 이 말을 하시자마자 모든 4학년 선배님들께서 박수갈채를 보내며 이러한 자리가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Q.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 미덕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A. 아무래도 학부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경험한 학생들이 많아 그런지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환자를 볼 때 질병 자체만 보는게 아니라 전인적으로 보려는 시각을 가진 것이 있겠네요.

Q. 후배들에게 한마디? 이 자리에 참석한 졸업생들에게 한마디?

A. 이제 의사의 길로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사 사회가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대중들은 우리 의사들에게 요구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윤리성, 도덕성, 나아가 환자에게 진심을 다하는 따뜻한 의사상을 바라죠. 열심히 노력하고 환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손잡아 줄 수 있는 훌륭한, 환자를 섬기는 의사가 되길 바랍니다.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동창회 송중원 부회장님

Q. 지금까지 졸업생에게 동창회 환영회를 개최한 적이 없는데, 이런 행사가 생기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A. 경북의대의 역사가 워낙 깊다보니 행사할 때 대선배님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보니 상대적으로 젊은 동창들의 행사 참석율도 저조하고, 그러다보니 동창회 활동을 이어 나갈만한 재원이 부족하게 됐어요. 새로운 피가 수혈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자연도사 되는 것처럼 우리 동창회도 그렇게 되도록 방치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젊은 동창들과 정서적 유대감과 친밀감을 나누고 그 연결고리를 바탕으로 동창회의 참여를 높여보려고 합니다.

Q.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 미덕은 무엇인가요?

A. 앞으로 우리는 의전원과 의과대학이 함께 나아가는 사회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전원의 장점과 의과대학의 장점을 융합하여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함께 공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네요.

Q. 오늘 참석한 졸업생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A. 성공해라. 이 한마디만 하고 싶네요. 목욕탕 가면 때 많은 놈이 1등이죠. 의사가 학교에 남게 되면 학계에서 1등하고, 개원하게 되면 돈 잘 버는 것이 1등입니다. 돈 잘 번다고 꼭 성공한다는 뜻이 아니라 어느 분야건 열심히 하라는 뜻입니다. 열심히 하면 돈과 명예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하세요.

인터뷰에서 알게 되었듯이 졸업한 4학년 후배들을 동창회에서 맞이해주는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수님들께서 참석하여 이제 곧 진정한 의사가 될 후배들을 맞이해주셨습니다. 교수님들의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따뜻한 조언들도 아낌없이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가 계속되어 졸업한 후에도 '경북대학교'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알고싶다

동창회에서 만나면 무엇을 하네요?

경북대학교 2015년도 제 71차 정기총회

취재 : 본과 2학년 김 해 진

사진 : 본과 2학년 유 지 훈

2015년 2월 25일 수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대구 그랜드 호텔에서 제71차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정기총회는 저녁식사 후 1부, 2부로 나눠 진행되었습니다. 이 행사에는 약 10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다들 바쁘신 와중에도 정기총회에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전체 행사는 김문규 총무이사님께서 진행하셨습니다. 번역학시간에 수업하시던 모습과는 또 다른,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국민의례와 순국선열과 작고하신 동문의 명복을 비는 묵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용철 동창회장님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지용철 동창회장님께서서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우리 의료인들도 고인 물이 되지 말고 '변화·혁신'을 두려워하지 말자는 인사말을 남기셨습니다.

다음은 내빈인사가 있었습니다. 이동수(70회) 선배님께서 정기총회에 오신 동창회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의전원 원장님이신 박매자 원장님께서서는 '학교뿌리찾기 운동'의 진행상황과 학교현황보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경북대학교병원 조병채 원장님께서서는 경북대학교병원의 규모, 시설현황, 그리고 현재 의
료재정부문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평소에는 잘 몰랐던 우리병원의 대단함을 다시 한 번 느
낄수 있었죠.

다음 순서는 안행대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안행대상 심사위원이셨던 김진균 선배님께서 안



행대상의 의미와 심사기준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유독 치열하고 쟁쟁했던 2015년 안행대상 심사과정에 대해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대망의 시상식!! 시상식에는 지용철 동창회장님께서 직접 시상패와 메달을 수여하셨습니다. 총 세 분야(학술연구부문, 사회공헌부문, 의료봉사부문)에서 대상자를 뽑게 되었고, 두 선배님께서 공로패를 수상하셨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경북대학교 선배님들의 모습입니다!



안행대상 학술연구 부문 故 정태호(26회) 자녀 정혜리 선배님의 대리수상



안행대상 사회공헌 부문 전재규(30회)



안행대상 의료봉사 부문 우석종(54회)



공로패 변영우(42회) 전 동창회장



공로패 윤상홍(58회) 전 울산지부 총무

안행대상 시상식이 끝나고 시·도지부의 현황보고가 있었습니다. 현황보고에서는 각 지부에 몇 명의 동창들이 가입되어있으며 어떤 선배님들이 활동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각 지부의 재정과 관련된 보고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선배님들께서 전국에 흩어져 계시며, 그곳에서 '경북대학교'라는 이름에 걸맞은 훌륭한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다시 한 번 '경북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이 자랑스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울지부



울산지부



부산지부

이후 번째 순서는 각종 회계보고였습니다. 한 해 동안 동창회 기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보고하고 계시는 모습에서 책임감 있는 모습과 학교에 대한 애정이 엿보였습니다.



2014년도 결산보고



재단법인 장학회 회무보고



감사보고

1부의 마지막 순서는 의안토의였습니다. 2015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한 의안토의 순서였으나 시간관계상 정기총회에 참석하신 선배님들께 따로 자료를 보내드리는 형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인터미션을 가진 후,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1부에서는 동창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지난 1년간 어떤 활동을 했는지 보고하는 자리였다면 2부에서는 모교를 위해 힘써주시는 선배님들에게 감

사를 표시하기 위한 이벤트가 마련되었습니다. 바로 사랑스러운 후배들의 동아리 공연이 있었습니다. 오케스트라 동아리인 MCO, 중창단인 에델바이스, 의·치대 연합 클래식기타 동아리인 현우회에서 수준 높은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MCO
피가로의 결혼-모짜르트
사계 봄-비발디
비로켓-김수진



에델바이스
왓치느낌이 좋아-여행스케치
butterfly-러브홀릭스
男兒當自強-황비홍ost



현우회
Rumba Catalan
Partial eclipse

후배들의 완성도 높은 공연을 보시고 매우 흡족해하시고 함께 즐기시는 선배님들의 모습에서 경북대학교에 대한, 그리고 우리 후배들에 대한 사랑이 묻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세 공연을 마지막으로 2부도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동창회라는 것이 졸업한 선배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친목'을 다지는 모임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기총회를 다녀와서 우리 선배님들이 얼마나 학교발전과 후배양성에 깊은 뜻을 두고 계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열정적으로 이끌어주시는 선배님들의 모습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희도 더욱 더 '경북대학교'에 대한 '자긍심'과 '애교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좌측부터)
본과 2학년 박 해 진(92),
본과 2학년 김 해 진,
본과 3학년 윤 영 상,
본과 2학년 유 지 훈

설문조사로 돌아보는 2015 골학(骨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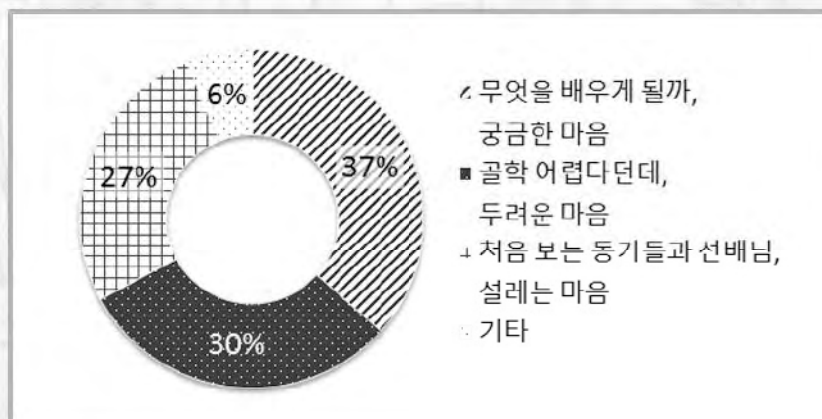
본과 2학년 박 해 진(92)

돌아보면 합격의 기쁨을 뒤로하고 작년 한 해 동안 저에게 있어 가장 충격적이고도 고단했던 일정이 골학캠프였던 것 같습니다. 골학캠프는 의대에서의 공부를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는 기회였을 뿐 아니라 동기들과 함께 공부하며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 이 있는데요. 2015년 골학캠프. 이번에는 신입생이 아닌 본과 2학년으로서, 배우는 입장이 아닌 가르치는 튜터로서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빡빡한 일정과 외워도, 외워도 끝이 없는 공부로 인해 힘들어하는 후배들을 보면서 작년에 나도 그랬었지 하며 안타깝기도 했고 잊고 있었던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올라 지난 한 해를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골학캠프에서 본과 1학년 신입생들은 어떤 것들을 느끼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볼까요?

1. 골학과와 첫 만남

골학캠프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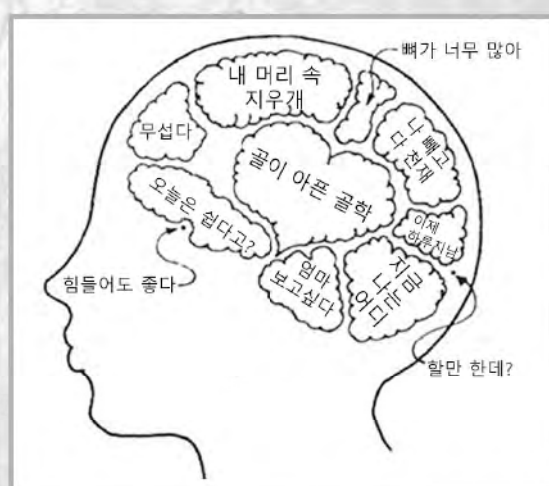
골학캠프라고 하니 뼈에 대해 배우게 되겠구나 생각은 했지만 과연 무엇을 배우게 될지, 얼마나 어려운 것일지 궁금한 마음으로 온 분들도 있었고 의대에 있는 친구들을 통해 골학이라는 것이 어렵다고 전해 들었는데 과연 나는 잘 할 수 있을지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으로 온 분들도, 골학 공부도 공부지만 합격 이후 처음 만나게 되는 동기들과 선배들이 어떤 사람들일지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온 분들도 있었습니다.



골학 첫 날, 들었던 생각은?

설레고 떨리는 마음도 잠시, 본격적으로 골학캠프가 시작되자 많은 분들이 처음 듣는 생소한 용어들과 단시간에 많은 것들을 외워야 한다는 부담감에 지치고 괴로워했는데요, 이를 대변하듯 설문조사에서 ‘합격 후 더 열심히 놀다올 걸 후회하거나’ ‘이런 것이 골학이구나’, ‘끝까지 잘 마칠 수 있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답변들 속에서도 소수는 ‘첫날은 할 만 했다’, ‘재밌는데?’ 와 같이 골학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답변들을 모아 만든 골학 첫날 본과 1학년 신입생들의 뇌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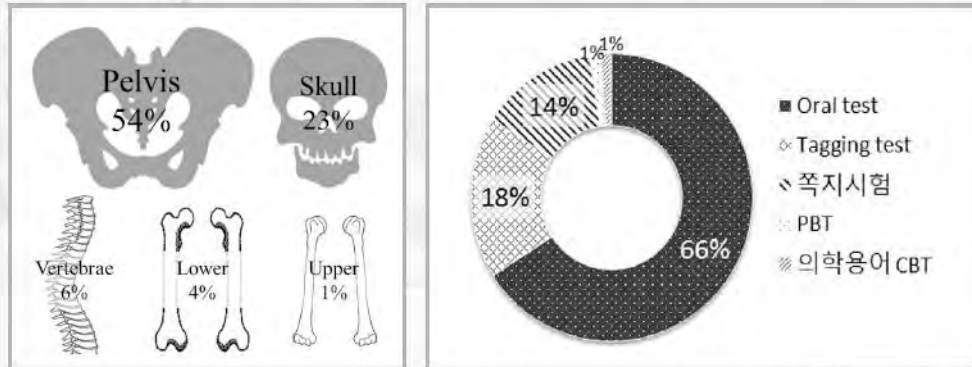
2. 골학 심층탐구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

골학캠프가 힘들게 느껴졌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이 수면부족을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꼽았습니다. 잠이 모자라서 아침에 기상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고 하네요. 나는 공부할 시간도 촉박하고 암기력의 한계를 느끼며 킁킁대고 있는데 주위의 동기들은 나빼고 다 잘하는 것 같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월등히 잘하는 동기를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 힘들었다고 하고, 골학기간 중간 중간에 진행되었던 oral test가 주는 심리적 압박감과 새하얘지는 머리로 인해 좌절감을 느낄 때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다음날 더 많은 골학이 기다리고 있다는 암울한 미래와 짧게만 느껴지는 식사시간과 쉬는 시간으로 화장실 갈 시간이 부족해서 힘들었다고 응답한 분도 있었습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나도 모르는데 동기를 가르쳐 줘야했던 것이 부담스러웠다는 분도 있었고, 여자 친구랑 연락을 잘

하지 못해서 헤어질 뻔 했던 분도, 하루 종일 운동화를 신고 있어서 나의 발 냄새를 견디기 힘들었다는 재미있는 답변을 해준 분도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파트, 가장 어려웠던 시험



가장 어려웠던 파트를 묻는 질문에는 압도적으로 Pelvis가 어려웠다는 대답이 많았고, skull internal, external 순으로 공부하기가 어려웠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마지막 날 배웠던 탓에 이미 다른 지식들로 머리가 가득차서 Pelvis 파트가 더 어렵게 느껴졌던 것 같고, skull part 는 1분 30초의 oral test가 단어 외우랴, 발음 신경쓰랴, skull 보랴 게다가 시간제한도 있어서 더욱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겪게 될 다양한 시험방식을 짧은 골학기간 동안 경험해 볼 수 있었는데, oral test와 tagging test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방식의 시험이라서 어려웠던 것 같고, 더군다나 tagging test는 짧은 시간동안 알고 있는 지식을 재빨리 끌어내어야 해서 지식 뿐 아니라 순발력까지 요하기 때문에 더 어렵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튜터는?

모든 튜터들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수업을 했지만 특히 기억에 남는 튜터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진한 인상을 남겼던 올해의 튜터는 이강산 동기였습니다. 응답자 중 무려 21%의 지지를 받았는데요, 인상 깊었던 이유로는 가장 어려웠던 pelvis 파트를 막힘없이 줄줄 이야기 하는 모습이 마치 로봇 같았고 군대 조교 같이 무섭기도 했는데 그래서 유독 pelvic bone을 잡을 때 긴장되고 경건해진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발음이 특히 중요한 internal skull을 가르쳤던 튜터들도 기억에 많이 남았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강주연 동기가 유창한 영어발음을 구사하다가도 유창한 대구사투리로 말하던 모습이 기억에 남았고 조원들이 한명, 한명 설명할 때마다 느려도 끝까지 도와주면서 기다려준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합니다. 총정리를 맡았던 김채원 동기는 다른 튜터들에 비해 튜터링 시간이 적었음에도 많은 득표수를 보였는데요, 학

원 강사처럼 핵심만 콕콕 집어내 알려주어서 자신의 골학 성적에 한줄기 빛과 같았다는 고백이 담긴 대답이 있었습니다. 한명, 한명 다 소개하지 못하지만 튜터로 수고해주었던 많은 분들이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원어민 같은 발음으로, 때로는 힘이 되는 격려의 말로 깊은 인상을 남긴 골학캠프였습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힘들었지만 함께했던 동기들 덕분에 재미있는 일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다들 조용하고 있는 와중에 같은 조의 한 누나가 갑자기 주먹감자를 내지르는 자세로 한쪽 팔꿈치를 반대 손으로 짚으면서 olecranon!! 이라고 외친 것, 정숙하라고 해서 조용하게 각자 공부하는 분위기였는데 누군가가 EXID의 위, 아래 춤을 Pelvis의 anatomical position으로 표현하면서 아나토미칼 포지션! 아나토미칼 포지션! 이라고 외쳐서 다들 웃었고 훈훈한 분위기에서 공부했던 것, 간식시간에 나온 피자를 먹으며 다 같이 피자 anatomical position 이야기 한 것, 골학이 끝나고 조원들과 치킨을 먹는데 갑자기 이게 치킨의 femur냐며 anatomical position에 대해 설명해 보라고 해서 엄청 웃었던 기억, 한 동기가 vestibulocochlear nerve가 안 외워진다고 하자 옆에 있던 동기가 알려준 암기법: "베스티(걸그룹)는 별로 코가 안 깨끗해", 동기가 시험 못 봐서 이름 불린 것 같다고 떨면서 나갔는데 간식 받아온 것.

매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사람들과 생활하다 보니 이렇게 웃지 못 할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네요. 이 외에도 다른 의미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도 있었는데요,

첫째 날 쪽지시험을 많이 못 쳤습니다. 골학장님이 부르셔서 '아 혼나는 구나' 생각하면서 나갔는데 예상과는 달리 격려해주신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덕분에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냥 무섭게만 느껴졌던 선배가 든든한 선배로 힘이 되었던 훈훈한 모습이네요.

골학이 끝난 직후에는 힘들었던 기억만 진하게 남지만 시간이 지나 다시 이 시간을 되돌아볼 때면 이처럼 재미있었고 따뜻했던 일들도 있었다는 것을, 이 힘들었던 시간도 다 추억이라는 것을 느끼게 될 날이 오겠지요. 골학캠프가 입학 후 학교생활에 적응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3. 함께 한 동기들에게 한마디

- 1조 : 힘든 만큼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동기들을 만났다는 것이 가장 가슴 벅차네요. 앞으로 남은 더 큰 산을 서로 도와가며 잘 올라가봅시다! 1조 사랑해요♥ 그리고 저희를 위해 대단히 큰 고생을 해주신 2학년 모든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2조 : 다들 고생 많았고 함께 해서 힘이 됐어요. ^^ 사랑2조 화이팅!
- 3조 : 서로 다르고 서로에 대해 잘 모르던 우리가 끈끈하게 조금씩 하나 되어 가던 골학 기간은 우리의 앞으로의 생활에 뼈대가 되겠지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하나 되는 110명의 15학번이 됩시다. 어디서도 보여주지 않았던 내 모든 초췌함과 정신 나간 모습들을 본 "가족" 골학3조 사랑합니다 <3
- 4조 : 다들 잠도 몇 시간 못 자는데 열심히 하는 모습보고 저도 힘내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유급되는 사람들 없이 다 국시까지 가는 15학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잘 참고 견뎌서 너무 기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알러뷰!!
- 5조 : 처음에는 다들 서먹했었는데 나중에 진짜 잘 맞고 즐거워서 힘든 와중에도 함께 잘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입학한 뒤에도 계속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15학번 지화자!!!
- 6조 : 중간 오랄테스트 하위 30%를 맞아 골학팀장님께 불려나가서 "이런식으로 하면 나머지 100%입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멘붕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care해 주셔서 결국에는 나머지를 하지 않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어려운 골학 기간 동안 서로 도와주면서 정말 가족처럼 지내게 되어 좋습니다.
- 7조 : 아마 혼자였다면 못 했을 텐데 다 같이 밤새며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의지가 많이 되고 기꺼이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너무나 고생 많이 했고 공부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합니다. 앞으로도 꼭 유급 없이 가실게요^^
- 8조 : 많이 힘들었지만 함께 며칠을 보내면서 우리들 스스로 돈독해지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잠도 부족했을 텐데 모두 수고했고 더 힘든 공부들이 기다릴 테지만 경북의전 입학을 위해 노력했던 시간을 기억하면서 함께 나아갑시다.
- 9조 : 함께 동고동락한 동기들 덕분에 골학이 정말 재밌고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들 수도 있었던 골학을 즐거운 추억으로 만들어준 동기들에게 감사하고 지금까지처럼 함께 합시다! 사랑합니다.
- 10조 : 본인들 외울 시간도 부족했을 텐데 친절히 쉬운 암기법도 알려줘서 정말 고맙다. 동기들 아니었으면 도중에 진짜 뛰쳐나갔을지도 몰라. 동기 사랑을 왜 그렇게 강조하시는지 정말 잘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도움 받은 만큼 앞으로는 많이 도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골학 10조 화이팅! 사랑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용희 교수님 -

본과 2학년 강 주 연

“글쎄, 이 사회의 앞면도 모르고 시작했던걸요.”

학생시절 해부에 남다른 재능을 보이셨다는 교수님이 기초의학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혹시 이 사회의 뒷면에 대해 귀뜸하실 것은 없을까. 고민 끝에 던진 질문에 돌아온 우문현답이었다. “뒷면 아니라 앞면도 모른다”는 해맑은 김용희 교수님은 2007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 우리학교 미생물학 교실에 2014년 조교수로 발령받아 작년 처음으로 우리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셨다. 그래서 의전원 14학번에게는 김용희 교수님이 특별히 기억에 남는 교수님으로 손꼽힌다. 인터뷰를 하다 보니 “내가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강의를 준비한다”는 교수님이 누구보다 우리의 교육에 관심 있는 우리들의 참된 교육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학생들이 교수님을 기억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수님이 권위보다는 어떻게든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시켜 수업을 재미있게 이끌어나가기 위해 땀 흘리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와 닿았기 때문이다. 교수님과 가장 많은 시간동안 얘기를 나눈 것도 교수님의 강의에 대해서다. 교수님께서도 당신이 연구보다는 교육에 재능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연구에서 대가가 될 자신은 없어도 강의는 최고로 잘 할 자신이 있으시다고. 하지만 교수님은 말재주가 좋은 편은 아니라고 하셨다. 그 말인즉슨 완벽한 준비로 이루어지는 강의라는 것.

“학생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기본이다. ‘점심 먹고 왔으니까 졸리겠지?’ ‘며칠간 강의 복습도 못했을 텐데 딴 세상 이야기로 들리겠지?’ 사실 공부하는 것이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꼭 필요한 과정이다. 내가 강의동안 할 일은 학생들이 복습할 때 조금이나마 재미를 붙이도록 흥미를 유도하는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성공이다. 학생들의 ‘흐려져 가는’ 의식을 ‘뽕 터지는’ 웃음으로 돌려놓기 위해 중간 중간 강의내용과 관련된 유머를 미리 짜놓는다.”

1강에 앉아 카페인으로 뇌를 적셔가며 하루를 버틴 우리들에게 김용희 교수님의 수업이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 “교수라는 근엄해보이는 직종의 사람이 개그를 한다는 ‘의외성’ 때문에 웃기기는 좀 더 쉬운 편이지만, “뽕터짐”에는 트렌디한 유머가 꼭 필요해서 안 보던 TV도 쳐서 트렌드 공부를 한다.” 그런 교수님의 노력에 비해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작디작았다.

교수님이 공부하시는 것은 트렌드뿐만이 아니다. 간혹 다른 교수님들의 수업을 참관하시는데,

이는 초보 교수로서 숙련된 선배 교수님들의 강의 기법을 배우기 위해서, 또 2학년 수업을 들어 보면 1학년 미생물학에서 어떤 내용을 가르치고 2학년으로 올려 보내야 할 지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신다.

완벽한 교수님의 강의비결은 리허설에 있었다. 강의 리허설이라니. 충격적이었다. “학생들의 쉬는 시간은 시급 5580원과 같다”며 준비 한 유머까지 합해 적어도 1-2분은 일찍 마쳐주기 위해 타이머를 설정해놓고 연습해 오시는 교수님의 수업을 우리가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교수님이 권위를 세우지 않기 위해 모든 이야기를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 주시기는 했지만, 교수님은 누구보다 스승으로서의 사명감이 투철해 보였다. 경북대학교에 오신 이유도 나라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국립대학교의 의과대학 교수가 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 아버지와 친구들을 포함해 많은 주변인들이 경상도 사람들이 어서인지 경상도와 대구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 기분 좋게 임용에 지원하셨다고 한다.



“학생들의 쉬는 시간은 5580원 시급만큼이나 소중하죠. 내가 할 일은 정해진 시간 동안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내어 공부를 재미있게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예요.”

한편 교수님은 학창시절 친구들과 자주 다시 만나신다. 졸업과 동시에 학번의 졸업동기회가 만들어졌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61회 동기회장이라는 교수님은 1년에 한두 번씩 여름 맥주파티와 같은 유쾌한 정기모임을 주최하셨다. 물려다니는 친구들의 모임 이름은 “구리구리패밀리.” 열흘에 한 번꼴로 자주 만나지만 여전히 말은 제일 잘 통한다. 연애, 육아, 병원 생활 등 살아가는 이야기와, 학창시절의 추억을 공유하는 것이 소소한 재미라고 하신다. 우리들이 사회에 나가면 아마도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려나.

큰 동아리보다는 작은 동아리가 좋아 합창단을 마다하고 산악 동아리에 들었다는 김용희 교수님. 설악산과 백두대간을 정복하며 “이것도 버텼는데 살면서 뭘 일인들 못 버티겠나” 하는 자신감을 얻었으며, 사람 그림자도 볼 수 없던 등반 동안에 속세의 모든 것에 새삼 고마움을 느끼셨단다. 소소한 것에 즐거움을 느끼고, 작은 것까지도 관심을 기울여 세심하게 살피는 교수님과 꼭 어울리는 취미이지 않았나 싶다. 보내드린 질문지에 답을 하나하나 정성스레 달아 프린트까지 해 주시면서도, 교수님은 “모든 직업이 그렇지만, 특히 의사는 자신의 직무에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야한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인생이 무너지는 직업이다. 의사는 투철한 직업의식을 가져야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의사 면허를 장롱에 두고 있어 ‘의사가 되는 것’의 의미를 진지하게 말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며 자신을 낮추셨지만, 교수님은 그 자리에서 누구보다 뜨거운 스승으로서의 사명감으로 우리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과대학의 학생들을 바라보고 계셨다.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앞으로 수업을 듣게 될 15학번 학생들에게 남긴 짧은 인사를 끝으로 이 글을 마친다.

(**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주신 김용희 교수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전원 입학을 축하합니다.

미생물학을 재미있는 과목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2학기에 만나요!”

미래의 많은 의과학자를 기대하며

- 허근 교수님 인터뷰 -

글 : 본과 2학년 박 혜 진(92)

사진 : 본과 2학년 유 지 훈

생화학교실에 새로 부임하신 '훈남' 교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허근 교수님을 찾아뵙어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 출장과 대학원 수업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흔쾌히 만나주시고 최선을 다해 답변해 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경북대 의대 생화학교실로

학사 학위를 마치고 서울대 의대에서 종양생물학을 전공했고, 2008년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일본 국립암센터에서 2년 정도 박사후 연구과정을 밟고 2010년 미국으로 가 Baylor University에서 4년간 박사후연구원으로 있다가 2014년 2월에 대전에 있는 한국 생명과학 연구원(KRIBB)에 선임연구원으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교실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로 연구한 분야는 translational research인데 자연대보다는 의대에서 연구하는 것이 환자샘플을 얻기 쉽다는 장점도 있고, 병원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연구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 경북대 의대 생화학교실로 오게 되었습니다.

연구하고 계시는 분야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시고, 교수님의 꿈이나 목표가 궁금합니다.

저는 암에 대한 연구, 그 중에서도 암 전이에 대한 연구를 해왔고 연구를 바탕으로 바이오 마커를 개발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혈액과 같은 체액 내에 존재하는 miRNA의 발현양상이

환자의 임상적 위험요소나 예후인자와 관련된다는 것을 이용하여 바이오 마커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이고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개발한 바이오 마커가 암의 진단이나 치료에 이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라는 직업이 연구자이자 교육자이잖아요? 연구자로서의 목표는 논문을 위해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찾아낸 바이오 마커가 진단 kit로 제품화되거나 신약개발의 target이 되는 것과 같이 실질적으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하고 싶다는 것이고, 교육자로서의 꿈이라면 그동안 쌓아왔던 많은 연구적인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기초연구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기초연구에 대한 흥미를 심어주고 싶습니다. 이번 학기부터 본과 1학년 생화학 강의에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맡은 부분이 DNA, RNA, gene regulation이에요. 저는 textbook에 나와 있는 대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내용들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소개해 주고 싶어요. 저는 암에 대해 연구해 왔으니까 gene regulation이 어떻게 환자에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소개해 주고 싶고,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알려주고 싶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좀 더 흥미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 중에 의과학자로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즐거하시는 취미생활이 있으시다면 소개해주세요.



교수님께서 샌디에고(San Diego)학회에 가셨을 때 찍으셨던 사진

저는 취미로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취미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우연히 인터넷에서 예쁜 해변사진(나중에 찾아보니 몰디브사진이었다고 하시네요)을 보고 이런 사진을 찍어보고 싶다고 생각했고 무작정 카메라를 샀습니다. 그 때는 아직 DSLR 붐이 일어나기 전이어서 어디 배울 곳도 마땅히 없고 혼자 사진을 찍으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학회활동으로 외국이라 던지 어디 갈 일이 많은데, 학회에 가게 되면 그 도시를 사진에 담아오는 것을 하나의 작업으로 삼아하기 시작했습니다. 풍경사진을 찍어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디에서 찍었는지 정리해놓고 있는데 작은 소망이 있다면 좀 더 나이가 들고 내공이 쌓이면 그동안 정리해두었던 사진들을 모아 사진첩을 내고 싶습니다.

해외에서 연구 활동을 하시다 한국에 오셨는데 어떤 점이 다른가요?

우선 한국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웃음). 이런 말이 있어요 “미국은 불편한 천국이고, 한국은 편한 지옥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인터넷을 설치하려고하면 한 달씩 걸려요. 그래서 불편하죠. 하지만 장점은 사람들에게 여유가 있다는 것? 미국에 갔을 때 가장 부러웠던 것은 병원에서 청소 일을 하시던 분들도 저를 보면 처음 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반갑게 인사해주는 여유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요일 오후가 되면 월요일을 생각하며 스트레스를 받는데 외국은 그런 것이 확실히 적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부러웠습니다. 우리나라의 좋은 점은 무엇이든지 빠르다는 것. 내가 원할 때 쉽게,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아요.

연구적인 측면에서 보면 외국은 확실히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똑같이 아침 9시에 출근을 하고 6시까지 일을 하면 외국의 사람들은 점심을 간단히 샌드위치를 먹으며 해결하고 집중해서 일을 해요. 직장에서는 집중해서 일을 하고 그 외의 시간은 가족과 함께 보내고. 그러면서도 연구실적은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좋아요.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연구외적인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하기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내 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내가 경험하고 알게 된 지식들을 전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그 학생들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연구를 하다보면 mouse나 초파리와 같은 실험동물을 이용한 연구를 많이 하게 되지만, 궁극적인 연구의 목표는 초파리나 쥐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한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해가 빨라요. 지금 상황에서 어떤 연구가 중요하고 필요한지, 당장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무엇이 중요한 지를 잘 아는

거죠. 일반적으로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초점 자체가 달라요. 그냥 단순히 연구를 위한 연구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아 환자의 치료에 적용하기가 어려운거죠. 임상 의사분들은 반대로 사람과 질병에 대해 잘 알지만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임상 의사와 연구자가 양분화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의과학자인 것이죠. 그래서 의과대학 학생들이 연구를 하게 되면 더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습니다. 임상의가 되어 하루에 환자를 100명을 보면 100명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기초연구를 해서 큰 발견을 하고 새로운 신약이나 치료법을 개발하게 되면 100명이 아니라 천 명, 만 명, 수십만 명을 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틈틈이 세미나나 학회를 접하게 된다면 translational research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대구는 처음인데 수업을 들어가게 될 1학년은 앞으로 알게 되겠지만, 2, 3, 4학년은 잘 모르는데 제가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먼저 아는 척도 해 주시고 다가와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누섬툰

바이.Chellee

1학년이 제일 힘들죠.

아직 적응도 못했는데 맨날 실습에..
실습 끝나고 샤워해도 포르말린 냄새 난다구요.
실습 없는 동기들까지도 냄새난다고 피해요
태깅 시험 다들 쳐보셨잖아요
실 한번 따라가다 놓치면...
와우 1학년 진짜 힘드네요.



해본 사람은 다 알죠. 2학년이 제일 힘들잖아요.

진짜 시험이 월토월이라니, 그렇다고 양이 적은
거도 아니고.. 공부할건 많고 이제
후배들도 챙겨야 되고 동아리도
2학년이 메인이고.. 힘들어요.
장난 아니라니까요.



진짜 다들 편한줄 아는데 PK 장난 아니에요.
케이스 발표에 저널 리뷰에 같은 증상으로만
오시는 것도 아니라 맨날 공부해야되요.
다들 편하다 해도 '지나고 보면'
이라 하거든요?



더 슬픈건 PK 힘들다 하면
다들 웃어요. 아 진짜 힘드는데..

나는 좋아!!
나는 편해!!
4학년 좋아!!



선생님 재네들 힘들대요

INTERN



넌뒤
나중에 생각하면
이불킥 하겠지..



학생들은 아직 질문에 대답 못해도 되죠?

교수들은 매일 틀리면 안
되는 시험을 치고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친절하게
맞출 수 있을 만큼 힌트를
주지도 않아요.

PROF. K 지금이 좋을 때죠?



언젠가 편해지긴요, 니가 강해지는 거 뿐이에요

-한 외과 R4

엄마가 의대이면 애인 생긴됐는데...

-본4 000

하아 콩팥 니가 뭔데

-신장 시험 하루 전 본2 이모씨

한 40대쯤 되면 편해질걸?

개업했어?

아 그럼 힘들겠다.

-A 교수님

다른데서 옳은 답을 물을 때

'가장' 옳은 답을 고르라는 곳

-의대는 어떤 곳인가? 라는 질문에 한 본2가

도망쳐!!!!

-면접보러 온 신입생들에게 어느 본2

2차 시험이 남아있어서 정말 큰일이다

-1차시험 전 2차시험이 남아서 다행이라던 본2 문모군



김혜인 <고독미>



김용태 <가을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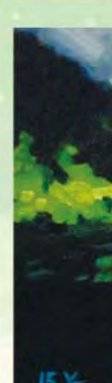
김수진 <rose>



김미정 <가족>



김혜민 <어머니의 졸업식>



김용태 <나룻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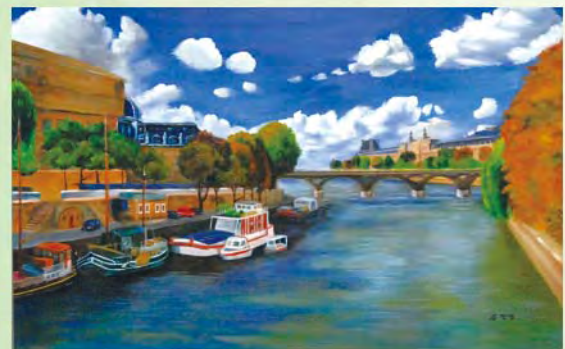
박소현 <가을>



박형훈 <겨울방학>



박형훈 <워너비>



배진성 <파리의 가을>



박혜진 <기차에서>



고민철 <감사>



박소현 <수국>



박혜진 <비행기에서>



김미정 <알프스 마을>



양석열 <Yosemite>



윤오준 <체게바라>



양석열 <Eiffel tower>



이겨레 <오후>



이선화 <기대>



전정배 <Por uno cabeza>



정선미 <훗카이도>



정휘경 <저무는 해>



정재현 <내 마음의 갈대>



정지윤 <부엌풍경>



정승희 <한 여름의 꿈>

최진국 <cafe>



박지연 <튤립>



김태영 <첨성대>



정재현 <가을날의 풍경>

셋. 문예

- ▶ 자는 여자 - 정지윤
- ▶ 축하 - 김로데
- ▶ 첫사랑 에세이 이별선언 - 안상준
- ▶ 신입생이 쓰는 시 - 이원석

자는 여자

본과 4학년 정 지 윤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 x동
시멘트로 계단을 바른 건물
5층 옥탑의 박—님께.

#. 그것은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시작되었다. 여자가 간밤에 꾸곤 꿈 때문이었다. 옷걸이에 옷을 거는 꿈이었다. 여자는 어느 때처럼 집에 돌아와 거실용 슬리퍼로 갈아 신고, 방으로 가서 옷장을 열었다. 가지런히 걸린 철사 옷걸이들. 그녀는 두 번째 옷걸이에 외투를 걸었다. 꿈에서 깨어 여자는 나설 채비를 했다. 이미 어떤 꿈을 꾸었는지는 잊었고 그저 일상적인 행동들을 해 나갔다. 샤워를 하고 머리를 말리고 화장품을 바르고. 그리고 외투를 입기 위해 옷장을 열었다. 사실, 꿈 밖에서 여자는 세 번째 옷걸이에 외투를 걸었었다. 여자는 아무렇지 않게 옷을 꺼내 걸쳤다.

그날 밤 여자는 사이다를 사다 놓는 꿈을 꾸다. 집에 와 검은 비닐을 열자 500ml짜리 초록색 사이다 페트병에는 아주 작은 물방울들이 맺혀있었다. 손에 물이 묻지 않게 마개를 잡아서, 냉장고를 열고 사이다를 문에 꽂아 놓았다. 꿈에서 깬 여자는 사이다를 마시고 싶어져서, 냉장고 문을 열었다. 사이다는 없었다. 착각이었나? 여자는 대신 물을 마셨다. 그리고 시계를 보니 아직 나갈 때가 아니다. 좀 더 자야지. 여자는 다시 누웠다. 얼마나 지났을까, 눈을 부비고 시계를 본다. 아직 5분밖에 지나지 않았구나-다시 눈을 감는다. 여자는 시계를 보는 꿈을 꾸고 있다. 그렇게 그 날 있던 모임을 놓쳤다. 시계 보는 꿈을 두 번. 두 시간 여를 더 잤다.

#. 사실 한동안 그녀의 생활에는 재미있을 일도 슬픈 일도 잘 없었다. 네 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을 낳았다. 첫 두 손녀까지 키우고 나니 그 다음 생명들은 그녀가 키우지 않아도 알아서 커갔다. 찌개를 끓였고 나물을 다듬었다. 집안일은 권태 했지만 그녀가 평생을 해 온 일이었기에 별다를 것이 없었다. 다리가 아파지면서 밖에 나갈 일이 없어졌고, 하루에 한 번 산책을 나가는 것이 외출의 전부가 되었다. 일어나야 할 때를 알리는 시계가 느려지고 있었다. 그녀가 꿈과 현실 어딘가에 그녀가 놓여있는 것을 가족들은 한동안 모르고 지냈다.

어느 날인가 그녀는 나를 거실에 불러다 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 비가 오는 날이었다.

— 여기 같은 세상이 저 아래 땅 밑에도 있구 하늘에도 있는거여.

그러다 가끔 하늘에 구멍이 나면 저 위에서 부텨 물이 내려와서 하늘에 내리는겨. —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알고 있을까? 아마 알 필요가 없었겠지. 코대답을 하고서는 거실 바닥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봤다. 네모난 천장을 하얗게 발라 냈다. 네모난 등 세 개가 오도카니 나를 마주보았다.

그 주의 주말 저녁 텔레비전에서는 '씽크홀(sinkhole)'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방영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유 없이 땅이 꺼져버린다거나 호수의 물이 다 빠져버리고 나면 그 곳을 '씽크홀 sinkhole'이라는 지명으로 부른다는 거였다. 나병환자들의 재활센터 앞마당에도 씽크홀이 생겼다. 처음에는 화단의 일부가 땅 속으로 사라졌는데, 이윽고 건물 한 채와 마당 전체가 푹 꺼져버렸다. 환자들과 수녀님들은 그곳을 떠나왔다. 다큐멘터리 진행자는 땅 속에 흐르던 지하수가 화강암을 천천히 녹여 커다란 공간이 생겨버린 탓이라고 했다.

#. 어떤 시점을 계기로 그녀는 거의 하루 종일 자다시피 했다. 내 기억에는, 어떤 날 공원에 갔다가 발을 헛디뎈 넘어진 뒤였다. 하루일과의 전부라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간단하게 인생에서 끝나버렸다. 이 후 그녀의 인생에서 '산책-그녀는 마실 나간다는 표현을 썼다-'이라는 것이 사라졌다. 아기가 첫 걸음을 떼는 것이 엄청난 일이듯, 그녀에게 그 날 오후는 대단한 일생의 사건이었다.

낮과 밤이 흐려졌다. 더이상 저녁에 스스로 불을 켜지 않게 된 것이다.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니 온 방에 불이 다 꺼져 있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그녀는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하고 있었다. 그리고는 날더러 아주머니께 인사를 드리라고 했다. 그러면 나는 불을 켜고, 아무 것도 없음을 확인해주면 되었다. 이상한 일들이 반복되었지만 그저 꿈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들이 용인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잠을 자는 일이 그녀에게 그다지 편한 일은 아니었던 것 같다. 침대 밑으로 떨어지는 일도 많았고, 무슨 일인지 자다가 버럭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기 일쑤였다. 그래도 거짓말처럼 잠에 빠져들고 잘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이야기들은 계속되었다. 가끔 나는 의무감으로 혹은 온전한 궁금함으로 그 꿈의 내용들을 묻곤 했다. 그러나 기억하지 못했다. 대신 내가 그럴 때마다 그녀는 옛 이야기들을 해 주고는 했다.

그녀가 깨어있는 동안 획득하는 일련의 단서들이 자꾸만 그녀 안에서 가장 생생하게 기억된 이야기들을 자극하는 것 같았다. 이를테면 그녀의 막내 딸 이야기. 딸은 무학여중 무학여고를 다녔고 가족들은 학교 바로 앞에서 살았다. 어느 날 그녀에게 딸이 용돈을 달래서 ‘집 앞으로 학교가면서 왜 용돈이냐’며 주지 않았다. 그런데 다른 날 보니 모든 학생들이 아이스끼끼를 빨면서 집으로 가고 있었다. 아 딸애도 그러고 싶었던 거구나. 그때 알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수십 번이고 되풀이 할 때마다 한결 같이 그녀의 서글서글한 눈망울이 반짝거린다. 그런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다. 그리고 나는 그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어 기진맥진 했다.

- #. 카세트테이프를 틀면 본 내용이 나오기 전 알 수 없는 음들이 곱게 밀려나온다. 텅 빈 노래는 비었으되 잔잔하고, 고요하다. 그녀가 이미 흐려진 낮을 헤매는 동안 나는 머리맡에 앉아 그냥 그녀를 지켜보았다. 가끔 팔이 떨리는 모양이나 입을 오물거리는 모습을 보았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그녀와 같이 살고 있기는 한 건가? 내가 보는 것이 그녀일까 그녀의 꿈일까. 언제쯤 본 음이 나오는 걸까. 가만히, 성성한 머리를 만져볼 따름이었다.

그녀가 5남매를 데리고 서울에 상경해 도착한 곳은 왕십리. 샛바느질과 공과금 수납. 아무 지지 못한 집안일, 땀꾸정이 그득한 아이들이 하교하는 거리를 배경으로 살았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 나와 그녀에 대해 가진 첫 기억에서도 그녀는 왕십리에 살고 있었다. 5층의 옥탑에서였다. 시멘트로 계단을 바른 집. 늘 물에 젖은 시멘트 냄새가 나는 곳이었다. 많은 시간이 흘러 32층 주상복합의 성에서 그녀는 그 시절 자신에게는 재미있는 이웃이 많았고 회상했다. 아침 아침으로 저녁을 저녁으로 살던 날들.

가끔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그 경계에서 그녀는 그 때 만났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곤 했다. 그러다가도 — 내가 요새 맛을 모르고 산다. — 는 말로 다시 내가 있는 세상으로 돌아왔다. 지나간 노래들은 그녀 귓가의 이명이 되어있었다.

- #. 그 모든 자잘한 불평들도 잠 속으로, 하나 둘 꺼져버릴 때 즈음 이었다. 오랜만에 모인 그녀를 아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 이야기를 했다. 내가 아는 그녀에 대한 것은 그 사람들이 모르고 그들이 아는 것은 내가 모르는 이야기들이었다. 그녀가 옷장에 넣어둔 옛 사진들을 나눠 보았다. 나의 부모도 그녀 사진첩에 꽂혀있었다. 그네들이 내 나이일 때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내 부모 나이일 적의 사진, 내 나이일 적의 사진도 가만히 놓여있었다. 이제는 구멍이라 부르기에 너무 커져버린 그곳에서 흘러간 옛 노래가 흘러나왔다.

축하(祝賀)

본과 3학년 김 로 데

하나.

동성로 한복판. 이제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영화관으로 변해버린, 그 시절 한일 극장 앞에서 남색의 2G 폴더형 핸드폰이 주머니 속에서 지이잉 짧게 울었더랬다.

*축하합니다! 귀하는 OO 대학교 XX 전형에 합격되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등록금 납부는...*

글쎄, 그녀가 대학생이 되는 모양이다. 함께 영화를 보러 나온 친구들 중 같은 대학에 지원을 한 수가 제법 되었기에 그들의 핸드폰은 아직 잠을 자고 있는가 살펴보려다 말았다. 컴퓨터가 가나다순으로 합격생에게 문자를 보내는 탓에 김 씨인 그녀에게 문자가 먼저 온 것일 거라 이내 수궁하고 고개를 돌렸다. 문자를 읽자마자 푹 하고 접었던 핸드폰을 다시 열었다. 통화음이 몇 번 울리고,

“네~~~”

“엄마, 합격했대요.”

“엄마야 세상에!!! 우리 딸 축하해!!! 다행이야 우리 딸!!!

너무 기분 좋겠다. 축하해 축하해!!!”

“네. 친구들이랑 영화 보고 들어가요.”

“응응~ 재미있게 놀고. 아우 감사해라! 그래그래~”

그 날 이후로 축하의 행렬은 주옥 이어졌고, 졸업식 날까지도 그녀는 그녀가 세상의 주인공인 마냥 그렇게 수많은 축하더미를 두 팔로 한 움큼 안았다.

둘.

멀리서 택배가 왔다. 커터 칼을 주섬주섬 찾아 큰 박스를 열었더니 왕주먹 크기의 초코 머핀, 오렌지, 폼 클렌징, 펜 세트 등 무언가 한가득이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카테고리가 무엇인지 가

넘기 어려운 이 박스를 내려다보고 있자니, 얼마의 할부금이 남아있는지 알고 싶지 않은 신상의 터치 핸드폰이 문자왔송~ 하고 울었다.

*고객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기념 쿠폰이 지급되었습니다.
쿠폰 확인하기 <http://...>*

저 꾸러미의 주제는 그녀의 스물두 번째 생일이었던 것이다. 통화음이 몇 번 울리고,

“여보세요!!! 언니야 생일 축하해!!! 서울에서 힘들제.”

“아냐 뭐 이제는 익숙하지 뭐. 아, 택배 고마워. 뭐 이런 걸 다.”

“아이다 언니야. 우리가 있제 코스트코도 가고 시장도 가고 문구사도 가고
암튼 오만 데 다 가서 막 꺾꺾 눌러 담았다. 머핀 안 찌그러졌드나?”

“응 뭐, 먹기엔 전혀 지장 없겠던데?”

“맞나~ 다행이다 진짜. 걱정 쯤 했는데 ㅋㅋ. 암튼 언니야 생일 축하한데이~
언니야는 서울말도 진짜 잘 쓴다. 내 친구는 아직도 사투리 쓰던데.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재밌게 보내~ 방학하면 대구에서 봐~~”

“응응 그러자.”

어제와 같은 오늘인데 그녀를 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다. 그들에겐 어제와 분명히 다른 오늘이라 무언가 특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그날이었다.

셋.

추석 더하기 개천절 공휴일이 이어지던 해였다. 얼마 전 이사를 하신 이모님 댁에 그녀와 일가친척이 모였다. 사촌들의 나이 터울이 한 살씩이라 고3 행렬이 4년째 멈추지를 않는다는, 그래서 매 해 마음을 졸인다는 외할머니의 말씀에 다들 고개를 끄덕이던 순간이었다. 사과를 한 입 베어 문 회사에서 이루어낸 혁신적 스마트폰이 식탁 위에서 떠링~ 하고 울었다.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 홈페이지에서 합격 여부 확인...

앉은 자리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폰을 만지며 합격을 확인했다. 이야기의 주제가 떨어질 찰나 조심스레 입을 떼었다. 손녀이자 조카이자 딸의 합격 소식에 온 식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

다. 그녀는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이종사촌의 방으로 슬며시 들어왔다. 통화음이 몇 번 울리고,

“응~ 친척들이랑 재밌게 보내고 있어?”

“이모네에서 즐겁게 있어. 뭐 해? 나 합격했어. 다시 학생 된대.”

“우와우와우와! 진짜? 진짜 진짜 수고 많이 했어. 축하해 축하해!! 와 기쁘다!
언제 대구 와? 당장 만나자. 불을 줄 알았지만 그래도 결과 들으니까 너무 좋다!
나한테 켈 먼저 연락한 거지?”

“응 맞아. 내일 갈 거야 대구에. 고마워.”

“뭐 먹고 싶어? 맛있는 거 먹자 우리. 아 기분 좋다!”

“응 그러자.”

“반응이 왜 그래? 안 기뻐? 난 내 일 마냥 기쁜데? 뭐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야?”

“아냐아냐. 나도 좋아.”

“에이~ 조금 업 돼도 될 것 같은데? 충분히 기뻐해도 되는 날이잖아~
아무튼 얼른 대구로 와 얼른~~”

그날 저녁은 그녀의 축하파티로 엄청난 양의 고기가 구워졌다.

넷.

그녀는 본디 감정이 메마른 양상한 나뭇가지의 사람이 아니었다. 슬픈 영화를 보고 눈이 툭툭 부을 만큼의 눈물을 가진 사람이었다. 오버스러움이 부족한 성정도 아니었다. 오히려 방청객 아르바이트생들 저리 가라 할 만큼의 리액션을 갖춘 쪽에 가까웠다. 그녀에게 주어진 결과들을 일상처럼 당연히 생각했느냐 하면 그것 역시 아니었다. 매번의 결과들이 본인의 노력과 능력에 비해 분이 넘치는 일이라 여기던 그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매 번 그녀의 일에 차분하다 못해 덤덤했다. 다이어트를 결심한 이의, 간이 하나도 되지 않은 닭가슴살 같았다. 누군가는 그녀의 SNS 담벼락에 왜 그녀가 이리도 축하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징황히 풀어놓기도 했었지만, 그녀 역시 본인을 축하하기도 전에 타인들은 어찌도 이리 빨리 축하를 전해오는지 의문을 느끼던 바였다.

그녀는 그녀 자신을 스스로 축하하고 뿌듯해 여기기도 전에 주변이 그를 다 흡수해버린 탓이라 생각했다. 본인이 본인을 축하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못한 채 주변에 알린 탓에 일정량 정해진 축하의 분량을 타인이 다 소진해 버린 것이다.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기면 혼자만의 축하의식

을 먼저 가진 뒤에 알릴까 잠시 생각해보았지만 이 역시 무언가 어색했다. 좋은 소식을 망설이며 알릴 이유가 무어란 말인가.

다섯.

축하 (祝賀) [추카]

[명사] 남의 좋은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뜻으로 인사함. 또는 그런 인사.

애초에 축하는 축하를 당하는 자의 몫이 아니었다. 나의 것을 누군가에게 뺏기는 종류의 성질이 아닌 것이다. 그녀가 그녀의 일에 쫓겨 기뻐하든, 남의 일인 양 무심하든 축하는 그와 별개로 그녀의 주변에서 그녀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일이었다. 그녀는 책상에 꽂혀있던 오래된 국어사전에서 뭔가 모를 자유를 찾았다.

여섯.

사과를 한입 베어 문 회사의 핸드폰으로 첫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한 그녀는 스마트폰을 새것으로 바꾸어도 여전히 그 회사의 것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까딱까 또옥~~ 하고 울었다.

야! 언니 결혼한다.(쑥스)

엄청나게 잘생긴 형부 맞이할 준비하고 이번 주말 시간 비워놔~(씨익)

마침내 그녀는 그녀의 축하를 사용할 대상을 바로 찾았다. 그녀에게 기회가 온 것이다. 곧장 그녀는 통화버튼을 눌렀다. 통화음이 몇 번 울리고,

첫사랑 에세이 - 이별선언

본과 2학년 안 상 준

소년.

소년에게 친구가 중요해졌다. 친구가 중요해진 만큼 선생님과 부모님은 중요하지 않아졌다. 공간에 대한 중요성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집과 교실 외의 공간들을 알아가기 시작했다. 같은 등굣길이라도, 교실에 있어야 될 시간에 마주한 공간은 자유로운 공간이 되었다. 처음 느끼는 맛, 향기, 빛깔이었다. 갈 곳은 많았고 시간은 충분했다. 매일 아침이 기대감으로 시작되었고, 만족감으로 끝났다. 지금 보면 거창한 곳도 아니다. 학교 뒷산 산복도로, 노래방, 당구장, 양호실, 백화점 뒷골목, 도심의 기차길, 냄새나는 실개천. 그게 그렇게 신기해 보일 때였다. 그렇게 난 그녀와의 첫 만남을 준비하고 있었다.

첫 만남.

정확히 기억하는 건 그날의 햇살 뿐이다. 따뜻하게 온 몸을 정확히 같은 양의 온기로 나를 감싸는 따뜻한 햇살. 향기도 바람도 기억나지 않고 친구와 나누던 이야기도 기억나지 않는다. 더 따뜻한 햇살이 있을 것 같은 곳으로 걸었다.

학교 뒷산은 제법 높은 편이었는데, 그 중에 낮은 봉우리가 하나 있었다. 봉우리 정상 부위가 큰 바위로 덮혀 있어 돌산공원이라고 불렸다. 사실 공원이라고 하기엔 민망하게 작은 팔각정 하나가 있을 뿐이었다. 그곳에 누워 낮잠을 잤다. 그게 가을 날씨였는지, 봄 날씨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그런 따뜻한 햇살은 여태 다시 느껴보지 못했다.

한참을 잔 뒤에 일어나서 봉우리의 절벽 끝으로 다가갔다.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고 햇살은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더 따뜻해 지고 싶은 욕심이 생겨 그랬던 것 같다. 친구 손에 있던 그녀를 내 손으로 옮겨쥐었다.

첫 키스.

첫 키스는 그때였다. 그녀의 키는 검지손가락 길이 정도였고, 젓꼭지만큼의 굵기로 아주 가녀렀다는 점이 다른 사람의 첫 키스와는 다른 점이다. 만남을 시작하기 위해선 발화점 이상의 열기가 필요하고, 만남이 이어질수록 연기가 되어 날아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

의 첫 키스와 닮은 점이다. 달콤함과 씹쓸함이 함께 온다는 점과 어지러운 느낌이 드는 것 역시 다른 사람의 첫 키스와 닮은 점이다. 남들의 그것과 조금 다르고 많이 비슷한 첫 키스는 햇살 따뜻한 날, 전망 좋은 돌산 공원에서 이루어졌다.

어지러움.

첫 만남을 표현하는 말로는 충분히 낭만적이지 못한 게 아쉽지만, 첫 만남은 어지러움이었다. 초점은 흐려지고, 도로 위 차선이 구불구불해 지고, 속은 메스꺼웠다. 그때 마침 내 가방 속 씨디 플레이어는 이 노래를 뱉어낸다.

“ 파란 하늘 위로 날아가 버린 새들의 노래 소릴 듣고선 자유롭다며 부러워 하던 친구여,
비가 내린 여름 날 하늘에 드높게 걸친 무지개를 보고 부르던 함성은 전깃줄 위에 웅
윙거리네 ”

햇살로 시작했던 따뜻함에, 탁트인 전망과 씹쓸함과 달콤함이 더해지고, 어지러운 느낌속에 어지러운 소리까지 더해진, 가장 완벽히 강렬한 첫 만남이었다.

만남.

그녀와 나는 대체로 사이가 좋았다.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 다른 연인이 그렇듯이 - 같은 이유로 다투고 다시 화해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다툼과 화해의 과정 모두 영원히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거라고 기대했다. 완벽한 착각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녀가 서서히 변해가고 있음을 느끼지 못했다.

이별.

얼마 전 그녀는 완전히 변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나는 그런 그녀에게 아주 많이 화가 나 있다. 그녀와의 시작이 영원히 기억될 만큼 그녀와의 마지막도 영원히 기억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났다. 변할 그녀와 다시 시작해볼까도 생각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한다 해도, 언젠가는 이별해야 하는 것이 우리 관계의 한계임을 직감한다. 이 글은 그런 그녀에게 쓰는 처음이자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한 달 뒤 썸이면 이 편지가 그녀에게 도착하게 된다. 그 때부터, 이별이다.

사람들은 이 이별을, ‘금연’이라고 부른다.

신입생이 쓰는 시

본과 1학년 이 원 석

피곤함 한병에
설레임 보태서
동기와 한잔만
하겠다 했건만

머리속 해부학
조직학 태생학
소맥이 되어서
넘어가 버리네

그렇게 오늘도
진탕이 되어서
집으로 오는길
후회를 해봐도

어차피 공부를
하지는 않겠지
오늘도 그렇게
유급이 가깝다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사진동아리 focus>

제 43회

2015.2.11 WED

~
2015.2.13 FRI

대구광역시립 중앙도서관
1층 가온갤러리

포커스

정기사진전





47대 강정우 <약속>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약속하고 자물쇠로 그 다짐을 표현하곤 합니다. 강은 계속 흘러가고 배는 지나가지만 사랑의 징표는 항상 그 자리에 남아 변치않는 인생에서의 약속을 간직합니다.



47대 김상훈 <돌보기>

멀리 있는 사물을 스마트 폰으로 사진을 찍어 확대해서 보고있는 모녀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47대 김소명 <시작>

매년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일출을 보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한다. 이런 사람들의 뒷모습에서 저마다의 삶에 대한 소망들이 들리는 듯 하다.



47대 손우곤 <사랑, 그것 -아드리아해의 진주->

아드리아해의 진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지중해 어느 도시, 이곳에서 와서 수많은 연인들이 사랑을 나누고 속삭이고 갑니다. 그들에게 진한 사랑의 추억이 될 이 사진을 출품합니다.



47대 신아름 <모정>

매주 주말 아침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미주알 고주알 서로의 일상을 나눕니다. 그녀들의 유쾌한 수다를 듣고 있으면 근심과 걱정을 웃음으로 풀어내는 이 순간이 인생의 모미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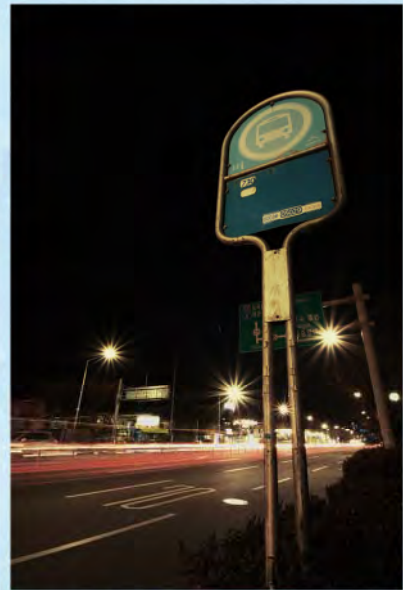
47대 우민석 <갈림길>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갈림길을 만나지만, 그 길은 언젠가는 만나게 되어있다.



47대 오정민 <시작과 끝>

만남과 헤어짐. 기다림과 외로움. 홀로 남는다는 것, 홀로 떠난다는 것. 인생은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일들의 반복이다.



47대 심대용 <환승>

한가지 목표를 가지고 한가지 방향으로 사는 것만이 옳은 것은 아니다. 가끔은 도중에 다른 방향으로도 갈 수 있는 것이다.



47대 이수미 <동행>

성공한 인생의 필수조건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진정한 친구. 한명이다.



47대 이창배 <하늘, 땅, 그리고 강물>

끝없는 대지와 푸르른 하늘, 그리고 유유히 흘러가는 강물이 잘 어우러져있다. 흘러가는 하늘과 강물은 마치 우리의 삶과 같다. 때로는 구름이 끼었다가때로는 굽이쳐 흐르다가, 또 잔잔해 지다가 하는 우리의 인생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47대 이혜승 <Long>

터키의 카파도키아에서 발룬투어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 디키 여행갔었을 때의 꿈을 11년 만에 이루었습니다. 발룬을 올라탄 순간 경이한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 감격을 기억하고자 사진으로 남겨게 되었습니다.



47대 장태양 <패가망신>

도박을 하는 모든 인간은, 불확실 한 것을 얻기 위해 확실한 것을 걸고 내기를 하는 것이다.



47대 최나영 <인생의 교차로>

어디론가 바빠 걸어가는 한 여인, 이야기를 나누는 두 친구, 낯선 곳으로 여행 온 커플, 누군가를 기다리는 남자.... 다양한 사람들의 삶이 교차되는 순간.



47대 한병화 <관람차>

인생이란 돌고 돌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게 아닐까?



48대 강주연 <신사의 반란>

젊은 날의 일탈 만큼이나 역동적인 삶의 방증이 또 있을까. 검은 수트의 무게도 짓누를 수 없는 젊음이 카메라를 응시한다.
Jan. 1, 2015. Brussels, Belgium



48대 김동환 <일몰>

해는 한창일 때 가장 밝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해질녘 무르익은해가 세상을 가장 붉게 물들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화려한 시기보다 지긋한 시기에 더 아름다워지지않나 생각해보며 한 장 담아보았습니다.



48대 박단 <동심>

옷이 흠뻑 젖도록 신나게 뛰어노는 아이들을 통해서 잊혀가는 우리들의 순수했던 모습을 다시 한 번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8대 박현규 <기다리는 마음>

등대, 낚시꾼, 바다, 하늘 모두 저마다 기다리는 존재들입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듯이, 무사히 돌아오길 바라거나 월척을 노리거나 강태공처럼 기회를 잡길 바라는 등 여러 형태의 기다리는 마음들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48대 배민재 <인생을 담아서...>

거리를 걸던 노인이 홀로 놓여있는 피아노에 다가가 연주하는 모습에서, 그의 일생동안 함께 해 온 피아노와의 교감을 사진에 담아 보고자 하였습니다.



48대 박수현 <가족>

멀리서 걸어오는 평범하면서도 행복해 보이는 4인가족의 모습이 예뻐서 카메라에 담아보았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버팀목은 가족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가족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48대 신대훈 <단풍과 스타프>

내 인생의 색은 내가 입힌다.



48대 심승보 <빈자리>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 갔을 우포늪 가의 의자를 보며 인생을 떠올렸습니다. 의자에 앉아 경치를 즐기다 언젠가는 떠나는 것처럼 인생 역시 이와 같지 않을까요? 사람이 떠나도 그 자리에 있는 의자처럼 한 사람이 떠나도 남은 이들의 인생은 계속 돌아간다는 점 역시 유사하다고 생각하여 사진으로 담아했습니다.



48대 유지훈 <시계>

삶과 인생을 가장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시계라고 생각했습니다. 벽에서 시계 이외의 것은 전부 지우고 시계만을 강조하였습니다. 하나의 순간에도 여러 삶이 있듯 한 순간을 4개의 분위기 - 색깔로 표현해봤습니다.



48대 이상우 <길>

사람마다 자신의 인생의 길은 다르다. 다른 사람의 인생과 만나 같이 인생을 살아갈 수도, 다른 사람의 인생과 교차할 수도 있다.



48대 임준현 <아직 나의 시간은 오지 않았다>

상황에 매여 자신의 인생이 남들보다 뒤쳐진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조금씩 알고 기다리세요. 우리를 위한 새로운 길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48대 이수진 <푸른 하루>

어느 평범한 날의 기분 좋게 시원한 풍경을 담아 보았습니다. 흔히 지나칠 수 있는 일상의 모습이지만 이런 하루하루가 모여 인생이 되는 것 아닐까요?



48대 정혜인 <This is India>

동물농장이다. 더럽고 역한 냄새가 나는 쓰레기 더미에서 먹이를 찾는 동물들이나 이를 방관하고 있는 이 사회의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다



48대 안건 <새로운 시작>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결혼. 결혼식을 마치고 사랑의 입맞춤을 나누는 새신랑, 새신부를 담아봤습니다.



48대 여준영 <회상>

호치민 공원의 어느 벤치에서 눈을 감고 옛 추억을 회상하는 듯한 노인의 모습



12대 박일형 지도교수님 <루비폭포>
68 행운 제36호



12대 박일형 지도교수님 <아잔타폭포>



고문 안희탁 교수님 <불국사>

찬조 작품

넷. 기고글

- ▶ 의사학(醫史學)講義 切實性
- 김재식 명예교수님 특별기고
- ▶ 살며 생각하며
- 김아람 의전원 1기 선배님 기고
- ▶ 대구광역시 의사회 라는 이름 - 송광익
- ▶ 30대가 말하는 인생에 대한 소고 - 익명
- ▶ 무제 - 박명현
- ▶ 서브인턴체험기 - 강정우
- ▶ 인턴X의 일독을 권하며 - 권혁주
- ▶ 해부학 실습 - 박주성
- ▶ 봄 - 익명
- ▶ 쉽게 쓰여진 시 - 권혁주
- ▶ 당신은 행복한가요 - 권영욱
- ▶ 산을 오르자고 했다 - 김정철

寄稿 - 의사학(醫史學) 講義 切實性

名譽教授 金 在 植

今年으로 本 教室의 의사학講義의 歷史가 54年째가 된다. 專攻科目 講義 <臨床病理學(診斷 檢査醫學)>는 2001年 2 停年退任 때 마치고 醫科大學에서는 唯一한 人文學講義가 된 醫史學은 아직도 恩師 고 김중명(金重明)교수의 뜻을 이어 教室 -後學 李源吉教授와 分擔하여 講義를 하고 있다. 恩師는 이런 疑問을 남겼다. '왜 醫史學을 工夫하느냐? 現代醫學의 完全한 利害에 있다고 하였다. 恩師는 專門科目講義도 있고 글도 써야 하는 處地에 學生 醫史學講義를 스스로 始作하였다. 남다른 熱情이었다.

恩師는 1960. 4. 19 學生義舉(革命)과 그 때의 校內 敎學事件을 契機로 스스로 醫學徒들이 무엇인가 使命感을 가지고 醫學을 工夫할 必要가 있다는 것을 叡智하고 科目開設認可를 받아 바로 醫史學講座를 始作하였다. 講義는 口述(口述)도 -트 講義였다. 즉 學生들이 받아 적는 口述강의였다. 이것이 나에게는 아직도 鮮 印象的이다. 日帝時代 講義의 獨特한 殘在이다.

恩師가 1967年度에 일본 오사카 -大學으로 2年間 나학(癡學)研究를 간 空白을 本人이 스스로 맡게 되었다. 대신 새롭게 처음으로 프린트 -敎材를 急히 만들어서 使用하여 代를 이었다. 나에게 是는 平素 恩師의 哲學的인 社會精神을 이어야 하는 使命感이 있었다.

그 때 醫史學講義는 政治社會가 混亂에 빠진 때라 醫學徒들에게 어떤 使命感을 불어 넣는 活力素가 되었다. 醫史學講義가 다른 大學에서는 거의 없었던 때라 至今 懷古를 해 봐도 感懷가 깊다. 先見之明이라고 할까? 恩師는 平素 正義의 鬪士이었고 生活哲學이 信義이었다.

恩師의 停年退任과 作故로 直屬 後學 이원길 敎授와 分擔 講義를 繼續 이어 가고 있다. 本人도 때가 이르러 2001. 2 정든 모교에서 停年退任을 했으나 恩師의 뜻을 그대로 이어 지금까지 醫史學講義를 맡고 있다. 최근에는 G 醫大에도 몇 年 동안 出講도 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數年 前 넘어서 頭部를 다쳐 神經外科에 入院治療를 月餘 받고 回復을 잘 하였다. 또 眼科에서 網膜出血과 變性の 診斷을 받고 苦痛이 極甚한 經眼網膜抗體注射注入術을 經時的으로 받고 있는 가운데 있다. 視力損傷과 또 脊椎狹窄症의 症勢로 그 동안 지팡이를 짚고 다녔으나 講義準備를 하는데 體力에 限界를 느끼곤 한다. 周邊에서 健康도 念慮를 해 주곤 해서 2015년 3月로서 講義를 後學들에게 맡기고 支援만 하는 役割을 맡을까 苦悶한다.

돌이켜 보면 오늘 날의 醫學은 可히 신(神)도 놀라는 境地에 이르렀다. 거의 못 고치는 병(病)이 없는 초현대의학(超現代醫學)이라는 結果를 낳았다. 이 超現代醫學도 不過 最近 30餘年間の 成果業績이다. 장기이식(臟器移植)을 하더니 이제는 생명복제(生命複製)에서 나아가 유전자(遺傳子) -診斷, -治療 및 -豫防 등에 이르기 까지 不可思議한 遺傳子 -맞춤 -醫學時代가 되었다.

이것은 醫學의 革命이다. 신(神)이 또 한 번 놀라는 地境이 아닐 수 없다. 完全한 科學的 -人間時代가 到來한 것이다. 여기에서 메스(mess) 없는 Xtjs 암(癌) -절재수술법(tomotherapy)이다. 실로 不可思議한 奇蹟이다.

이제 混亂한 이 時代에 하나 밖에 없는 생명(生命)을 名實 公히 完全하게 維持保存하기 爲하여 西洋醫學과 漢(韓)醫學으로 二元化되어 있는 羞恥스러운 後進國型的 醫療二元化制度를 果敢하게 하루 빨리 美國과 日本(1895)등의 先進國과 같이 醫療一元化制度로 革改하여 最高의 完全한 最先進國型的 超科學的 醫學으로 革命을 일으켜야 한다고 確信한다. 이것은 事必歸正이다.

仁術을 根本으로 삼아야 하는 醫術을 爲한 醫學教育의 새로운 改編도 世界的으로 必要하다는 것을 指摘하고자 한다. 너무 人氣科目中心의 專門醫時代가 되고 말았다. 內科가 忌避科로 轉落하였다는 안타까운 消息이다. 驚愕을 禁치 못한다. 開業時 收入이 좋고 施術이 容易한 皮膚科와 成形外科등에 志願者가 몰리고 있다고 하니 社會的으로도 深히 쇼킹(shocking)한 큰 問題가 아닐 수 없다. 醫學은 어느 科目을 莫論하고 重要하지 않는 科目이 없다. 그래서 本人은 窮極的으로 醫學徒는 醫師가되기 爲하여는 年限을 늘려서라도 모든 科目을 高度의 分科專門醫 水準으로 基礎醫學(實習)과 臨床醫學(修鍊)을 履修하도록 하는 萬能 專門醫師教育을 主張한다. 現實的으로는 家庭醫學科를 大幅 改善改革하는 方法을 原則으로 하는 大改革이 切實하다고 生覺한다.

지금 우리나라 醫療界의 醫療一元化革命을 爲하여 後學들의 參與와 정부의 覺醒이 切迫하다. 特別히 後學들의 奮發과 幸運을 비는 마음 深히懇切하다.

1. - '醫史學 工夫.? ---->: 現代醫學의 完全한 理解와 匡定醫道에 있다

2. 醫史學은 漢文을 使用한다

3. 醫者治者: 醫師는 나라를 다스리는 原理이다

* 本學 診斷檢査醫學(臨床病理學敎室) 山圃
(2015. 4. 11 本 大學 告別終講苦悶을 吐露하면서)



살며 생각하며

이음 초대편집장 김 아 람

역사와 전통의 국립 의과대학,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이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체제가 바뀐 그래서 의전원 1기가 입학 것이 2006년이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능을 통해 입학한 신입생들과는 사뭇 분위기가 달랐던 우리 동기들. 나 역시 군복무 까지 마친 후 입학해 스물여덟 이었는데 내 나이가 남자 평균 연령이었고 여러 형님, 누나들에게 귀여움(?)을 받으며 학교를 다녔으니 학교나 선배들은 의전원 신입생이 참 낯설기는 했을 것 같다. 매주 시험을 치러야하는 1,2학년 시절은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 다만 시험 끝나고 동기들과 몰려가 먹던 학교 옆 떡볶이 집과 아련한 기억의 단편만이 머리를 스친다.

웹진 '이음'의 첫 탄생은 당시 한참 유행이었던 '싸이월드' 상에서 학교 구성원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것이었다. 첫 의전원 학생회장으로 권영기 형이 당선이 되었고,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부회장이었던 나와 김언혜가 편집장을 맡아 웹진 창설을 준비했다. '이음'의 이름은 말 그대로 서로를 이어주자는 의미에서 지어졌다. 동기들을 이어주고, 학년 별로 선, 후배를 이어주고 나아가 졸업생과 재학생을 이어주는 '이음' !!

웹진 창설을 준비하면서 또 우리 손에 잡힌 것이 '행운'지였다. 행운지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의 역사와 함께 내려오는 학생회지로 그 명맥이 그야말로 간신히 이어져오고 있는 실정이였다. 매년 출간되어야할 행운지는 편집부의 명맥이 끊겨 몇 년째 나오지 못하고 있었고 이를 '이음'이 받아 그 명맥을 이어가게 되었다.

웹진 창설을 위해 우리 동기들로 구성된 편집부가 구성이 되었고, 후배들을 대상으로 기자 선발을 시작해 편집부는 그 새로운 첫 발을 디디게 되었다. 의전원 1기로 입학한 우리 동기들은 1기라는 축복과 동시에 책임과 의무라는 부담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고전분투 속에 우리는 졸업을 했고, 그 속에서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며 우리의 젊은 날을 보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뒤돌아 생각나는 건 동인동 캠퍼스의 따뜻한 햇살과 붉은 벽돌 건물이 주는 안정감이다. 벌써 졸업하고 멀리 떠나온 시절이 5년이 넘어 우리 동기들은 대부분 전문의가 되었다. 철없던 우리가 아빠, 엄마가 되어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매일 얼굴을 보고 웃고 떠들던 우리지만 연락 한 번 하기가 쉽지 않은 바쁜 30대 후반을 보내고 있을 동기들이 그리고 동인동 캠퍼스가 생각난다. 병원 안에서 길을 못 찾는 PK였던 우리가 이젠 전문의로 진료,

수술, 연구에 매달려 앞을 향해 달리고 있고 후배들이 그 뒤를 따라올 생각을 하며 게을러지려 하는 나를 다시 채찍질한다.

편집장으로 일하면서 몇 십년 전의 행운지를 읽으며 느꼈던 선배들의 고결한 의사로서의 사명감, 경북의대인으로서의 자부심을 후배들도 가졌으면 하고, 나 역시 그런 선배가 되기 위해 오늘도 수술실, 연구실, 진료실에서 나를 다독여본다.



김아람
경북대학교 의전원 1회 입학,
2009년 학생회 수석 부대표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의전원 78회 졸.
서울아산병원 비뇨기과 수련.
현)서울아산병원 비뇨기과 전임의,
박사과정

'대구광역시 의사회' 라는 이름

안행수필 송 광 익(51회)

무엇인가를 새로이 시작할 때, 혹은 스스로가 딛고 선 곳을 가늠해야할 때는 저는 곧잘 '그 무엇' 이나 '그 곳'의 이름을 따져 보곤 합니다. 참으로 많은 경우에 저는 그러한 뜻풀이에서 제가 가야할 목적지라든지, 혹은 애초에 가고자 하는 길을 얼마나 올곧게 가고 있는 지를 깨우친 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런 버릇은 제가 대학 새내기였던 시절의 어느 풍경에 대한 기억에서 비롯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치 어제의 일인 양 생생하게 떠오르는 것을 보면, 이제 막 대학에 대한 꿈과 희망으로 설레던 철부지에게는 상당한 충격적인 느낌이었던 모양입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도 끝난 어느 늦은 봄날, 과 선배들이 신입생들을 죄다 모아 두고서 저희들이 이미 달고 있던 문리대 배지(당시 의예과는 문리대 소속이었습니다.)와는 또 다른 배지를 나누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중앙에 해골이 놓이고 '의예과'라는 글씨가 새겨진 하얀 배지였습니다. 설명을 덧붙이기를, '우리들은 00 대학 소속이기 전에 유구한 역사와 빛나는 전통을 지닌 00 의학전문학교의 후배들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청년 중에서 운 좋게도 대학생이 되었고, 그 중 00 대학교의 문리대 중에서 의예과에 소속되었구나 - 라는 나의 참으로 소박한 생각의 층계가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하얀색의 배지를 다노라고 떼어내었던 문리대 배지, 얼마 달지도 않아서 아직도 반짝이던 푸른색의 새 배지를 자꾸만 뒤돌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사물이나 성질들을 구분 짓기 위하여 이름을 붙이지만, 거꾸로 그 이름으로 하여 어떠한 사물이나 성질로 길들여지기도 한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우쳐 봅니다. 그러한 때늦은 깨우침으로 다시금 '대구광역시 의사회' 라는 이름을 새삼스럽게 들여다봅니다. 당연히 당장에는 '대한민국의 의사들 중에서 대구광역시에 소속된 의사들의 모임' 이라는 것입니다. 의사로서의 마땅한 의무를 다하고 정당한 권리를 지켜가기 위한 '의사회' 중에서 '대구'에 터를 잡은 이들을 일컫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또 다른 쪽에서 챙겨보면, '대구광역시' 시민 중에서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이들의 모임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구' 라는 마을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시민 중에서 '의사'를 직업으로 가진 이들의 모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지럽고 위급한 때의 한가로운 말장난이라고 너무 나무라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길은

점점 험해지고 날은 이미 어두워 우리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혹은 어디쯤 딛고 서 있는지조차 가늠기 힘에 겨운 날에 띄워본 한 조각의 푸념일 따름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씌워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아 주는 것이다’라는 신파조 사랑가의 한 대목을 올려 드립니다. 자기의 아픔 위에 의료라는 우산을 씌워주는 ‘의사’보다, 자기와 아픔을 함께 하는 ‘이웃’을 바라는 이 시대의 사랑법을 어찌 하오리까? ‘대구광역시 의사회’ 여러분!

(대구의사회보 2000년 4월 30일자 청진기)

30대가 말하는 인생에 대한 소고(小考)

익 명

**학생보다는 ‘회사원’ 이, 젊은이보다는
‘아저씨’ 가 어울리는 한 30대가 여기에 있다.**

대학에 갓 입학하면서 10대라는 꼬리표를 떼고 20대가 되었을 때, 나는 이 시대의 진정한 청년이 되었다고 생각했고 마치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도 되는 양 살았던 때가 있었다. 서른이라는 나이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고 그것은 곧, 더 이상 젊은이라는 단어가 허락되지 않는 나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지금, 난 그 30대가 되어서 이곳에 있다. 무려 학생이라는 이름으로. 그저 유행이 뒤쳐지고, 담배냄새나 풍길 것 같은 이 30대 아저씨가 아직은 할 일이 너무나 많은 우리의 젊고 파릇파릇한 예과 후배들, 본과 동생들에게, 밥을 그저 몇 숟가락 더 먹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생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보려고 한다. 나름 심심치 않은 인생을 살아온 한 30대가 지난 20대를 돌아보며 끄적거리는 본 글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1. “한번뿐인 인생,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저 한마디는 의학전문대학원에 들어오기 전, 군대와 휴학, 초과학기 등 7년간의 학부생활을 거치는 동안 내 인생의 모토(motto)였다. 나도 여느 모범적인 고등학생처럼 대학 입학 전까지는 공부밖에 몰랐다. 단, 대학만 들어가면 하고 싶은 것 다 해보겠다는 무시무시한 생각이 마음 한 켠에 자리잡고 있긴 했다. 역시나, 대학 들어가서는 어마어마하게 놀았다. 고등학생 때까지는 큰일이라도 나는 듯 입에도 대지 않던 술을 밤새 실컷 마시고, 영화의 주인공마냥 짝사랑도 해보고, 그 어렵다는 공대 CC도 해봤으며, 오토바이를 타고 폭주족처럼 도로를 누비기도 했다. 그렇게 1년을 한 맷힌 사람처럼 놀아버리니 나중엔 공부가 하고 싶어질 정도였다. 놀고는 싶었지만 그래도 양심은 있었는지 부모님께 손을 벌리고 싶진 않았다. 그래서 학부 4년 내내 알바를 뛰었다. 돈도 필요했지만 알바 자체도 내 인생의 경험이라고 생각해서인지 순간순간이 즐거웠다. 군 입대를 앞두고는 한 학기 동안 휴학을 했다. 남들 다 만류하는 휴학을 굳이 고집했던 이유는, 자전거여행과 자원봉사, 영어공부가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학기 동안 하고 싶은 일을 실컷 하며 지낼 수 있었다. 당시의 한 학기 휴학은 내 인생에서 잠깐의 숨 고르기일 뿐이었고 결코 아깝지 않은 시간이었다. 의대/의전원 특성상 자의에 의한 휴학이 쉽지 않고, 본과

에 들어간 이후에는 특히나 내 시간을 갖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꼭 휴학이 아니더라도 인생에서의 침표를 찍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보기를 추천한다. 남자들에게는 공중보건의라는 꿈같은 3년이 있긴 하지만 말이다. 여하튼, 내가 이곳에 남들보다 수년을 늦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후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동안 경험해 온 이 세상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이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사실 앞에서 말한 대학시절의 경험은 보통의 대학생이라면 당연히 한번쯤 해보았을 일들이다. 단지, 의예과로 들어와 이 분야에서 끊임없이 달려야 하는 후배들이, 또는 의전원까지 스트레이트로 숨가쁘게 달려온 나의 동료들이, 저 넓은 바깥 세상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지나가게 될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을 뿐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넓고 할 수 있는 일들도 너무나 많다.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결코 길지 않다. 한번뿐인 인생 그냥 지나치기에는 억울하지 않은가?

2. 때로는 사서 하는 고생도 값지다

시급 2만원의 과외가 있다. 그리고 시급 5천원의 신문배달이 있다. 둘 다 가능하다면 여러분의 선택은? 난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번쯤은’ 후자를 골라보라고 하고 싶다. 우리 손에 들어오는 돈에는 분명 1만 5천원의 차이가 있지만, 신문배달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인생경험’이라는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대학생 시절, 부모님께 용돈 받는 것이 싫어서 4년 내내 알바를 하며 살았다. 근로장학생부터 시작해서 고깃집 알바, 신문배달, 일용직 막노동, 콜센터 상담원 등등 별의 별 일들을 다해봤다.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라는 책을 쓴 장승수씨가 마치 롤모델이라도 되는 것처럼.(장승수씨를 모른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이 젊다는 뜻이다.) 짧은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돈을 벌고 싶다면 당연히 과외만한 것이 없겠지만, 난 그저 궁금했다. 저 일은 어떤 느낌일까? 저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여러분은 앞으로 수십년이라는 시간 동안 ‘의사’라는 타이틀을 걸고 살아가게 된다. 어찌 보면 우리와 상관없어 보이는 저 직업들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 뿐이다. 우리의 능력에서 벌 수 있는 것보다 금전적 보상은 적겠지만, 힘들게 번 만큼 그 보상을 손에 쥐었을 때 느껴지는 보람 또한 클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내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참 다양한 일들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될 수 있다. 내가 경험했던 저 직업들은 분명 우리가 사는 세상의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난 이 경험을 통해 내가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살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다.

3. 스스로에게 도전을 해보자

내 자신에게 도전을 해 본 적이 있었나? 학부 3학년 때, 군입대를 몇 개월 앞두고 인생이 조금은 지루해질 무렵, 문득 저런 궁금증이 들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 무작정 자전거를 사서 서울에서 ‘가장 멀다’고 생각되는 부산으로 향했다. 인생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

간을 갖고 싶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하루 종일 패달만 밟다 보니 그럴 여유 따위는 없었다. 5일 간의 우여곡절 끝에 부산에 도착했고, 해답은 자연스럽게 다가왔다. 도전과 성취라는 이름으로, 20대에서 가장 추천하고 싶은 활동이 바로 자전거여행이다. 긴 시간도 필요 없고, 길어야 1주일이라는 시간에 자전거만 한 대 있으면 된다. 하지만 그 투자에 비해 돌아오는 건 굉장하다. 먼저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 자전거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한동안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뿐만 아니라 술 한잔에 곁들일 수 있는 추억과 무용담을 얻을 수 있고, 친구들과 함께 한다면 정말 평생의 친구 또한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0대가 아니면 도전하기 어렵다. 정말이다. 굳이 자전거여행이 아니어도 좋다. 국토대장정이든 다이아트든 스스로에게 도전함으로써 한번쯤 자신의 한계를 무너뜨려 보았으면 좋겠다.

4.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말자

의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 중 하나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학 동기들과 6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교실에서 함께 수업을 듣고, 그나마 동아리 활동 조차도 의대/의전원에 국한될 수 밖에 없다. 의학공부가 워낙 다른 전공과 달리 독립적인 커리큘럼을 갖는 탓도 있겠지만 매번 아쉬움이 드는 건 사실이다. 대학생활에서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부시절 중앙동아리가 아닌 연합동아리 활동을 하며, 수많은 학교의 여러 전공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내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 배우는 재미는 물론이고, 그들을 만난 지 10년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도 그들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약하며 소중한 인적 자산이 되었다. 휴학 중 봉사활동을 하며 만난 친구들, 기업체 인턴ships을 하며 만난 친구들, 군대에서 만난 친구들. 그들 중에서 의학을 공부하거나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은 손에 꼽지만, 그만큼 그들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힐 수 있었고 나와는 다른 배경을 가진 이들을 이해하는 법을 배웠다. 아웃사이더가 되어서도 안되겠지만 바깥을 볼 줄 모르는 인사이더는 되지 말자.

지난 내 인생을 돌아보면 아쉬움과 실수투성이지만 적어도 후회는 없었다. 여러분도 그렇게 후회 없는 20대를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당시에 내가 놓쳤던 것들을 여러분은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여러분도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두서없이 글을 적어보았다. 나도 인생을 논하기에는 너무나 어린 30대 초반의 나이지만 인생의 선배보다는 형, 오빠의 마음으로 술자리에서 던지는 인생에 대한 소회 정도로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몇 년을 지내면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다. 이 치열한 의학공부의 길에서 여러분만의 일상의 행복, 소소한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언니 보고 싶다. 지금 뭐하고 있겠노.

- 꽃구경? 그리 꽃 좋아하니 꽃구경 하고 있지 않겠나.

TV 속으로 어두컴컴한 방이 보였다. 언니는 그 안에 있었다. 불이 붙었다. 분명 뜨거운 불일 텐데 너무 차갑고 추워 보여 심장이 덜덜 떨려왔다. 무서울 것 같았다. 너무 무서울 것 같았다. 저렇게 혼자 두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냥 여기서 무능하게 눈물만 똑똑 흘리고 있을 수 밖에 없단 게 서러웠다. 도저히 계속 그 화면을 바라볼 수가 없어 밖으로 나왔다. 저 차가운 곳에 혼자 두고 와버렸다는 것이 너무 속상했다. 너무 미안해서 사과하다 또 눈물이 났다. 그래, 그 때도 그랬었다. 언니가 휴학을 하고 서울로 올라가던 그 때. 울지 말아야지 몇 번을 다짐하고도 언니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이 나서 여보세요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던 나를 언니가 달래야 했던 그 때.

- 너희들은 전화해서 한 번 울지만 애는 너네 전화가 올 때마다 울어……그러니까 울지 마라.

주변을 둘러보니 우리는 다 울고 있었다. 언니도 울고 있을 것 같아 미안해서 또 눈물이 고였다. 울어서 미안하다며 울고 있는 내가 너무 한심했다.

날씨가 추웠다. 햇빛이 충분히 따사롭지 못했다. 바람은 또 너무 매서웠다. 안쓰러울 정도로 흰 꽃을 내려두고 절을 하고 돌아내려오는데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었다. 아직 너무 어려 준 비도 안 되었을 텐데 다들 너무 우르르 떠나는 것 같아 걱정이 되었다. 따뜻한 날에 떠났음 좋았을 걸, 예쁜 꽃이 피는 날에 갔으면 좋았을 걸, 이것도 저것도 다 안타까웠다. 언니를 배웅하는 버스 안에서, 가족 분들이 따뜻한 떡을 나눠주셨다. 진이가 마지막으로 주는 건데 많이 먹어라, 하시는 말에 얼른 한 조각 한 조각 꼭꼭 씹어 먹었다. 떡이 차가워지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았다. 눈물에 콧물까지 같이 먹은 탓에 무슨 맛인지도 모르게 그냥 우물우물 넘겼다. 떡은 아직도 따뜻한 것이 서러워서, 떡 하나 제대로 못 먹는 바보 같은 나에게는 화가 나서 또 꾸역꾸역 울었다.

실감이라는 건 참 강압적인 단어였다. '실감하다'의 반대가 '꿈꾸다'라면 나는 꿈꾸듯이 살고

싶었다. 언니는 칠곡 병원에 있을 것 같았다. 아니, 서울의 본가에 있을 것 같았다. 뭐해? 라고 보내두면 언제든 시간이 날 때, 예쁜 꽃이 핀 길을 걷다 쉴 때 보고는 답장을 해 줄 것만 같아 미련하게 전화기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왜 그래서는 안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언니가 더해진 ‘꿈’을 ‘실감나게’ 살다 보면 슬프지도 힘들지도 않았다. 그러다 시작한 내 PK 생활의 첫 주는 칠곡에서였다. 낮선 병원 환경에 정신없이 지내다 처음 PK휴게실을 찾아 들어가 숨을 돌리고 다시 나오는 주변이 익숙했다. PK 휴게실은 처음 와 보는데, 라며 두리번거리다 입원실 문 앞에 끼여 있는 종이를 발견했다. ‘대장항문외과’. 내가 몇 번이고 왔던 그 곳이고 내 실감나는 꿈에선 아직 와서는 안 되는 곳이었다. 한참을 그 병실 앞에 서 있었나 보다. 간호사분이 누구 찾으시냐고 물어왔다. 아니라며 대답을 하려는데 숨이 막히고 목이 메여와 손만 내젓고는 화장실로 뛰어 들어갔다. 야속하게 빈 칸도 없었다. 눈가를 꺾꺾 눌러 눈물을 밀어 넣고 메시지를 보냈다.

- 언니야, 보고싶다.

1은 사라지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보낸 1이 사라진다는 것이 이렇게도 사치스러운 것이었다. 여기에 언니가 없었다.

강압적으로 현실로 내팽개쳐진 나의 기도가 시작되었다. ‘왜 그러셨냐’고 시작해서 ‘진짜 밉습니다, 아멘’ 으로 끝이 나는 기도는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모르는 나의 대나무 숲이었다. 밉다고 말하고 싶어서 시작하는 기도였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 분보다 더 미운 나에게 하는 말이었다. 바쁘단 핑계로 한번밖에 보러 가지 못한, 자주자주 안부 묻지 못하고 말 걸지 못한, 이제는 정말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할 때,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기가 두려워 보러 가지 못했던 내가 너무나도 미웠다. 부정, 그리고 부정을 부정당한 후 필연적으로 찾아온 분노. 분노는 끝이 없다.

소화기 내과를 시작한 나에게 분노의 대상은 ‘오만’이 되었다. 간암 수술이 잘 됐다 하니 술을 마시는 아저씨, 항암제가 잘 듣고 있다는데도 부작용에 투덜대는 아주머니, 수술만 하면 완치 될 거라 하니 뭘 이 나이에 더 살라고 하나며 수술 안받겠다고 마음에도 없는 소릴 하시는 할아버지. 누군가가 온 힘을 다해 싸워 얻어내려던 것에 저렇게 오만한 환자들이 너무 미웠다. 그러다가 또 ‘암입니다’ 라는 말에 추락하는 얼굴들을 보면 마음이 조여왔다.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라는 교수님의 말에 몇 번이고 눈물을 참아야 했다. 수요일 저녁, 내 케이스 환자분의 진단이 바뀌었다. 이전의 모든 증상은 암 전이에 의한 것이었다. 금요일에 있을 내 발표를 위해선 물어볼 말이 너무 많은데, 나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창 밖을 바라보는 환자분의 옆

모습마저 내게 힘이 겨웠다. 한참을 병실 앞을 서성이다 돌아왔다. 머리 끝까지 분노했다 또 바닥까지 내동댕이쳐지는 실감”씨는” 하루 하루.

비가 내린다. 꽃이라도 보고 걸으며 언니한테 말이라도 걸고 싶은데, 벚꽃 피자 비 내리고 꽃이 지니 날씨가 춥다. 바람은 또 매섭다. 햇빛은 여전히 따사롭지 못하다. 아직도 그 겨울 옷을 입고 다닌다. 어쩌면 올해는 봄이 오지 않으려나 보다.

금방 나아서 돌아올 건데 왜 우냐며 나를 달래던 언니야. 이젠 왜 이렇게 멀리 가버렸노.

어진이라는 언니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사랑하는 동기였고,
선배들에게 짝짝한 후배였으며,
후배들에게 자상한 선배였습니다.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 기억
'이음' 한 칸에 언니를 남겨봅니다.

서브인턴체험기 @ AMC

본과 3학년 강 정 우

한 학년이 끝나갈 무렵, 문득 이번 방학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고민에 잠기게 되었다. 가만 보면 평소에는 무념무상으로 지내다가 꼭 시험 전날에 이런 쓸데없는 고민에 빠지곤 한다. 아무튼, 여행을 갈까 공부를 해볼까 아니면 침대와 물아일체되어 동면에 빠져볼까 하는 생각 끝에 서브인턴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여기저기 뒤져보았으나 웬만한 병원은 일찌감치 마감했고, 그나마 마감 직전이던 서울아산병원(AMC; Asan Medical Center)에 지원을 해보기로 했다. 그래서 약 2주 간 서울아산병원을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1. AMC의 첫 인상

서울아산병원은 2600여 병상을 갖춘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병원이다. 그 규모답게 지하에는 푸드코트를 비롯해서 백화점, 서점, 미용실 등을 비롯하여 무려 3개의 직원식당이 존재한다. 오리엔테이션이 있는 강당으로 갔더니 병원소개 책자와 서브인턴 명단, 신분증 등을 주었는데, 서브인턴의 약 20~30% 정도가 우리 학교 소속이었다. 여타 의과대학/의전원과 달리 우리 학교에서 서브인턴 4주가 필수 졸업요건이 되면서 이왕이면 그 중 2주는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을 경험하고자 아산, 삼성, 세브란스 등으로 대거 몰리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따라서, 3학년 겨울방학 때 서브인턴을 하면 동기들과 함께 외롭지 않은 2주를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병원소개와 함께 인턴/레지던트 지원에 대한 공식적/비공식적 정보를 담은 소개를 마치고 각자 가운을 지급받은 후 소속된 과로 배정되었다.

2. AMC에서의 2주

1) 하루 일과

2주 간 본인이 소속된 신경과에서 서브인턴이 하는 일은 크게 컨퍼런스 참석, 회진과 외래 참관이었다. 외래 참관이 없을 때는 사실상 하는 일이 없기에 비는 시간엔 의학도서관에서 각자 공부(?)를 하거나 Case 보고서 작성, 숙면 등을 취했다. 같은 과를 돌았던 타교의 모 여학생은 자체 OFF를 비롯하여 굉장히 자유로운 2주를 보냈는데, 그녀는 “서울에 있는 친구들과 놀기에는 숙식을 모두 제공하는 서브인턴 프로그램만한 것이 없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과마다 일과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PK실습도 그렇듯이 서브인턴도 결국은 본인 의지에 달린 것 같다.

7:30~ : 신환보고

하루 일정은 오전 7:30에 신환보고에 참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던트 쌤들이 PPT를 띄워놓고 발표할 때 서브인턴의 역할은 있는 듯 없는 듯 앉아서 경청하는 것이다. 서브인턴에게 따로 신환보고를 시키거나 질문을 한다거나 하지는 않으셨다.

8:00~/17:00~ : 오전/오후 회진

많은 교수님들이 회진을 들면서 환자에 대해 일일이 서브인턴에게 설명을 해주려고 노력하셨다. 한 교수님은 매 병실을 돌고 날 때마다 복도에 다 함께 모여 펠로우쌤, 던트쌤, 서브인턴 할 것 이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시며 의학적 호기심을 유발하셨는데 종종 숙제를 내주기도 하셨다. 오후 회진 때는 그 숙제에 대한 답을 서브인턴에게 설명해보라는, 우리에게 다소 민망한 상황도 있었지만 거의 1시간씩 걸렸던 그 교수님의 회진은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도움되는 시간이었다. 분위기는 전혀 무겁지 않았고 사실 서브인턴에게 보여주신 저러한 관심에 꽤 감동을 받았다.

9:00~/13:00~ : 외래

외래는 서브인턴끼리 나눠서 2번 정도씩 참관하였다. 정말 바쁜 가운데서도 환자들 올 때마다 서브인턴에게 환자의 증상과 CT/MRI 등 영상학적 해석, 신경학적 검사에 대해 친절히 설명해주셨다. 우리가 타고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알려주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에 감사했다. 나중에 던트 쌤들과 따로 식사할 자리가 있었는데, 본인들은 교수님 외래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외래에서의 교수님 모습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부러움 섞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셨던 게 기억에 남는다.

2) 간담회

간담회는 2주차 화요일 저녁 병원 내 스카이라운지에서 이루어졌다. 각 과의 교수님이나 던트 쌤을 모시고 꽤 만족스러울 만한 음식과 무한맥주로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였다. 과거에는 이런 간담회가 없는 대신에 교통비를 주었다고 듣기도 했지만, 특별히 아쉬울 게 없을 정도로 풍족한 먹거리로 굉장히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3. 서브인턴으로서의 혜택은?

1) 숙박과 식사

서브인턴에게는 실습기간 동안 숙박과 삼시세끼 식사를 대접한다. 숙박은 병원 내 기숙사 또는 건국대 연수원을 이용할 수 있으나 선택은 어렵고 병원 측에서 배정해준다. 식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두 제공이 되고, 우리 신경과 서브인턴들은 실습 내내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겨먹었다. 서울에서 서브인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상당수의 병원들은 보통 학생들에게 숙식을 제공한다.

2) CPR 교육

CPR 교육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실습기간 중 하루 동안 약 2시간에 걸쳐 실습을 진행한다. 수료

자에게는 CPR 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주지만 서울아산병원에서만 유효하다.

3) 각종 시설이용

먼저 PK 라운지가 제공된다. 하지만 굉장히 비좁아서 100명이 넘는 서브인턴을 수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담당자 분 말씀으로는, 리모델링 예정이라 다음 서브인턴부터는 매우 안락하게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꼭 '홍보'해달라고 하셨다. 대신 의학도서관 이용이 가능하다. EMR을 사용할 수 있는 수많은 PC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소파, 조용한 독서실 등 PK 라운지를 대체할만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잘만 활용하면 굉장히 편안한 2주를 보낼 수 있다. 휘트니스센터는 서브인턴 이용 불가하며, 주차장도 일일 1만원의 요금을 부과한다.

4. 다른 학교에서의 서브인턴 기회는?

우리 학교에서 주로 서브인턴을 가는 병원들의 2014년 모집계획은 아래와 같았다. 매년 크게 다르지 않으니 참고하면 도움이 될 듯 하다. 다만, 아래 병원 모두 일정이 겹치는 타 병원과 중복 지원 시 불합격시킨다는 조건을 달고 있으며, 실시간으로 과별 경쟁률을 공지해놓는 곳도 있으니 지원 시 참고하면 좋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원한 과가 경쟁률이 높아도 무작정 탈락시키기 보다는 미달되는 과에 넣어주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다.

[하계 서브인턴십]

병원	실습기간	대상	지원기간	제출서류	모집인원
서울아산병원	1차: 14.7.21~8.1(2주) 2차: 14.8.4~8.14(2주)	2~4학년	14.6.23~7.8	성적표(+석차)	1차:119명 2차:123명
세브란스병원	14.7.28~8.8(2주)	2~4학년	14.6.27~7.13	성적표(+석차)	101명
삼성서울병원	1차: 14.7.21~8.1(2주) 2차: 14.8.4~8.14(2주)	2~4학년	14.6.17~6.29	성적표(+석차)	1차:70명 2차:46명

[동계 서브인턴십]

병원	실습기간	대상	지원기간	제출서류	모집인원
서울아산병원	15.1.5~1.16(2주)	2~3학년	14.12.8~12.19	성적표(+석차)	141명
세브란스병원	15.1.5~1.16(2주)	1~3학년	14.12.3~12.15	성적표(+석차)	105명
삼성서울병원	15.1.5~1.16(2주)	1~3학년	14.12.1~12.14	성적표(+석차)	102명

* 덧1) 우리 학교에서는 서브인턴 4주 실습(경북대병원 2주 필수)이 필수인 만큼 서브인턴은 누구나 이수하게 되는 프로그램이지만, 3학년 PK 실습 전 미리 병원생활을 경험하고 싶거나 일찌감치 실습을 마치고 싶은 1,2학년 후배님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 덧2) 서브인턴 필수요건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설'이 있으나 정확한 정보는 아니기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인턴 X>의 일독을 권하함

본과 3학년 권혁주

들어가면서

여기 한 인턴이 있다. 그도 다른 인턴들과 같이 온종일 격무에 시달리고 간신히 오프를 받으면 집으로 돌아가 잠깐의 꿀 같은 휴식을 취한다. 보통의 다른 인턴들이라면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침대에 지친 몸을 누일 것이다. 그런데 그는 다른 인턴들과는 달리 녹음기를 켜고 자신의 일상을 말로 정리한다. 1960년대, 미국. 인턴 X는 그렇게 자신의 인턴생활을 기록했다. 일단 이 책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PK를 들고 있는 우리가 병원에서 마주치는 인턴 선생님들을 생각해보자. 그들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형, 누나였을 수도 있으며, 그냥 얼굴만 알고 지내던 선배였을 수도 있다. 난생처음 보는 이일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모든 인턴 선생님들에게는 다른 의사 선생님들과는 구별되는 그들만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피로감. 눈썹미가 있는 사람이라면 판때기를 들고 우물쭈물하는 모습에서 한눈에 PK를 구별해내듯, 피로에 찼던 모습에서 그들이 인턴임을 구별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인턴이 힘들고 고된 일임을 선배들에게서 듣고, 또 병원 속에서 그들의 모습을 봄으로써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왜 병원 인턴은 그렇게 힘들고 고된 것일까? 단순히 일이 많아서?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겠지만, 나는 그 이유를 의학교육 특유의 도제식 교육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턴과 도제식 의학교육

의학교육이 아직도 중세, 아니, 그 이전부터 내려오는 도제식 교육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단순히 그 방식이 효율적인 수련방식이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나는 그것이 인턴들이 교육받으며 일하는 영역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도공은 제자의 실패한 도자기를 가차 없이 깨어버리며 도자기 만드는 법을 가르칠 수 있지만, 병원에선 이런 식으로 인턴을 가르칠 수 없다. 결국, 환자의 생명과 복리를 지키면서 미숙한 인턴을 교육하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전공의와 지도의가 인턴 옆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관리하는 도제식 교육을 할 수밖에 없다. 인턴들의 고생은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된다. 인턴은 아직 미숙하기에 실수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실수를 통해서 배워나가야 하는 한 사람의 신참자이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실수가 허락되지 않는다. 그들 역시 의사이고, 그들의 실수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턴이 힘든 것은 그들이 미숙하며, 또 그와 동시에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인턴 수련의 이야기는 병원 밖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는다. 심지어 의학을 공부하는 의학도들도 인

턴과 그들의 수련에 대해서는 막연한 이미지와 귀동냥으로 들은 몇몇 가지 이야기 외에는 알지 못한다. 여기서 다시 신원미상의 의사 인턴 X가 나온다. 1965년, 그는 1년 동안 자신이 겪은 인턴 수련의 모든 내용을 숨김없이 낱낱이 담은 책을 펴냈고, 그 책은 미국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며 일약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과연 그 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책 속으로

1965년, 미국의 한 의사가 Doctor X라는 필명으로 발표했던 이 논픽션은 그가 인턴생활을 시작한 첫날부터 인턴을 마치는 마지막 날까지 그가 경험한 일들을 일기의 형식으로 정리하고 있다. 인턴 X는 그가 병원에서 생활하고 일하면서 경험한 온갖 사건들을 그때그때 녹음기에 녹음했고, 후에 이를 정리해서 책으로 발간했다. 그런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사실성이다. 저자에 따르면 그는 이 책을 쓰면서 자신의 이름과 몇몇 이름들을 제외한 모든 사건과 사고를 있는 그대로 적었다. 얼마나 사실적인지, 이 책은 의료계의 모습을 가감 없이 그대로 보여주면서 의료인들의 민얼굴을 그대로 드러내 버린다. 일견 내부 고발성 문건처럼 보일 정도다. 확실히, 의사의 실수로 다리를 절단하게 된 환자나, 환자들의 진통제를 몰래 빼들려 맞으며 마약중독에 빠진 간호사, 환자가 바뀌어 투약 된 약들,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에게 어떤 약을 얼마나 처방할지도 모르는 인턴이 한밤중 병원에 남은 몇 안 되는 의사 중 하나였다는 이야기들은 분명 의료계의 현실에 대한 폭로이자 고발이요, 비판이다. 한편 이 책은 인턴의 수련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하며 그들의 어깨 위에 얹어진 과중한 책임감과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한마디로 인턴은 어느 때 어느 곳에라도 있어야 하고 무슨 일이든 해야 했다. (……) 밤낮없이 제일 먼저 불러 나가 고역을 치러야 하고 특히 주말 당직에 걸리면 병원 안에서 단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었다. 의사라면 누구나 잘 아는 일이지만 밤이나 주말이면 어렵고 위급한 환자가 묘하게도 많이 나타나 죄 없는 인턴들이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만 했다.

인턴만큼 힘이 들고 많은 시간 노동을 하며 많은 책임을 짊어진 직업이 또 있을까? 언제나 발동이 걸려 있어야 하지만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때에 잠도 못 자면서 권위의 가면을 쓰고 뛰어야 했다. 머리가 아니라 피부와 발로 지식을 흡수해야 하고 인간에 대한 질병의 변덕과 잔인성, 경이로운 권모술수 등의 고통스런 교훈을 통해 직업의 앞날을 서계하고 거기에 자기 삶의 꿈을 가꿔야 하는 참혹한 아이러니. 겸손과 인내의 그리고 정열의

화신이 되어야 하는 고독한 직업윤리……” (p.26)

그러나 이 책은 단순히 일반인들에게 의료사회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책도, 그렇다고 인턴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지 호소하는 책도 아니다. 저자는 이 책의 저술 동기에 대해 인턴 생활을 기록한 이 기록에 “일생에 다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많으며 그냥 흘려 보내서는 안 될 내용이 허다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또, “의사에게는 인턴 시절만큼 중요한 시기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는 인턴 시절이라는 1년이 어떻게 의사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교훈이 되며, 평생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살아 있는 금지가 되는지 그 이유를 보여주고자 한다.

또한, 작가는 그동안 “대외비”로서 일반 대중에게 감추어져 왔던 의사들의 수련교육과정을 있는 그대로 밝혀내 그들에게 한 명의 의사가 탄생하기까지의 과정과 의술의 본질을 이해시키고, 의사의 인간적인 한계를 알려주고자 한다. 이것은 의사라는 집단의 민얼굴을 폭로하기 위함이 아니며, 병원에 들르게 될 대중들을 경악시키거나 공포에 몰아넣기 위함은 더더욱 아니다. 이 책의 서문에서 그는 자신의 진정한 바램은 “이 기록을 통해 일반인들이 이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직업에 대해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이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잠깐 저자의 말을 들어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사의 진단이 이러한 꾸준한 자기 연마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움 안에서 떡 받아먹듯 쉽게 얻어지는 것인 줄 잘못 알고 있다. 여기서 비롯된 오해와 분쟁이 곧잘 사회적인 큰 문제를 야기하게도 하고 때로는 의사 전체를 무더기로 시궁창에 처박는 모멸을 뒤집어씌우기도 한다. 의사가 권위를 앞세우던 시대는 분명 지났으나 의사의 인간적 한계를 이해하고 포용해야 할 문제는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다.”(p.224 - 225)

그리고 무엇보다 이 책은 읽는 재미가 있다. 여기에는 병원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사건의 이야기가 있다. 또, 하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헌신하며 최고·최선의 진료를 행해 나가는 의사들의 이야기도 있다. 가벼운 웃음을 선사하는 이야기도, 가슴이 메어지는 이야기도 있다. 환자에게 결국 죽음을 처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그린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정으로 환자를 위한 의료윤리는 무엇일까 고민하게 한다. 또, 자신의 미숙함에 때로는 절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점차 그 실력을 키워 한 사람의 의사가 되어가는 인턴의 이야기도 있다. 그 모든 이야기는 이 책을 읽는 이들에게 커다란 감동과 재미, 그리고 깊은 생각 거리를 안겨준다.

이 책을 권하며

우리는 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며, 장차 학교를 졸업하고 의료인이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의료사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으며, 그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을까? 나는 이 책을 의사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하는 학우들에게 권하고 싶다. 이 책의 이야기는 1960년대 미국의 한 병원을 배경으로 하지만, 의료와 수련과정의 본질적인 부분은 시대와 국경을 넘어 변치 않는 부분이 있기에 이 책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한국의 의학도들에게도 일독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바쁜 학교 생활이지만 잠시 짬을 내어 읽어보면 어떨까? 분명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한다.

덧붙여

이 책의 한국어판에는 저자 소개란에 “그는 아직도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수소문해도 그가 현재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아내지 못했다”고 쓰여있는데, 사실 이 책의 저자가 Dr. Alan E. Nourse라는 건 영미권에선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작중 그레이스톤 기념병원(Graystone Memorial Hospital)로 나오는 병원은 그가 수련했던 워싱턴 주 시애틀의 Virginia Mason Hospital이다. Dr. Nourse는 SF작가이자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했었으며 의업에 종사하면서도 또한 동시에 작가로서의 활동도 활발히 수행했는데, 그의 소설 작품들은 영미 SF계에서도 상당히 평가가 높다.

해부학 실습

본과 1학년 박 주 성

앞에 놓인 차가운 육체
날카로운 금속 소리 속에
자기 속을 내보인다

여행을 마친
고단하지만 행복함은
추구하던 여행자가
강을 건너기전에 내놓은
자신의 전부,

그 물리적이고도 한계적인
짐붓다리,
진리속에서 영원하다

봄

익 명

목련꽃 가지에서 모가지 떨어지면
그때가 봄이라던데,
내게선 무엇이 떨어져 나가야
봄이런가

가지 사이 움트고 찢어져 나온
벚나무의 단내나는 살이
옥같이 산산이 부서져 흩날리면
그때가 봄이라던데,
이 내 마음 가슴서 터져 나와야
그제야 내게도 봄이런가

겨우내 얼었던 강물이
쩍쩍 갈라지는 소리 내지르며
무너져 내리듯

내 마음 산산이 부서졌는데

봄은 아직도 오지 않는가
봄은 아직도 오지 않는가

쉽게 쓰여진 시

본과 3학년 권혁주

옛 시인은 수이 쓴 그 섯구가 그렇게도 부끄러웠다더라

분명 그이도
어느 저녁
손끝으로 물 흐르듯이 쏟아져 나온 섯구가
담날 아침 못 견디게 부끄러운 일이 있었나 보다

그 언어의 덩어리 위에 얹은 제 이름에
끝 모를 수치심을 느껴본 일 있었나 보다

지난 봄날
속살거리는 봄비 맞으며
제 흥에 못 이겨 흥얼댄
내뻗은 한숨보다 가볍던 그 말들에
얼굴은 삶은 문어인냥 시뻘게지고
이불이 터져라 발차기도 수차례

그이의 말처럼
시가 이렇게 쉽게 쓰이는 것은
참말로 참말로 부끄러운 일이다

그럼에도 내가 오늘도 이래 펜을 드는 건
분명 내 가슴 속엔 노래하고픈 작은 마음과
아직 못 다 이른 한 마디가 남아있기 때문이리라

오늘 적은 이 말도
내 서랍장 작은 노트 속에서
밖으로 나갈 날 있을런진 모르지만

봄되면 언 땅 틈 사이로 새싹이 움트듯
언젠간 노트 속 쌓인 섯구들 사이로
탐스럽고 자랑스런 열매 하나 나올게다

당신은 행복한가요?

본과 2학년 권영욱

재작년 이맘때만 해도 경북대학교 의전에 합격하기만 하면 행복할 것 같았고, 작년 이맘때에는 해부학만 잘 넘기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제 2층에서 수업을 듣고 있지만 크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보는 시험 때문에 금토일은 제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특히 기숙사는 시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말에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감기라도 걸리면 지옥입니다. 시험 전날 졸릴까 두려워 감기약도 못 먹고 책상에 앉아 있는 내 자신이 왜 그리 서럽던지... 3학년이 되면 행복할까요? 의사가 되기만 하면 큰 행복이 찾아올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의학공부를 하다보면 자꾸 내 몸에 적용을 해봅니다. 기생충학을 배울 때면 사랑하는 회, 육회 먹기를 한편 두려워하면서도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다' 다짐하고, 수면장애를 배울 때면 침대 위에서 공부하는 나를 돌아봅니다. 이번에 배운 정신의학은 적용할 부분이 특히 많았어요. 진단기준이 모호해 보이는 다양한 인격장애들과 ADHD, 조울증은 증상의 심각도에 차이가 있을 뿐 군데군데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신질환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연 나의 정신은 건강한가 물어보면 자신이 없습니다.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이 많은데 과연 정신이 건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비정상적인 상태를 진단, 치료하는 데에서 관점을 바꾸어 인간 최고의 상태에 대해 탐구해보겠다는 긍정심리학, 그 최신결과에 대해 읽어보았습니다. Shane J. Lopez(2009)가 쓴 4권에 걸친 <인간의 최고 상태에 대한 탐구>에서 읽은 연구에 따르면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3가지입니다. 유전이 50%로 가장 크고, 삶의 상황은 10%,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의지적 활동이 40%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유전이나 삶의 상황은 우리가 바꾸기 어렵지만 의지적 활동은 일상 속에서의 작은 관심을 통해 비교적 손쉽게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행복을 잘 느끼게 태어났다고 하네요. 요즘 수업시간에도 가족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암도 가족력이 있고, 정신질환도 가족력을 따지고, 당뇨병은 type2가 가족력이 높았죠! 이미 다 정해진 것이라면 미래가 참 암울할 것 같지만, 의학을 공부하고 있으니 사전에 미리 알고 잘 대처하면 좋겠습니다. 편두통 환자의 '저질' 머리도 수개월동

안 약으로 체질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행복도 뭔가 방법이 있을 것만 같습니다. 불행한 사람은 아마도 뇌에서 세로토닌 분비량이 적은가 봅니다. 엔돌핀도 부족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자극의 크기나 빈도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성별, 인종, 교육수준, 건강, 임금, 외모, 거주지 등을 포함하는 삶의 상황은 의외로 비중이 1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사람의 적응력이 매우 높아서 삶의 상황에 쉽게 적응하기 때문이라는데, 따라서 기본적 욕구만 잘 충족된다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느끼는 행복은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현재 불행을 느끼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을 충분히 못자고, 매주 발표되는 성적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항상 긴장하고 있으니 우리가 지금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유전과 삶의 상황은 바꾸기 힘들지만 의지적 활동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의지를 가지고 약간의 관심을 기울이면 더 풍요롭고 다채로운 행복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감사에 대한 초기 연구 중 하나에서 참가자들에게 10주 동안 한 주에 한 번씩 고마운 일 5가지를 나열하도록 하였는데, 한 주 동안 있었던 힘들었던 일들을 기술한 집단과 한 주 동안 있었던 주요 사건들을 나열하도록 했던 집단에 비해 고마운 일 헤아리기에 참여한 참가자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당연한 결과인 것 같지만 지난 두 달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감염 진짜 토나오게 외울게 많았고, 정신이랑 내분비는 왜 수업시간이 이렇게 꼬였을까, 주말에 놀러가고 싶다, 왜 우리학년은 시험 전에는 날씨가 좋고 시험만 끝났다하면 비가 내릴까’ 이런 생각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한편, 우리는 부정적인 경험에 비해 긍정적인 삶의 경험에 쉽게 익숙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전에 큰 즐거움을 주었던 것에 점차 무감각해집니다. 해부학이 끝났을 때의 그 성취감과 행복감은 이제는 느껴지지도 않습니다만 그 때의 힘들었던 기억은 생생하게 남아있네요.

흥미롭게도 감사에 대한 후속 연구에서 일주일에 한 번 감사 일기를 쓴 집단은 행복이 증진되었지만, 일주일에 세 번 감사 일기를 쓴 집단은 행복이 증진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자주하면 지겨워서 오히려 행복하지 않은가 봅니다. 또 다른 연구 중에는 친절한 행동이 행복을 증진시킨다고 하는데 이 때 친절한 행동의 빈도는 의미가 없고, 다양한 행동으로 친절을 베푸는 것이 행복을 증진시켰다고 합니다. 금방 지루해져서 그런가 봅니다. 반복되는 행동은 별 소용이 없고, 다양한 자극에 행복이 증진된다는 이런 글을 읽다보면 인간은 큰 변화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작은 변화는 즐기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개그 프로그램을 보다보면 예상 가능한 개그보다는 예상 밖의 참신하면서도 엉뚱한 대처에 큰 즐거움을 느낍니다. 다양한 친절의 행동이 행복 증진

효과를 보이는 이유는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한편 상대방의 다양한 반응에서 재미를 느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돌이켜보면 작년에 동기들과 함께 했던 마니또 놀이가 떠오릅니다. 누군지 모르는 동기에게 받는 선물과 위로가 어려운 공부 중에 기쁨을 주지만, 어떤 선물, 어떤 간식거리를 살지 잠시 고민하는 과정, 몰래 선물을 챙겨주는 과정, 선물을 받은 상대방의 반응, 참신하고 재미있는 편지를 써주는 행위 자체가 자기 자신에게도 행복을 가져다줬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등교하던 시간보다 좀 더 일찍 준비해서 길을 나서 봅니다.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 평소보다 발걸음이 느려 집니다. 길만 바라보던 고개를 자연스럽게 들어 올려 주위 풍경을 둘러봅니다. 못 보던 나무, 못 보던 가게, 하늘의 구름이 눈에 담깁니다. 무엇을 살까 잠시 고민하다가 고소한 냄새에 이끌려 빵집에 들어갑니다. 빵 종류가 참 다양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며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먼저 골라봅니다. 동기한테 줄 빵도 하나 골라서 밖으로 나옵니다. 저 멀리 횡단보도 신호가 바뀐 게 보이지만 오늘은 뛰지 않아도 지각하지 않습니다. 동기 자리에 몰래 빵을 올려두고 동기가 기뻐할 모습을 상상해봅니다.

한줄요약 : “올해는 마니또 안하나요?”

산을 오르자고 했다

본과 3학년 김 정 철

TALK

산 타자. 그래. 어디. 앞산. 콜.

갑자기 꺼낸 친구 말에 타자치는 내 손도 바뻐다. 숨 막히게 바쁘던 일과도 끝났고 당분간은 바빠질 스के줄도 없었다. 특 보내온 그 문자에 바로 반응한건 언제라도 뭔가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내 피곤한 성격이 이번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동행할 친구는 나까지 3명. 높은 산도 아니고 등산이라기 보단 마실에 가깝다는 친구 말에 험령한 추리닝과 2년째 함께해 내 발에 특화된-냄새까지 특화될 필요는 없었음에도- 운동화를 신고 늦여름 저녁나절 우리 세 명은 모였다.

매일 먼 거리에서 보기만 했던 앞산을 가는 것은 뭔가 새로운 모험 같았다. 휘양 찬란한 동성로의 불빛들로부터 탈출해 푸른빛이 어수룩이 물든 하늘이 감싸고 있는 앞산입구에 다다르니 그리 멀지 않은 곳임에도 새롭고 묘한 느낌이 든다. 도착해 보니 산은 꽤 높아보였다. 저녁 등산이 가능한가 싶었는데도 가능하단다. 하긴 그랬으니 왔겠지. 서울촌놈 티 너무 났나. 대구라는 곳에 와서 2년간 내가 가본 곳이 뇌리에 스쳤다. 동성로. 수성못, 그리고 학교..... 내 인생을 쪼개면 어렸을 때 살았던 나날까지 2할을 산 곳에 이렇게 무심할 수 있나. 발품팔기라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던 나이다. 서울의 도심 곳곳이 머릿속에 있지만 정작 내가 원해서 다시 온 대구에 그런 기억이 아직 없다니. 이런 나의 생각을 읽었는지 좋은 구경 시켜주겠다는 친구의 말이 마음에 들었다. 저녁임에도 선풍 캡을 챙겨 쓰신 분들의 하산모습은 새벽이란 시간과의 묘한 오버랩을 가능케 했다. 웃음 짓는 것도 잠시. 처음부터 길이 꽤 험했다. 신발을 잘못신고 온 것 같은 기분이 발바닥에서 전해지는 충격과 함께 온몸으로 퍼졌다. 등산부 아니랄까봐 잘도 오르내리는 친구 녀석의 재바른 발걸음과 비교되는 나. 같이 온 다른 친구 녀석은 이미 자신의 위치를 가장 뒤쪽으로 정해버렸다. 어수룩한 저녁 빛의 기묘한 등산길에서 우리 셋은 그렇게 등산을 시작했다.

저녁의 산은 내가 생각하던 어둡고 음침한 곳은 아니었다. 돌길이라 험하다고 생각했던 처음과 달리 습기를 어느 정도 머금은 흙바닥이 펼쳐지며 딛기 부드럽고 촉감이 좋았다. 어둑어둑한 저녁의 푸른빛도 산길을 아직은 잘 비추고 있었다. 저녁나절에 울리는 새소리도, 산에서 느끼는 청량한 공기도 도시 한가운데에서 보낸 지난 일과들에선 느낄 수 없었던 것들이기에 모든 것이 마음에 들었다. 간만에 느끼는 고요함과 산뜻한 주위환경에 많은 공부와 일들에 복잡했던 나의 머리와 마음이 차분하고 정리되어 갔다. 어찌 보면 간단한 것들을 왜 복잡하게만 접근하려 했을

까 하는, 있던 곳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해 보리라는 새로운 다짐들. 산의 공기만 큼이나 맑아진 마음가짐과 함께 느껴지는 평정심은 산을 오를 때 누릴 수 있는 특권임에 틀림 없다. 점점 가팔라지는 산길에 조금씩 숨을 가쁘게 쉬기 시작했지만, 중간 중간 올라가면서 나 눈 시답지 않은 친구들과의 대화는 친구와 같이 오르는 산행의 또 다른 즐거움이기엔 멈출 수 없었다. 카페나 음식점이 아닌 등산을 하면서 나누는 대화는 정상에서 느낄 뿌듯함과 기쁨을 즐기기 위한 에피타이저 마냥 즐겁고 재밌다. 평소에 나누던 이야기라도 더 많은 웃음과 공감을 표현하고 느끼게 되는 이러한 경험은 단지 장소가 산이라는 것, 그뿐임에도 혹은 그렇기에 가능한 기쁨이었다.

오른 지 한 시간쯤 되었을 때 하늘은 어느덧 밤의 그것이었고 어두운 숲 넘어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원래 영화 예고편이나 뮤직비디오의 티저 영상과 같이 궁금증을 자아내는 영상을 보면 더 보고 싶어지기 마련이다. 점점 무거워 지는 발걸음을 어떻게 하나 했던 생각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발걸음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셋 다 친구긴 친구인지 마음이 통해서는 여섯 개의 다리가 모두 바쁘게 움직였다.

마침내 암흑 같은 숲을 지나 하늘과 맞닿은 산 정상 전망대에 올랐다. 떠나올 때 어수룩하던 하늘은 이제 완전히 늦여름 밤하늘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도심에서는 보지 못했던 별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허나 별구경보다도 내가 감탄한 것은 대구라는 도시 그곳의 밤의 얼굴이었다. 내가 알던 대구의 밤이 이렇단 말인가. 탁 트인 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대구의 모습은 기쁘고 슬픈 일들, 가끔은 우울하거나 답답했던 날들, 중압감에 두려웠던 시간을 보낸 지난 2년간의 대구라고 하기엔 정말 아름다웠다. 마치 다른 곳을 살았던 것 같은 기분이 들다가도 랜드마크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같이 온 친구들과 숨은 그림이라도 찾듯이 재밌어했다. 낮 놓고 보고 있으면 몇 시간이고 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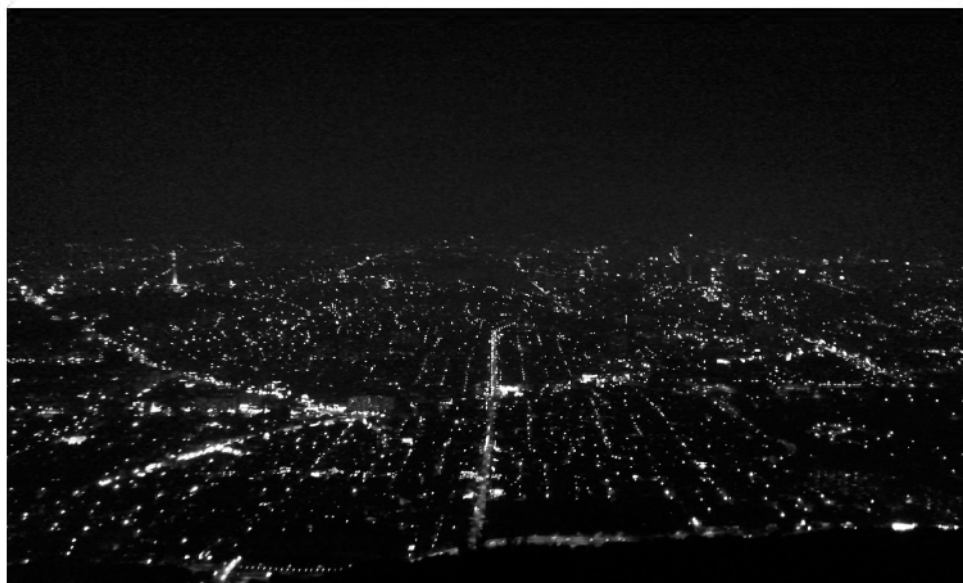
그러다 문득 처음 대구에 왔을 때가 생각났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나의 길일 것이라는, 근거는 부족하지만 다른 선택을 더 이상 할 수 없었던 나의 모습. 힘들었던 공부라는 벽과 그때 느낀 나의 한계, 아쉬움. 힘들 때 항상 힘이 되어준 친구들. 그리고 그들과의 즐거웠던 기억. 작지만 아름답게 빛나는 도시의 불빛들이 다듬어지지 않은 기억들을 하나씩 떠오르게 했다. 그때 마다 느낀 감정들은 어찌면 이렇게 작게 보이는 모든 것들에서 그보다도 더 작았을 나라는 존재의 아주 짧은 느낌인 것을 언젠는 너무 크게, 언젠는 너무 무겁게 받아들였던 내가 아니었나. 부끄러웠다. 크게 볼 줄 알아야 한다는 어른들의 말씀은 항상 겉으로만 받아드리는 척을 했지 나의 작은 그릇에는 담아보지 못했던 것 같다.

이 산행 한번이, 광경 하나가 준 가르침은 지금까지의 나를 반성케 하기 충분했고 다시금 어떻게 살아가보자는 생각을 하기에 모자라지 않았다. 좋은 것을 보여주겠다던 친구의 얼굴에도, 제일 뒤에서 따라오던 친구의 얼굴에도 그 광경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음에 틀림없는 표정이

보였다. 각자의 인생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이러한 일들로만 가득 찼으면 하는 소박한, 어쩌면 이루어질 수 없는 너무 큰 욕심 같은 것이 생긴다. 놀러 가면 의례 그렇듯 자기가 좋아하는 포즈와 각도로 수많은 사진을 찍은 후 우리는 발길을 돌렸다.

내려오는 동안 나눈 이야기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마 풍경이 멋있었다는 이야기거나 가파르니 조심하자는 등의 이야기였던 것 같다. 그곳에서 느낀 무엇인가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내려오느라 그랬을 것이리라. 짧지만 충분했던 일탈은 그렇게 끝났다. 돌아오는 길에 다시 본 대구의 모습은 다시 또 예전의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하나쯤 있다면 차창에 비치는 나의 눈이 좀 더 편안해 진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육체적 피곤함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보다는 나를 둘러싼 것들을 그 전보다는 조금이나마 더 넓게, 크게 볼 수 있는 마음이 담긴 눈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정상에서의 사진을 보며 그때 느낀 편안해진 나의 눈빛과 마음가짐을 기억해본다.



다섯. 경북대 본교 신문사 특별기고

- ▶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 그 현주소
- 이지운, 최유진
- ▶ “당신은 자신보다 학벌이 높은 상대에게
열등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 이지운
- ▶ 육아와 삶의 균형
대학 내 엄마, 아빠들의 이야기 - 이지운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 그 현주소

이 지 윤, 최 유 진

지난 1534호, '우리는 왜 대학에 가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나는 전문대학원에 가려고 대학에 왔다’ 라는 대답을 한 학생이 있었다.

전문대학원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에서 “전문 직업분야 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을 그 교육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이후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고급 전문인력 수요와 대학교육 이후 단계의 재교육을 위해 전문대학원을 필요로 하게 됐다. 특히 전문대학원은 기존의 일반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과는 달리 통합적인 학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본지는 여러 전문대학원 중에서도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과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에 대해 알아봤다.

내년부터 의대 부활

의전원은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입학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의학교육입문검사(MEET)를 합격해야 한다. 본교는 2006년에 의전원의 첫 신입생을 받았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27개에 달했던 의전원(의대 병행 포함)들은 현재 5곳만 빼고 모두 기존 의대 체제의 부활을 결정했다. 본교 또한 2015학년도부터 의예과 신입생을 선발하게 됐다. 2003년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시, 교육부는 2009년에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2010년에 의사양성학제 관련 정책방향을 결정하기로 했었다. 이러한 ‘의·치의학 교육제도 개선계획’에 따라 각 대학은 자율적으로 의·치의학교육학제를 선택했다. 결국 대부분의 대학이 의대 부활을 결정하면서 의사양성학제를 의전원체제로 단일화하려 했던 교육부의 시도가 실패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경북대 의전원 폐지는 의·치의학 교육제도 개선계획에 따라 2010년에 이미 결정됐다”며

“결국 학교가 돌아가기로 최종 선택을 한 것이지 교육부가 강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치열한 논의 끝에 의전원 폐지

이유철 교수(의전원 의학)는

“중앙부처인 교육부의 정책 사업으로 의전원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행정적, 인적, 재정적 지

원이 이뤄졌다”며 “의전원 전환 당시에 우려했던 것들이 시행과정에서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의예과 체제로 회귀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당초 의전원 도입 취지는

- ▲다양한 학문 배경을 가진 학생 선발 ▲동기가 확실하고 성숙한 학생 입학
- ▲과열된 의대 입학경쟁 완화 ▲우수인재의 이공계 진입효과 등이다.

이에 대해 양현일(의전원 14) 씨는

“학부 2학년 때 진로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면서 의전원에 대해 알게 됐다”며 “당시에 배우고 있던 학문을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더 보람 있게 사용하고 싶어서 의전원에 진학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재훈(의전원 14) 씨는

“의예과 학생이 자기 적성을 제대로 알고 입학했는지 의문이다”며 “어느 전공이든 적성에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의전원 학생은 대부분 분명한 동기를 갖고 입학하기 때문에 마음가짐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양한 학문 배경을 가진 학생 입학이라는 취지에 대해 김재환(의전원 14) 씨는

“의전원 구성을 보면 생명과학 전공이 절반을 넘는다”며 “도입 취지에 부응하는 학문적 다양성을 충족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전원 체제는

- ▲교육기간 연장으로 인한 의사 고령화
- ▲의전원 입시준비, 등록금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 ▲기초학문 및 이공계열 기피
- ▲지역 인재 유출 등이 문제가 됐다.

이재태 교수(의전원 의학)는

“재수를 하지 않아도 대학 4년, 군대 2년, 의전원 4년, 수련 5년, 전임 2년을 보내야 직업훈련을 마치게 돼 사회진출이 너무 늦다”라고 말했다. 또한 “의전원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 인재를 배출하는 KAIST(한국과학기술원)의 교육체계가 무너지는 것은 국가적 손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KAIST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인원 및 자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89명이 자퇴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7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했다. 이 중 의전원으로 진학한 KAIST 학생은 2008년 34명에서 2013년 93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우수한 이공계열 학생들이 의전원으로 빠지는 것이다.

이상규 교수(자연대 생명공학)는 “학생들의 2/3가 의전원으로 진학하려 한다”며 “과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키워서 의전원에 보내는 학원이 된 느낌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학교육연구소 연덕원 연구원은 의전원 제도의 경제적 부담과 관련해 “다양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고액의 등록금으로 오히려 진입 폭이 더 좁아졌다고 볼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건우(의전원 14) 씨는 “의전원에 진학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것을 고려하면 의예과로의 부활도 괜찮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전원 폐지에 대해서는 “의전원 체재를 수정, 보완하는 방안은 없었는지 궁금하다”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다시 출발선 앞에 선 의예과

의예과 부활은 2015학년부터이지만 의전원 학생들이 모두 졸업할 때까지 의예과와 의전원이 공존하게 된다. 의예과 정원 운영계획에 따르면 올해 2015학년부터 2018학년까지는 의예과 학생을 전체 정원의 70%인 77명을 뽑는다. 나머지 30%인 33명은 학사편입으로 선발된다. 이후 2019학년에는 현재 전체 정원의 90%인 99명이 계획됐지만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사편입 정원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2020학년에 마지막 의전원 학생이 졸업하면 전체 정원이 의예과로 전환되어 의전원이 완전히 폐지된다. 그에 앞서, 과거 의예과 폐지로 타 학부로 이전된 정원은 이번 의예과 부활로 재조정될 계획이다.

또한 의예과 체제로의 전환으로 인해 대학원 정착 명목의 정부 지원금을 기대하긴 어려워졌다. 이에 대해 김시오 교수(의전원 의학)는

“의전원 폐지를 결정하면서 그러한 것을 감수하기로 한 것이라 본다”며 “과감하게 포기하고 대학의 재정적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의전원과 의예과가 공존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진통이나 마찰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학생은 “의전원 학생과 의예과 학생의 소속이 다르니 서로를 인정하지 못할 수 있다”며 “교류가 이뤄지면 마찰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 본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재훈(의전원 14) 씨는 “의전원 출신으로서 의예과 학생이 입학하는 것이 마냥 좋진 않다”며 “내 출신이 사라지는 것인데 갑자기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느낌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양현일(의전원 14) 씨는 “의예과 출신의 선배가 의전원 출신이라고 차별하지 않듯이 우리도 의예과 후배가 들어오면 그러한 관계를 잘 유지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본교 입학본부장 조교영 교수(자연대 통계)는 “의예과 학생 선발로 학교 위상의 제고 효과가 있다”며 “첫 회이니 만큼 우수한 학생들을 뽑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전원이란?

법전원은 1870년 미국 하버드대에서 처음 도입된 법조인 양성학교로,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대학원과정이다. 법학 이외의 학문을 전공으로 이수한 학부졸업생을 대상으로 실무 위주의 법률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법전원의 역할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김영삼 정부시절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법전원제도를 도입할 것을 논의했고 2004년 10월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법전원을 도입하는 것을 채택했다. 이후 2007년 7월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총 정원 2,000명의 25개 법전원이 개원했다. 이와 함께 기존 사법시험은 2009년부터 5년 동안 법전원 제도와 함께 병행되다가 2017년 이후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법전원이 도입되기 까지

법전원의 도입은 근본체제에서부터 혁명적인 변화이다. 법전원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법조인이 되려면 사법시험을 통과해야 했다. 우리나라의 사법시험은 오랜 시간동안 서서히 자리잡은 단단한 체제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소수가 법조계를 독점하고 수많은 고시 낙오생을 만들어내 국가 인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뿐만 아니라 법조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시험을 통해 뽑은 인력으로는 시대가 요구하는 국제성과 다양성이 충족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사고를 전환해 기존의 시험을 쳐서 법조인을 뽑는 방법이 아닌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법조인을 길러내는 방식을 택하게 된 것이다.

한 법전원 학생은

“학부 때 하고 싶은 공부를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며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지닌 법조인을 요구하는 만큼 학부전공도 살릴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현재 정착 진행형 중

제도 도입의 초기에는 법전원이 실패할 것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그러나 생각보다 빠르게 법전원은 정착하고 있다. 법전원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3년 동안 고액의 등록금을 내게 해 그것이 경제적 약자들에게 법조인이 될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정원의 5% 이상을 반드시 특별전형으로 뽑도록 했으며 특별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은 3년 동안 등록금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경제적 부담으로 사법시험을 포기했던 사람들도 법전원에 들어와서 계속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다.

본교 법전원 김창록 교수는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이 폐지되면 그곳에 들어가던 지원금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질적인 방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도록 바꿨으니 얼마나 잘 가르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할 부분이다. 김 교수는

“학생들이 이전보다 다양한 경험, 지식을 가지고 있어 교수들의 강의 부담은 높아졌다”며 “교수가 충분히 노력했는지를 점검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며 제도 도입 10년이 되는 해인 2019년쯤 되면 종합적인 판단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지방대 법전원의 경쟁력

지방대의 법전원이 수도권의 법전원과 경쟁하는 것도 쉽지 않다. 3기 법전원 졸업생 중 60%가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이며 그 비율도 1기에서 3기까지 점점 늘어가는 추세이다.

김창록 교수는

“법전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와 돈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대한민국의 문제이다”며 “본교 법전원을 졸업해 질 높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김 교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학생들의 교류 기회를 늘리고, 교수들이 기관들과 MOU를 체결하거나 인턴을 보내 지역대학 학생들도 충분히 훌륭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이라 말했다.

본교 법전원 정하명 교수는

“지방대 법전원은 그 나름대로 수도권과 차별되는 역할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역대학의 법전원으로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은 수도권과 지방을 모두 알아야 한다”며 “수도권 학생이 본교 법전원에 와 경험을 하고 본교 법전원 졸업생이 수도권에 진출해 서로가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은 현실적 아쉬움 있어

법전원 제도가 자리를 잡고 있는 추세이며 여러 전공을 공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한 학생들이 들어와 여러 수요에 대한 공급이 가능해졌지만 설립 당시의 법전원 도입 취지와는 달라졌다는 의견이 전반적이다. 정 교수는

“언론은 법전원을 성적에 따라 줄 세우며 그에 따라 교수와 학생 모두 현실에 맞추어 가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익명의 학생은

다섯

“절대적 상대평가 때문에 학점에 대한 부담감이 늘었고 법전원이 고시학원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본래 법전원의 취지에 맞도록 장기 비전속에서 노력해야 한다”며 “학부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해 법전원에 진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문대학원제도, 과연 정착할 수 있을까

의전원 제도 자체의 실패를 넘어서 전문대학원 제도 자체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음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대학교육연구소 연덕원 연구원은 “전문대학원은 도입 당시부터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이 많아 논란이 일었다”며 “의전원의 경우 부활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작용이 있겠지만 그 자체가 우리나라와 맞지 않는 체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연 연구원은 우리나라가 아직 학부 중심으로 이뤄진 반면 미국의 경우는 대학원 중심이며 우리나라와 달리 의무복무기간이 없기 때문에 의사가 되기까지의 사회적 비용이 덜 든다고 덧붙였다.

익명의 한 학생은 “의전원 제도가 처음 도입되어 폐지를 결정하기까지 긴 시간이 아니었다”며 “이 기간 동안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는지 궁금하며,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움직였다면 이후에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을 텐데 모든 일이 성급하게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학년 연도	의예과		의학과			
	1	2	1	2	3	4
2020	99	99	77	77	77	77
2019	99	77	77	77	77	110
2018	77	77	77	77	110	110
2017	77	77	77	110	110	110
2016	77	77	110	110	110	110
2015	77		110	110	110	110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 그 현주소
경북대학교 본교 신문 1535호(2014-05-19)

“당신은 자신보다 학벌이 높은 상대에게 열등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이 지 윤

우월감 느낀 적 있는 10명 중 8명이 열등감 역시 느껴

‘학벌=능력’에 반대하는 10명 중 3명, ‘학벌 = 관계’에는 찬성해



지방대와 서울 상위권대 학생들 간의 학교 서열과 학교 등급, 학과 등급을 나누는 등 단계의 차이를 과장하고 벽을 쌓는 ‘학력위계주의’가 이십대들을 지배한다. 황보미(IT대 컴퓨터공학 13) 씨는 “주변을 보면 다른 지방 사립대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반면에 수도권 대학생과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느낌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지역거점국립대이자 지방대인 본교 또한 우월감과 열등감이라는 양가적인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준다. 한편 지난 13일에는 대학입시와 학벌주의에 담긴 사회의 차별과 경쟁의 논리에 반대하는 ‘투명가방끈들의 모임’ 기자회견에서 3명의 청소년이 대학을 거부하는 선언을 했다. 그렇다면 본교생의 차별에 대한 의식수준은 어떻게? 본지는 지난 10일부터 4일간 학력주의에 대한 본교생의 의식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총 설문인원은 323명(오프라인 257명, 온라인 66명)이다.

‘사회적 능력의 평가기준으로 학벌을 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설문에 참가한 학생 중 53%(171명)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면 ‘사회적 관계에서 개인을 평가할 때 학벌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54%(174명)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사회적 능력의 평가기준으로 학벌을 보는 것

에 반대하는 학생 중의 36%(54명)가 사회적 관계에서 개인을 평가할 때는 학벌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찬성’했다. 박기철(농생대 임산공학 14) 씨는 “학벌은 개인의 노력에 의해 달성한 것”이라며 “사람을 평가할 때 학벌이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자신보다 학벌이 낮은 상대에게 우월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55%(177명)가 ‘없다’라고 답했다. 반면에 ‘자신보다 학벌이 높은 상대에게 열등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52%(169명)가 ‘있다’라고 답했다. 한편 자신보다 학벌이 낮은 상대에게 우월감을 느낀 적이 있는 학생 중의 78%(83명)가 열등감 역시 느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성현(공대 고분자공학 13) 씨는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가식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나보다 서열이 높은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공부를 안 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부럽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편·입학 및 반수로 수도권 대학으로의 진학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40%(129명)가 ‘있다’고 답했다. 이들 중 48%(53명)는 ‘지역 거점국립대인 본교가 수도권 대학들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했다.

서열화에 익숙해진 우리

국립대인 본교의 대학 서열상 위치에 대해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박기웅(인문대 영어영문 11) 씨는 “요즘엔 대학공동체가 연합하는 분위기가 열거졌다”며 “대학 내에서도 정치와 수사를 가르치고 상주랑 대구를 가르는데 이러한 구별 자체가 폭력적이다”라고 말했다. 허우경(경상대 경제통상 14) 씨는 “교육이 무의식중에 학습된 우리를 계속 재생산해내기 때문”이라며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성적순으로 받게 하고, 고등학교에서 우등반을 만들어 그들에게 관심을 준다”라고 말했다. 또한 “1위는 주목을 받지만 2등은 ‘안됐다’는 식으로 투사하는 미디어도 잘못됐다”라고 비판했다. 김근우(사회대 신문방송 10) 씨는 “사회적으로 그러한 교육을 받은 세대가 자라서 지금의 우리들이 됐다”며 “인생의 모든 것을 서열화하는 것이 우리 세대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경북대학교, 지금의 위치는?

지난 2008년에 실시한 경북대학교 학생 정체성 조사에 따르면 ‘경북대학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 ‘국립대학’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긍정적 이미지와 부정적 이미지가 동시에 존재했다. 본교가 국립대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김도영(법대 07) 씨는 “우리 세대는 그래도 경북대라고 하면 ‘성실하게 공부했네’ 정도의 인식은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허우경 씨는 “국립대의 위상이 떨어진 것은 확실하다”며 “앞으로 등록금 면제 같은 획기적인 정책이 없으면 회복이 힘들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조여탁(농생대 생물산업기계 10) 씨는 “국립대라고 해서 국가에서 제대로 학교를 지원해주는 느낌이 없다”며 “국립대가 정부 산하에 있으니까 오히려 교육부에 끌려 다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대학교육연구소 연덕원 연구원은 이러한 위상 하락의 원인에 대해 “학벌주의 사회의 깨지지 않는 연결고리 때문”이라며 “대기업 등의 취업을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 서울에 있는 대학들을 선호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자신의 학교에는 얼마나 만족하고 있을까. 조여탁 씨는 “본교 정도면 학교 간판 때문에 대기업 지사나 중소기업 입사에 패널티를 받을 것 같지는 않다”며 “지역 안에서는 본교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박기웅 씨는 “입시결과 본교와 서울 소재 대학을 합격했는데 본교를 선택했다”며 “단지 서울에 있다는 이유로 가고 싶지는 않았다”라고 말했다.

반면에 김근우 씨는 “고등학생 때까지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닐 것이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패배감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천선영 교수(사회대 사회)는 “우리학교에 온 것에 만족하는 학생도 있고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다”며 “이 때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은 우월감과 열등감이 뒤섞인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것을 일반화해서 과도하게 포장하면 곤란하다”며 “본교만의 특수한 현상이 아니라 특정한 구도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스스로 피해자가 되다

실제로 본교생들은 우월감과 열등감을 느끼고 있을까. 천선영 교수는 “열등감과 우월감의 구성비는 사람마다 다르다”며 “약간의 우월감으로 골목대장 노릇을 하거나 열패감이 더 커서 무기력증이나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김근우 씨는 “개인차가 있겠지만 평균을 낸다면 학벌이 더 높은 대학에 교양인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박기웅 씨는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이 대학이나 학과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조여탁 씨는 “소개팅에서 경대생이라고 하니깐 왠지 다르게 보는 것 같았다”며 “스스로 우월하다고 생각하기보다 대구경북 내에서 은연중에 인식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천 교수는 “어떤 행위나 말을 할 때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지 질문해봐야 한다”며 “만약 다른 사람을 깔보는 행동을 할 때 그 거울은 자기 자신이 된다”라고 말했다.

그림자처럼 따라 다니는 학벌주의 논란, 이제는 거부하고 싶다.

2010년 3월 10일,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 다니던 김예슬 씨는 ‘오늘 나는 대학을 그만둔다, 아니 거부한다’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붙이고 1인 시위를 한 후 고려대를 자퇴했다. 그로부터 4년 6개월 뒤, 세상은 ‘김예슬 선언’ 같은 것이 있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 지난 여름에는 고려대가 중앙일보 대학평가를 거부하는 운동을 시작했다. 처음 거부 선언을 한 고려대 총학생회를 향해 “용기 있는 행동”이라며 박수가 쏟아졌다. 하지만 불과 한 계절이 지나고 호응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거부 운동이 좀처럼 폭발력을 갖지 못한 데에는 대학 서열화 문제의 본질에 다가서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따른다. 투명가방끈들의 모임은 “대학순위평가 거부운동의 내용에는 한 언론사이 대학순위 매기기에 대한 비판만 있을 뿐”이라며 “대학 서열화를 조장하는 본질적 요소인 획일적 입시제도, 기득권 학생들의 특권의식, 그리고 사교육업체의 대학순위 매기기(배치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여름에는 대학 서열화가 학교 단위에서 학과 단위로까지 세분화되는 모습을 보도한 연세대 독립언론 <연세통>의 기사(제1018호)를 두고 뜨거운 논란이 벌어졌다. 공감하는 의견

도 있었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소수 이용자의 언행을 일반화해 학교 명예를 훼손했다’는 여론이 학내 이곳저곳에서 분출했다. 이에 본지는 지난 8월, 연세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력주의’에 대한 스티커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총 설문인원은 117명이었다.

‘서열이 낮은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질문에 75%(88명)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연세대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지방 대학이던 수도권 대학이던 싸잡아 묶어서 평가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며 “여기나 지방이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방의 한 사립대 학생은 “학벌이 무엇보다 중요한 스펙인 시대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학벌이 배제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소개팅이나 알바를 해도 상대적으로 학벌이 낮은 학생이 조금 모자란 발언을 할 경우에 그 학교 학생이라서 그렇다고 치부되어 버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가 지방에 위치한다 해도 나는 다시 이 학교에 입학할 것이다’라는 질문에는 71%(83명)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생은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가 지방에 있다면 나는 어떤 혜택을 준다 해도 가기 싫을 것 같다”며 “취업을 앞둔 대학생이 우리나라 정보, 산업, 문화의 중심이자 전부인 서울을 벗어나는 것은 큰 손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대학교육연구소 연덕원 연구원은 “수도권 중심의 사회가 문제”라며 “인적 자원이 수도권에 몰리다 보니 인구공동화 현상이 벌어지면서 학벌사회에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역발전과 지방대 육성을 위해 실질적인 정책들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립대는 재정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부에 요청하고 학생들을 위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안으로 ‘학벌없는 사회 모임’은 서열화된 대학을 평준화하기 위한 국립대 네트워크 등을 도입해 대학 문턱을 낮추고 출신학교에 의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무상등록금으로 대학 교육을 개인이 부담하게 하기보다는 국가가 책임져서 누구나 고등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벌주의 이데올로기 깨뜨리기」에서 경상대 사회학과 정진상 교수는 “지방대학의 사정은 대학 교육의 공동화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다. 대학서열 체제로 인해 지방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대학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도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전공 학과 공부를 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는다. 학생들은 하급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거나 기업에서 요구하는 영어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강의실보다 독서실을 찾는다. 전공 수업은 학점을 이수하여 졸업장을 받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대학 경쟁력은 여러 대학이 공정한 경쟁을 할 때 올라갈 수 있다. 현재의 고착화된 대학 서열 체제에서는 입학성적 경쟁만이 있을 뿐 대학 교육의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당신은 자신보다 학벌이 높은 상대에게 열등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경북대학교 본교 신문 1545호(2014-11-17)

육아와 삶의 균형 대학 내 엄마, 아빠들의 이야기

이 지 윤

최근 육아휴학 신청자가 급속히 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인 2009~2010년, 육아휴학 신청자는 2년 간 2명에 불과했지만 2011년 89명(대학원생 75명), 2012년 118명(103명)으로 크게 늘었다. 육아와 학업을 병행하는 대학원생이 육아휴학의 절대다수다. 작년 1학기의 경우 육아휴학 신청자는 49명(44명)으로, 이 중 2명은 대학원에 다니는 30대 남학생이다.

공대 대학원생 이현철 씨는 현재 박사과정의 마지막 과정을 밟고 있다. 대학원을 다니면서 휴학을 하지는 않았다. 휴학해서 아이를 돌보기보다는 학위를 받아 얼른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 때문이다. 아이 이름은 아이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수현'이다.

해가 뜨면 수현이가 제일 먼저 일어나 아빠, 엄마를 깨운다. 여름에는 해가 일찍 뜨니 5시 반만 되도 수현이가 깬다. 아내와 함께 바쁜 아침 부랴부랴 출근 준비를 마치고 수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다. 환절기라 그런지 수현이 코에 콧물이 흐른다. 한 명만 감기에 걸려도 전체가 걸리는 어린이집 특성상 감기 정도는 어쩔 수 없이 넘길 수밖에 없다.

연구실에 도착하면 8시 반이다. 그때부터 책 읽고, 실험하고, 논문도 쓰다보면 시간가는 줄 모른다. 실험을 한 번 시작하면 10시간은 걸리기 때문에 눈 깜짝할 새에 저녁이 된다. 자, 이제 결정해야 한다. 저녁에 집에 들어가 밤에 다시 연구실에 나갈까, 아니면 새벽에 집에 들어가 아침에 연구실로 나갈까? 새벽까지 실험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 것이 조금 더 오래 설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아이의 자는 모습밖에는 보지 못한다. 결국 현철 씨는 피곤하지만 잠깐이라도 아이와 함께 있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굳이 저녁에 집에 들어와 수현이를 씻기고 잠드는 것까지 지켜본다. 수현이가 잠들고 나면 이현철 씨는 다시 연구실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생활이 지속되다보면 집은 결국 씻고 옷만 갈아입고 나오는 곳이 돼 버린다.

아이를 키우면서 현철 씨의 개인 생활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평일엔 거의 학교에 있어 아이와 함께 있어주지 못하니 주말에는 되도록 아이와 함께하려 한다. 버둥거리는 아이를 추스르는 품이 아직은 조금 어설피다. 의자에서 떨어질까, 머리를 다치진 않을까 내내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다.

그때 수현이가 순가락을 식탁에 대고 쿵쿵 두드린다. 잠시도 가만있지 않고 움직인다. 유아용 의자에 앉히기라도 하면 벗어나려 발버둥이다.

아내 고영아 씨는 임신 중에 가장 힘들어 했다. 연구실 일이 한창 바빠 거의 일주일에 하루 집에 들어가는 꼴이었다. 그래도 수현이가 토요일에 태어나서 다행이었다. 주말에 아내, 아이와

지내고 다시 학교에 온 현철 씨에게 교수님은 축하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곧바로 업무 이야기를 꺼냈다.

‘그런데 수요일까지 이 보고서 내용 조사해 주고...’

조금이라도 쉬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당시엔 꽤나 서운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고 했다. ‘교수님 세대는 육아에서 아빠 역할이 크지 않았으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회상하던 현철 씨는 ‘그래도 하루 이틀이라도 아이를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하고 생각한 후 당연하다는 듯이 일을 시작했다고 한다.

아내는 육아휴직 기간인 1년이 끝나 이번 달부터 다시 회사에 나간다. 그래서 수현이를 어린 이집에 보낼 수밖에 없었다. 조모에게 맡기는 데도 눈치가 보인다.

‘흔쾌히 맡아 주시겠다고 하지 않아 잠깐의 틈이라도 생기면 바로 안되겠구나 싶다’

학부생 아이 아빠 유명환 씨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은 가족사진이다. 아빠, 엄마, 아이. 단란한 모습이다. 아내는 11학번, 남편은 07학번으로 아내가 새내기 때 만나 같은 과 CC가 됐다. 유 씨는 아이 아빠라는 것을 굳이 숨기지 않는다. 교양수업 자기소개 시간. 조금 쑥스럽지만 유쾌하게 말한다.

‘저는 2살배기 아이가 있는 아이 아빠입니다. 남자아이인데 이름은 유세현입니다’

세현이가 동네 어린이집에 가 있는 동안 부부가 오붓이 외출했다. 기사를 보니 KNU어린이집이 도대체 언제 생기는지가 제일 궁금하다고 한다. 여교수님들이 기부하고 바자회도 해서 ‘곧 생기나 보다’하고 기대했는데 아무 소식도 없는 거냐고 묻는다.

곧 복학을 해야하는 아내 강혜진 씨도 학교 안 어린이집 소식에 민감하다. 생긴다고 하더니 언제 생기는지도 모르겠고 답답하기만 하다.

아내는 갑자기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2학년 1학기에 휴학했다. 당시에 놀라긴 했지만 침착하게 넘긴 것 같다고 회상한다.

‘선택할 문제가 아니었다. 아이가 생긴 이상 당연히 책임져야 했고 낳기로 했다’

하지만 그들에겐 보다 현실적인 고민이 남아 있었다. 어른들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주위사람

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했다. 그래도 명환 씨는 세현이가 아직 어려 한창 손이 많이 가는 지금이 더 힘들다고 한다. 그래도 아내는 신랑이 많이 도와줘서 할 만하다며 웃어주는 것이 고맙다. 일을 다니는 아내는 재작년에 2년의 육아휴학이 끝나 일반휴학을 한 번 더 써서 내년 1학기에 복학할 예정이다. 임신부터 출산까지 육아휴학 2년은 길지 않다.

명환 씨는 이번 학기가 마지막 학기다. 아내는 일을 해서 수입이 있지만 명환 씨는 아직 학생이다. 하지만 가장이라는 부담감이 크다. 얼른 취업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 남학생도 올해부터 육아휴학이 가능하지만 이미 찰 대로 찬 나이와 취업문제 등 이것저것을 고민해보면 휴학은 선택지가 될 수 없음을 실감하게 된다.

*‘남학생은 빨리 졸업해서 돈을 버는 게 우선이니까.
싱글대디가 아니면 육아휴학도 별 효용이 없다’*

아내는 일을 하니 아이가 아프더라도 바로 가보지 못한다. 명환 씨는 그나마 있는 수업을 빠지고 아이에게 달려간다. 작년에는 세현이가 아파 계속 수업에 결석했다. 원래 아기들은 자주 아프다고 하지만 세현이가 유독 잔병치레가 많긴 하다. 그래도 아이가 건강할 거라는 말을 애써 믿는다. 사정을 말한다면 교수님들이 사정을 봐주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아이가 있다고 잘 말이 떨어지지가 않는다.

명환 씨는 취업 이후도 역시 걱정이다. 취업을 한다면 지금처럼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 곧바로 달려올 수 없다. 얼마 전 세현이가 아파서 아무 것도 먹지 못할 때, 유치원에 오래 있어서 그런 것 같다며 속상해하는 아내가 떠오른다. 유치원에 오래 두는 것도 좋지 않다는 생각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공부만으로도 힘든데 육아와 취업준비를 병행해야 하는 명환 씨는 조별과제 조모임조차 부담스럽다. 저녁엔 세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와야 하니 말이다.

부부는 KNU어린이집이 생기면 조금 편찮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학교에 어린이집이 생기면 수업 중에라도 볼 수 있으니 말이다. 한편으론 KNU어린이집이 생겨도 걱정이다. 역시 차가 없으니 아이를 데리고 집과 학교를 오가기 만만찮을 것이다.

명환 씨는 현재 학생신분에 따른 특별한 지원을 받지 않는다. 대학생이 아이를 가지면 자퇴를 하거나 휴학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인지 제도적인 부분은 미비하다. 부부는 힘들어도 열심히 발품을 팔아서 정보를 얻는 것이 최선이라며 나름대로 살 길을 찾는다.

‘그래도 아이가 태어나기 전보다 태어난 이후에 훨씬 행복한 것 같아요.’

물론 힘든 점도 많지만

아이 덕분에 행복한 것이 걱정거리를 모두 덮어주는 느낌이 들죠'

2010년 본교 전체 교원 중 2~30대의 수는 114명이었다. 게다가 고학력 여성의 경우 출산이 늦어져 40~44세인 교원 중에서도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가 늘고 있다. 임지영 교수(생과대 아동)는 마흔의 나이에 귀한 첫 아이, 승민이를 낳았다. 결혼 후 남편과 유학을 떠나 각자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 아예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거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교수직에 재임용되기 위해 2년 동안 업무에 열중하다 보니 아이는 또 미뤄졌다. 재임용 되고서야 39살에 아이가 생겼다.

퇴근 후 승민이를 차에 태워 집에 도착하니 하루 종일 할아버지와 놀아 피곤할 법도 한데 다시 밖으로 나가자고 보낸다. 이리저리 주의를 돌리려 해도 꿈쩍도 않는다. '나이가 있다 보니 젊은 엄마들보다 확실히 체력적으로 힘들다'고 말하는 임 교수는 학교에서 내내 업무를 보고 온 뒤 승민이 저녁을 먹이고, 놀아주느라 수저 들 시간도 없다. 승민이 입에 들어가는 밥 한 숟가락이 더 중요하니 엄마는 아이 먹이기에 열중할 맛칠 수밖에 없다.

'승민이의 미래를 함께 해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동생을 낳기엔 이미 부담스러운 나이라는 점이 가장 걱정스럽다'

실제로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아이가 두, 세살일 경우에 엄마가 40대인 경우는 5%가 안 된다. 여성은 만 35살만 돼도 기형아 출산 등과 관련해 고민해야 할 때이고, 40대에는 조기 폐경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특히 40대에 첫아이를 낳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

승민이가 대학갈 때쯤에는 임 교수 부부의 나이가 60이 넘는다. 임 교수는 유치원만 가도 다른 엄마들보다 나이가 많다는 걸 승민이가 신경 쓰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어린이집에 들 때엔 다른 젊은 엄마들보다 나이 들어 보이는 것이 그렇게 스트레스가 아닐 수 없다.

그래도 승민이를 늦게 낳아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이 정도까지 성취할 수 있었다고 말한 임 교수는 출산 전에는 지독한 워커홀릭이었다.

본교의 출산휴가는 3개월인데, 임 교수는 제왕절개를 해서 90일을 전부 사용할 수 있도록 출산일을 맞췄다. 그렇게 딱 3개월만 쉬고 나와서 바로 일을 시작했다. 짧은 육아휴가가 끝나고 돌도 지나지 않은 승민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며 출근할 때에는 가슴 한편이 찢어질 듯이 아팠다.

출산 전일까지 새벽을 새워 일을 하던 임 교수는 요즘엔 9시면 승민이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집으로 돌아온다. 주말엔 승민이와 같이 공원을 산책하거나 건강관리를 하기도 한다.

임 교수는 ‘내 경우엔 융통성 있게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직장과 상대적으로 편찮은 경제기반 덕분에 지금과 같은 생활이 유지가 된다’라며 ‘일반적인 학생, 교직원, 직장에 다니는 여성은 가정과 일에 치여 개인생활이 없어져버린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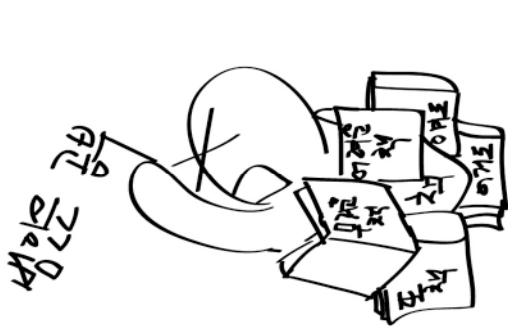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50%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 OECD 32개 국가 중에서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으며, OECD 평균인 62.3%에 미치지 못하는 55.2%이다. 또한 연령대별 경제활동 참가율이 M자형을 보여 경력단절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는 출산과 육아 문제가 개인적 측면을 넘어서 국가적, 사회적 측면에서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가 됐다. 대학에서 근무하는 교원, 직원 그리고 학생들에게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육아와 학업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학생, 육아와 학교일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직원이나 교원 역시 역할 과부하를 견뎌 내고 있다. 이러한 부담이 대학 내 여성 구성원들에게만 국한돼서는 안 된다. 점차 높아지는 맞벌이 비율과 새로운 아버지상에 대한 인식변화는 아버지로서 기대되는 역할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출처: 통계청>

육아와 삶의 균형 대학 내 엄마, 아빠들의 이야기
경북대학교 본교 신문 1542호(2014-10-06)

어떤 동아리에 가입해야 할까요...?

바이, Chellee



힘든 학교 생활 속에서 힐링이 되어주는 동아리



도란도란 혹은 왁자지껄 웃으며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동아리



닐리리아
니나노호

무엇보다도 본인이

즐길 수 있는

(누나 궁서체다)

동아리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신입생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잠깐! 이런건 안돼요!!

여기 저기 요기 조기 고기
다아~할래요!



동아리 쇼핑 안돼요!

저희 조는 한몸이니
동아리도 다같이!



친구따라 강남가기 없기!

내 능력은 무능력...
어느 동아리도 안받겨줄거야..



좌절 금지!!누구든 환영해요!

여섯. 에세이

- ▶ 선택 - 오정석
- ▶ 그렇게 되어나 보다 - 김로데
- ▶ 강건너의 사람들 - 정재헌
- ▶ 조르지아에서의 입찰 - 정재헌
- ▶ 호모 사피엔스의 생각 - 윤민혁



선택

본과 4학년 오 정 석

병원에서 실습을 하다 보니 무슨 과를 가야 할까? 고민을 하게 된다.

대부분의 선배님들에게 물어보면 '병원에서 인턴을 하다보면 바뀌니 지금부터 고민할 필요가 없다', '열심히 공부해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 맞는 말이다. 공부를 잘해야 어떤 과든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실습을 하다보면 교수님이나 전공의 선생님들에게 자유로운 질문 시간이 생긴다. 학문적인 것도 좋고 진로나 지금 실습을 하고 있는 과에 대한 것도 괜찮으니 어느 질문이라도 하라고 하신다. 나는 맨 처음 '왜 그 과를 선택하게 되셨나요?' 라고 묻는다. 대부분의 교수님이 과를 선택하게 된 여러 가지 계기를 말씀해 주신다. 내가 하고 묻고 싶었던 질문을 한다. '과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하나요?' 라고. 들어왔던 대부분의 대답은 '하고 싶은 것을 해라' 이다.

이것이 정답일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대답을 한다.

'성적 때문에 못 간다고', '경쟁이 세서 떨어지면?' '나이가 많아서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다가 어느 전공의 선생님이 스쳐가듯 말씀하신 게 기억에 남는다.

'성적이 안되서? XX과 전문의가 되겠다. 라고만 하면 전국에서 XX과 전공의를 뽑는 병원에 가서 수련 받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크고 좋은 병원에서 그런 과를 가려고 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냐고'

이 말씀을 듣고 인터넷에서 봤던 문구가 생각이 났다. '욕심이 많으면 욕심에 걸 맞는 노력을 하라고 노력은 안하고 하고 싶은 게 많으면 도둑놈 심보'라는 문구가.

과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선택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선택.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선택이라는 것과 마주하게 된다. 지금 일어날 것인가? 말 것인가? 아침을 먹을 것인가? 먹으면 어떻게 먹을 것인가? 아니면 굶을 것인가?

우리에게는 늘 주관식 같은 객관식 선택이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만든 객관식 선택. 그 중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 우리의 선택은 단순해지기도 하고 빨라지기도 한다.

예를 들면, 늦잠을 잔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된다. 허겁지겁 빨리 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체념하고 천천히 갈 것인가? 기타 등등 여러 개의 선택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선택의 수가 2개인 선택은 일반적으로 YES or NO의 선택이다.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선택에 대한 결정은 나한테 있기도 하지만 이미 누군가에 의해 추려진(?) 선택을 내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묻는 상황도 있다. 이렇게 선택의 수가 적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선택이라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글을 쓰면서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더 많은 선택의 수 그리고 선택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 지금 현재를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해서 선택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선택의 수가 별로 없어서 불행한 것도 아니다. 본인의 선택에 책임을 질 수 만 있다면 선택의 수는 중요하지 않다.

여러 선택에서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하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본인이 결정한 것에 집중 하지 못하고 다른 선택을 생각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정작 본인이 선택한 것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선택을 했다면 선택하지 않은 것은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동전던지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한 선택을 동전던지기로 결정하면 후회하게 되지 않나요?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의 대답은 이러했다. ‘동전던지기로 선택을 했지만 내 스스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다른 선택에 대해 후회하지 않아요.’ 라고.

어렸을 때 우리들의 부모님은 우리가 아직 철이 들지 않았다, 사리 분별을 못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이유로 우리들의 많은 선택을 대신해주셨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오늘 내일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어 왔다. 옛날부터 우리들의 삶에 중요한 선택을 부모님이 대신 해주셨다.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신분에 따라 삶이 결정되어 왔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렇듯 우리가 무엇을 선택함에 있어 부모님의 영향이 적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다 너 잘되라고 하는 것이다’ 라면서 우리들의 선택을 부모님이 대신 해주신다. 하지만 내가 결정해야 할 선택을 남에 의해 아니면 가까운 사람에 의해 내 뜻과 상관없는 선택을 하게 된다면 언젠가 우리는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된다. 모든 선택이 내 생각과 일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모두를 만족 시킬 수 있는 선택은 없다. 나의 뜻과 부모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내가 부모님과 다른 선택을 했을 때, 나의 결정이 부모님을 실망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두려워서 부모님의 선택을 따라왔다. 나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했다. 내 스스로도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이 모순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 스스로가 경험을 해보니 내 삶의 선택은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택은 내가 해야 한다. 그 이유는 단 하나이다. 내 삶이기 때문이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부모님의 선택에 반하는 선택을 한다고 해서 부모님을 배신한다거나 등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부모님이 나를 낳고 키워주신 것은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그 이유만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한다면 나중에 부모님을 원망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 선택은 나를 위해서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과연 사람들은 모두 옳은 선택을 한 것일까? 그 누구도 지금 당장 답을 내릴 수 없다.

사람은 후회의 동물이다.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것보다 선택하지 못한 것을 더 아쉬워하는 사람들이다. 선택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는 것이다. 본인이 선택을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다. 자신이 하는 선택이 신중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더 많은 잘못된 선택을 해야 한다. 그래야 다음에는 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으니. 선택의 경험이 쌓여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줄 거라 나는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선택해야 할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후회하지 않을 결정을 내린다.

선택이란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하지만, 모든 선택에 있어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기 위해 늘 노력하며 더 많은 잘못된 선택을 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

2장.

나는 이제 본과 4학년이다. 내가 학부를 졸업하고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이라는 선택을 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20살이 아니라 군대와 학부를 졸업하고 늦은 나이인 30살에 대학원 진학을 했다. 아무런 연고가 없는 대구에서 생활한지 횡수로 4년이 지나가고 있다. 이 시점에서 과연 나는 다른 진로에 대한 후회가 남아 있지 않는가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과연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인제쯤 할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선택과 선택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갖게 된다.

본과 1학년 강의실 뒤 휴게실에 보면 프로스트에 가지 못한 길이라는 시가 있다.

지금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길 위에서 있다. 우리 모두 같은 길을 가고 있지만 졸업을 할 때가 되면 몇 명은 일반적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찾아 갈 수도 있다. 그리고 수련과정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길을 찾는 친구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미 잘 닦여진 길을 갈 수도 아니면 새로운 길을 만들며 갈 수도 있다.

어떤 길을 가더라도 자기가 선택한 길에 최선을 다하고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가지 않은 길 - 로버트 프로스트

노란 숲 속에 두개의 길이 갈라져 있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나는 두개의 길을 갈 수 없었기에
그리고 하나의 여행자가 되어, 오랫동안 서 있었고
그리고 한 개의 길을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려다보았다
그 길이 덤불 속에서 구부러진 곳까지:

그리고 나서 다른 길을 택했다, 매우 공평하게,
그리고 아마 더 나은 주장일 거라 여기고,
왜냐하면 그 길은 풀이 우거졌고 밟혀지길 바랐기에:
비록 거기를 지나가게 되면
실제로 똑같이 밟혀 닳아질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날 아침 두개의 길은 똑같이 있었다.
까맣게 밟은 발자국 없이 앞들이 쌓인 채로.
아, 나는 다른 날을 위해 첫 번째 길을 남겨두었노라!
여전히 어떻게 길이 길로 이끄는지 알면서도,
나는 진정 돌아와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웠다.

나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하고 있을 것이다
어딘가에서 나이를 많이 먹은 후에:
숲 속에 두개의 길이 갈라져 있었다. 그리고 나는 -
나는 덜 다닌 한 개의 길을 택했고,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달라지게 했노라고.

그렇게 되어가나 보다.

의학과 3학년 김 로 데

힘들게 산을 오르고 있는 찰나, 누군가가 같은 동아리 부원에게 질문을 던졌다.

“오빠도 시간이 지나면 의사가 되는 거야?”

사뭇 진지함이 묻어나오는 그 질문에 함께 산을 오르고 있던 사람들은 동시에 박장대소를 터뜨렸다. 우리는 질문의 대상이 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의사가 되는 과정이 어떠한지 또한 몸소 체험하고 있기에, 간결하기 짝이 없는 그 한 문장에 담긴 깊고도 묘한 의미를 단숨에 파악하고 웃었다. 그러나 강의실에 앉아 머지않은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은 웃을 수가 없다. 그 질문의 화살이 더 이상 그가 아닌 나를 겨누고 있기 때문이다.

계절이 겨울을 향해 가면 밤이 길어지듯 시험이 가까울수록 길어지는 밤을 이제는 별 저항 없이 맞이한다. 어두움이 깊을수록 일찍 활동을 접는 것이 상식이려만 우리들의 세계는 밤이 깊어갈수록 타는 목마름으로 고도의 정신활동에 매진한다. 타는 것이 내 똥줄인지 내일을 위한 그 무엇인지 알 길은 없다. 다만 활활 타오르기를 바랄 뿐.

신나게 노느라 불태운 지난 주말이 이제 와 후회스럽다. 그 동안 나는 그 많은 시간들을 어디에다 흘려보냈단 말인가. 지금의 이런 율조림은 전혀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지만 시험기간의 통과 의례이므로 또다시 자신을 나무라본다. 이런 절망감을 또 느낄 일이 있을까. 인생의 최대 고비이다. 이 시험이 뭐라고 내가 이러나 싶다가도 울컥 하는 두려움에 심장이 뛰다. 그것이 다음 주, 길어봐야 2주 뒤 다시 이곳에서 느낄 감정임을 나는 익히 알지만 미련하게도 지금의 나만큼 앞이 캄캄한 이는 세상에 없다.

답답한 마음에 친한 선배에게 징징거리려 본다.

“유급할 것 같아요.ㅠㅠ. 아 진짜 왜 이렇게 어려움?”

하나도 모르겠음 ㅠ 시계 봐요,

어쩔 ㅠㅠㅠ 결국 밤을 새야 하나.....

재시라도 치게 해주면 좋겠다....”

등의 대부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어난다 해도 상당히 낮은 확률일 이야기들을 뇌를 거치지 않고 주저리주저리 쏟아낸다. 상대방은 '그래 그럴 시간이 됐지.' 하는 눈치다. 그에게서 명언이

하나 날아온다.

“아직 10시, 벌써 10시. 같은 10시입니다. 파이팅(씨익)”

상황은 변한 게 없지만 그래도 힘이 좀 난다. 선배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렇게 또 조금 더 집중해본다. 그러다 바보들의 동네 반상회가 열리는 시간 자정. 장소는 강의실 앞 휴게실이다. 처음엔 두세 명이 의자에 앉아 신세한탄을 하며 시작하지만 화장실을 다녀오던 이, 정수기에 물을 받으러 가던 이, 편의점에서 간식을 사오던 이, 스트레칭을 하러 허리를 돌리며 나오던 이 등등 몇 분만 지나면 제법 규모가 커진다. 한참을 배꼽 빠지게 웃어놓고서는 누군가가 꼭 정색을 하고 이렇게 말한다.

“아 쏘!! 더 이상 우리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개그코드 하지 말라고~~

남들이 보면 우리 진짜 정신 이상한 줄 알아.

hypomentalism, hypermentaluria 같은 소리 한다, 진짜.

신장이나 마스터 해.

아 이제 공부하러 가자 그만. 열공뽕공요~”

꼭 자기가 제일 많이 웃어놓고 저런다면서 반상회 참가자들은 이제 그만 자신들이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다. 물론 1등은 이럴 시간 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불태우고 있겠지만 “우린 1등이 아니니까~”라는 말이 그렇게 위로될 수가 없다. 정신을 놓고 온갖 애드리브가 난무하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함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여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한다. 이 힘든 공부를 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얼마나 비극일지를 상상하면서 말이다. 109명의 정원에 1이 더해질지언정 1이 빠지는 유혈사태는 막자고 그렇게 서로를 위하는 심장은 벽난로만큼이나 따스하다.

바보 같고 어딘가 모자라 보이던 선배도 이런 역척스러운 시간을 지나 지금의 선배가 되었음을 깨닫는 시간, 새벽. 이제는 한결 평온을 찾는다. 이제는 어떻게든 되리라, 지나가리라라는 생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다음 주면 다시 돌아올 그 시험에선 제발 그 전날 침대에서 잘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마지막 마무리를 한다.

입실 직전에 본 내용이 시험에 나온다는 정설이 오늘도 유효할 것이기에 SLC실을 향해 걸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서로에게 질문을 날리느라 발걸음이 바쁘다. 마음을 졸이며 컴퓨터 화면을 쳐고 로그인. 잠을 얼마 못 자 초췌한 지금의 나에 비해 화려하다 할 수 있는 증명사진이 좌측 상단에 뜨고 그렇게 또 우리는 하얀 벽들의 색깔을 채워간다.

휴우~ 또 한 고비 넘긴 거겠지. 확신할 수 없으나 안도한 마음이 계단을 내려온다. 급속히 밀려오는 피곤함 사이에 드는 생각 한 켠. ‘귀동냥으로 몇 문제 맞추게 해 준 누구야, 오늘도 고맙다^^.’ 한 짐을 덜어낸 마음으로 강의실에 돌아오면 늘 그렇듯 삼삼오오 답을 맞춰보는 광경이 당연하다. 얼른 기숙사에 돌아가 쉬고 싶은 마음에 주말 잘 보내라는 인사와 함께 그들을 뒤로 한다.

햇살이 눈부시다. 분명 어제와 같은 햇살일 텐데 어제보단 오늘 더 유난히 눈이 부시다.

그렇게 되어나 보다. 그렇게, 의사가 되어나 보다. 어느 교수님께서 그러셨던가. 콩나물시루에 매일 물을 부어주면 그 물은 그대로 빠져나가지만 물이 흘러간 시루에 어느덧 자라나는 콩나물처럼 우리 또한 그럴 것이라고.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방대한 지식이 우리 뇌를 스쳐갈 뿐인 것 같지만 그것이 쌓여 어느새 의사가 되어있을 거라고. 이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의심의 화살을 내게로 돌리는 과정을 수십 번 반복한 뒤에야 알게 되겠지. 두고 볼 일이다. 잘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은 얼른 기숙사로 돌아가 노곤한 내 한 몸을 쉬게 하련다.

강 건너의 사람들

본과 3학년 정재현

누군가가 내게 종교를 물으때면 나는

“딱히 믿고 있는 종교가 없어요”

라고 대답을 했다.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날이면 친구 손에 이끌려 1년에 한번정도 교회를 가곤 했는데, 딱히 종교를 믿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날에는 다들 교회를 가기에 따라갔던 것 같다. 그러다 처음으로 종교에 대해 깊게 생각하게 된 게 군대에 있을 때였다. 매일 반복되는 근무와 작업에 서서히 지쳐갈 즈음, 리처드 도킨스가 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다. 이 사람의 글로 인해 나는 내가 지금껏 가졌던 종교에 대한 시각을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고 정말 머리를 한 대 세계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었다. 누가 어떤 종교를 믿건 종교 따위에는 전혀 관심조차 없던 내가, 책을 읽으면서 종교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품게 되었고 나아가 종교가 인간의 믿음으로 교묘하게 포장된 허구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후 다양한 서적들을 접하며 내 생각은 더 확고해 졌고, 이런 종교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더 확고히 하고자 복학하자마자 나는 첫 수업으로 종교학 강좌를 수강하였다. 토론 수업이었던 그 강좌에서도 나는 가장 극단에 서서 종교를 비판하였고, 종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어내라던 레포트도 나는 아주 신랄하게 내 나름의 근거로 종교는 허상이라고 비난하였다.

르네상스 이후 인간중심의 가치와 과학의 발전으로 중세시대에 절대적 지위였던 종교의 위상이 점점 낮아진 것은 사실이다. 당시에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은 신의 섭리라고 생각하였고, 종교가 말하는 것이 오직 진리라고 여겼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부분들이 과학에 의해 밝혀지게 되었고, 종교 또한 그 때의 종교와는 많이 달라졌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하며 천동설이 진리라던 종교인들이 지동설을 주장하는 천문학자를 사형시키던 당시의 종교는 지금은 사라졌다. 분명 시간이 흐르면서 종교가 차지했던 많은 부분들이 과학이 대체하게 되었고, 이러한 흐름으로 볼 때 앞으로 종교의 세속화는 피할 수 없으며 필연적으로 종교는 소멸할 것이라고 나는 확신했다. 그러다 문득 든 생각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을 믿고 종교를 가질까’

였다. 주일이 되면 수많은 신도들이 교회를 찾고, 성당에 가고 절을 찾는 이 현상이 나는 무척 신기했다. 분명 내 이성엔 종교는 허상이고 거짓인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왜 계속 종교를

믿고, 오히려 종교인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이러한 의문에 답하기 위해 나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지만, 한번 종교를 접해보기로 결심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신도수를 가진 기독교를 정하였고, 서울에서도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다닌다는 강남의 대형 교회를 정해서 꾸준히 나가보았다. 신이나 교리에 대한 믿음보다는 종교에 대한 내 비판이 맞다는 확신과 종교인들을 내 논리로 이겨보겠다는 알량한 자신감으로 처음 발을 내딛었던 것 같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는지 궁금증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나는 5년이 넘게 꾸준히 종교를 접하였다. 일요일에 교회를 가는 것뿐만 아니라 교내 선교 동아리에도 들어가 활동해보고 수련회도 가보고 심지어 직장에서도 신우회에도 들어갔었다. 이런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처음 가졌던 종교에 대한 생각은 아직 변하지 않았지만, 내가 품었던 궁금증에 대한 답은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내가 느낀 것은 종교 혹은 신이라는 존재가 실재하느냐 하지 않느냐하는 사실적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것보다는 다른 것이 대신할 수 없는 종교의 기능이 존재하기에 종교는 유지되고 종교인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한번 들어 보자. 지금도 신문을 펼치면, 높은 자살률, 우울감, 심리적 불안감 등에 관한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다. 과거에 비해 경이로울 만큼 과학이 발달한 현대사회이지만 오히려 인간은 더 고독해하고,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갈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개발된 그 어떤 약이나 기술로도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평안케 하고 심리적 고독을 없애주지는 못한다.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이 아직도 이러한 심리적 안정을 갈망하지만 아직까지 종교 이외에는 이를 대체할 만한 수단이 없어 보인다. 이처럼 종교가 가진 대체 불가능한 기능(힘들 때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고, 평안케 하며, 고독을 이겨낼 수 있는 기능들)이 존재하는 한 종교는 건재할 것이며 오히려 종교를 믿는 사람의 수는 점점 늘어날 것이다.

나는 지난 수년간 교회뿐만 아니라 천주교, 불교 심지어 이슬람교에도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해 보았지만 그 어떤 종교를 접해보아도 내가 처음 가진 종교에 대한 시각은 바뀌지 않았다. 어떤 때는 정말 나도 믿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진실로 믿음을 얻었을 때 얻게 되는 수많은 긍정적 변화들을 부러워하며 믿음을 가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기도 했다. 비록 그 믿음은 얻지 못하였지만, 내가 바뀐 것이 있다면 큰 강을 사이에 두고 나와는 다른 편에서 걷고 있는 다른 사람들, 즉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조르지아에서의 입찰

본과 3학년 정 재 현

조르지아(Georgia), 옛날에는 그루지야라고도 불렸던 이 나라로 우리가 입찰에 뛰어들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조금 당황했었다. 10년 전 즈음, 신문 1면에서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다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이 어렴풋한 기억 말고는 내가 아는 것이 전혀 없는 나라였기 때문이다. 찾아보니 러시아 흑해 연안에 인접해 있고, 조르지아 언어를 쓰며 '라리'라는 통화를 사용하는 나라라고 한다. 사원 1년 차에게는 이 정도의 사전지식만 있으면 충분하였고 그렇게 나는 3000억 짜리(3억불) 입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정확히 2달을 휴일도 없이 입찰서를 만들며 쉬지 않고 일했고, 그 결과물을 제출하기 위한 출국 날짜가 드디어 잡혔다. 마치 적진을 향해 뛰어드는 장수들처럼 우리는 무조건 수주하겠다는 각오로 비행기에 올랐다. 그런데 준비한 입찰서와 Technical Document의 양이 어찌나 많았던지 대형 캐리어백 4개 분량이나 나왔는데 이걸 혼자 끝먼서(모든 짐은 사원 1년차의 몫이다) 비행기를 탔는데 정말 이만저만 힘든게 아니었다. 한국에서 바로 조르지아로 가는 비행기가 없었기에 중간에 터키를 들러 잠시 기다린 후 조르지아로 가는 비행기를 탔다. 조르지아로 가는 비행기가 어찌나 작은지, 가다가 혹여 추락하지는 않을까 조마조마하며 비행기를 탔던 것 같다. 2달간 문서와 이메일로만 알던 이 낯선 나라를 드디어 두 눈으로 본다는 생각에 나는 잔뜩 기대를 하며 창가에 앉았다. 착륙할 때 즈음 하여 창밖을 보는데 그 광경에 나는 적잖이 당황하였다. 그 때가 늦은 밤이었는데 수도 트빌리시를 제외하고는 정말 불빛하나 없었고 어두컴컴한 땅과 들판 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보다 못 산다고 알고는 있었지만 설마 이정도 차이가 날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입찰 전 수주를 기원하는 술자리 모습. 대머리가 유전적이라고 확신하게 된 계기가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의 절반은 대머리였다.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공항에 들어섰는데 입국 심사대에서부터 우리는 사람들의 이방인을 경계하는 시선을 받았다. 그도 그럴 것이 정말 우리를 제외하고는 공항에 단 한 사람도 동양인이 없었기 때문이다. 긴장감 가득한 채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고, 무거운 캐리어를 양손에 끌고 우리는 공항 근처에서 택시를 잡았다. 두 대의 택시 기사가 있었는데 같은 목적지까지 요금이 2배 이상 차이가 나게 값을 불러 조금 당황하였다. 둘 중 가격이 저렴한

젊은 청년의 택시를 타고 우리가 묶을 숙소로 향하였다. 도로 중간에 잠시 주유소를 들렀는데, 차밖으로는 대머리에 약을 한 듯한 술취한 청년들이 우리를 보고 계속 중얼 거렸다. 그 순간 등 뒤로 식은 땀이 흐르면서 혹시 무슨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에 너무 무서웠다. 그래도 별 탈 없이 숙소로 도착하였고, 다행히 숙소는 5성급 호텔에 수도 한 가운데 있어서 치안에 대한 걱정은 그 때부터는 한결 덜 하게 되었다.

약 2주 정도 동안 현지에서 마지막 입찰을 준비하면서 조르지아의 하청업체들을 만나 최종적으로 금액을 정하고, 도로국 공무원들과 미팅을 하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금액을 만드는데에 열중하였다.

약 3000억원 규모의 큰 공사로 최저가 입찰 제도를 통해 Technical을 만족시키면서 금액이 가장 낮은 업체가 선정되기 때문에 마지막 2주 동안은 정말 피말리는 신경전이 시작된다. 단 1원이라도 상대 업체보다 낮으면 수주를 할 수 있지만 또 그렇다고 너무 낮게 금액을 쓰면 자국 회사가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금액을 잡는 것이 중요했다.

입찰 당일, 조르지아 도로국 한 회의실에는 일본, 중국, 이탈리아 그리고 우리 이렇게 4개의 업체가 입찰을 위해 모였다. 일본은 역시 예상한 대로 직원들 모두 말끔히 정장을 입고, 넥타이 까지 한 전형적인 일본인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국 업체는 허름한 잠바를 입은 지원 1명과 통역을 담당하는 듯한 대학생처럼 보이는 사람 2명이 같이 왔다. 중국의 입찰서 포장을 보고 조금 웃었는데 문서 양도 많이 적고 대충 테이프와 신문지로 둘둘 말아서 준비했기에 중국은 제쳤구나라는 안심을 했었다.



보르조미 광천수, 조르지아에서 유명한 음료이다. 나는 별 맛을 느끼지 못하였다.

이번 입찰 공사의 옆 공구를 이미 따서 공사가 시행중에 있는 일본업체를 우리는 가장 경계하였는데, Technical쪽은 우리와 우열을 가리기 힘들고, 정보적인 면에서 이미 1년 전부터 조르지아에서 공사를 하고 있기에 우리보다 훨씬 유리하게 금액을 써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이 중국인데, 중국은 금액은 가장 낮게 써낼 수 있겠지만 Technical에서 아마 요건을 갖추기 힘들어 탈락될 것이라 예상했다.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업체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 기술적인 면이나 금액적인 면 모두 경쟁력이 낮기에 별로 신경쓰지 않았다.



조르지아 도로국. 조르지아 언어는 구불구불 지령이 같다. 이곳에서 입찰을 진행하였다.

수 개월간 밤낮을 세워가며 완성한 입찰서가 공개되는 그 순간, 그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open할 때의 짜릿함은 정말 잊을 수가 없다. 그 만큼 열심히 했기에 떨어져도 후회는 없다는 생각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였는데, 정말 아쉽게도 아주 근소한 차이로 중국 업체가 선정이 되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중국정부가 CIS국가에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큰 금액의 차관을 제공하였기에 그 당시 대부분의 국가 공사를 중국이 모

조리 수주해 갔었다. 어찌보면 결과는 이미 정해진 싸움에 뛰어들어 썸이 되었지만 조르지아라는 생소한 나라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입찰을 해본 이 때의 경험은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입찰을 끝내고 돌아오는 차안에서 찍은 시내전경 모습. 중심가는 생각보다 많이 발전돼 있다.

호모 사피엔스의 생각

본과 1학년 윤민혁

‘호모 사피엔스 (Homo sapiens)’는 모두가 알다시피 현생인류를 일컫는 진화생물학적 용어이다. 그간의 영장류와 차별되는 이 종은 학명에서부터 ‘슬기롭다(sapiens)’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동물들이 듣는다면 스스로가 지혜롭다며 자아도취에 취해있는 인간을 비웃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인간을 제외한 어떠한 생물도 앞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그것에 대한 지적 추구를 실현하지 못한다. 가령 인간은 생물에 대한 호기심을 기반으로 DNA의 존재마저 밝혀내고 말았다. 심지어 뇌를 통하여 뇌를 연구하는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경지(?)에 이르렀다. 인간은 지적 호기심이란 깃발을 들고 진화학적 흐름에 있어 선봉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처음으로 접한 장벽은 골학과 해부학이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대다수의 동기들이 한정된 시간에서 방대한 양의 정보들을 암기한다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한편 카데바 실습이 시작되고 수업 중 배운 구조물을 실제로 확인할 때마다 동기들끼리 인체에 대한 신비함을 공감하였다. 이러한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한나절 동안 진행되는 힘든 실습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실습 시간 외에도 자기 몸의 muscle과 tendon을 들었다 놓으며 노는(?) 동기와 친구를 비롯한 온갖 사물에 의학용어를 갖다 대며 의대생 개그를 하는 동기 등은 쉽게 찾을 수 있다. 호모 사피엔스 자체인 친구들이 틀림없다.

입학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의학을 배우는 과정이 몸과 마음 모두 지칠 수 있는 것임을 느꼈다. 어떠한 동기나 목표가 없다면 버티기 힘들 수도 있다. 모두들 다양한 전공을 가졌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각자가 어떠한 학습동기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본능에서 유래되는 지적 호기심은 그 기저에 있다. 뚜렷한 학습동기가 없다고 해도 특정한 과목에서는 말쑥한 정신으로 흥미를 느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어떠한 전공을 가지는 의사가 될 것인가에 걱정이 있다면 자신의 DNA에서 유래되는 호기심을 믿어 보는 것도 어떨까?

한편, 슬기로움을 자칭하는 인간의 DNA는 그 이면에 이기심을 감추고 있다. 다음의 이야기는 모 생물학 교수의 진화생물학 강의 중 일부이다.

‘먼 옛날 두 동굴이 있었다. 한 동굴의 수장은 동굴이 더럽혀지고 무질서하게 되는 것을 싫어했다. 심지어 철쭉 같은 밤 손자가 용변을 보려는데 밖이 무서워 동굴을 이용하려 했으나 밖으

로 쫓았다가 짐승에 물려 가버렸다. 다른 동굴의 수장은 그야말로 방탕한 생활을 즐겼다. 누가 더럽히던 방치하다가 또 다른 동굴을 찾아 나서면 그만이었다. 야생에서 살아남아 인간의 조상이 된 무리는 후자였다.’

조금 무리한 비유일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인간의 본성은 Ego-centric이며 자신의 이익에 배반되는 행동은 꺼려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대사회에서도 이러한 형태는 쉽게 뉴스로 접할 수 있다. 슬기로우름을 학명에 쓰는 인간이 오늘날에는 그것을 서로의 이익에만 사용하며 결국에는 스스로의 목을 옥죄고 있으니 아이러니한 일이다.

우리는 신입생으로 첫 학기를 시작하기 직전까지 충분히 이기적인 입시 경쟁을 몸소 겪어왔다. 남을 딛고 일어서야 무언가를 이루고 얻을 수 있는 구조에 너무 익숙해져 온 것이다. 공존이란 개념이 낯설고 ‘일단 내가 먼저 살고보자’는 마인드가 지배하는 세상이다. 하지만 정작 내가 살아남은 후 되돌아보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의학을 배우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경쟁자들이지만 미래의 동료 의사들이다. 앞만 보며 달려온 입시 경쟁 중에 깨운 Ego-centric한 본성을 이제는 조금 억누르고 옆을 둘러 볼 마음의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미래의 환자에게 자신의 이익을 들이대는 의사가 아닌 휴머니즘을 품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 진정한 의미로서의 호모 사피엔스 의료인이 되면 멋지지 않을까?

일곱 . 여행과 여가

- ▶ 힐링...김광석과 함께 - 김혜진
- ▶ 삶을 담은 찰나, LIFE 사진전 - 박혜진(90)
- ▶ 누가 런던을 맛 없는 도시라 했는가 - 강주연
- ▶ 뮤지컬 <모차르트!> - 강주연
- ▶ 자전거 나들이 - 전온유
- ▶ 기차, 여행, 성공적 - 이소래
- ▶ 이 공연 갈 수 있을까? - 이혜진
- ▶ 열심히 공부한 우리들 즐겨라 - 박혜진(90)



힐링... 김광석과 함께

본과 2학년 김혜진

이름에 들어와서 본 선배들의 글 중 본과 4학년 조연중 선배의 '가을 하늘 아래 대구 골목투어!'라는 글을 본적이 있다. 그 글을 읽고 학기 중에 나들이를 가려고 했으나 알코올과 해부학 쓰나미에 밀리고 생화학, 생리학 토네이도에 휩쓸려 여름방학이 되고 나서야 골목투어를 가기로 마음먹었다. 드디어 본격적인 대구 골목투어~! 함께 꼬우~!!!!!!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김광석 거리! 위치는 우리 명의관에서 보도로 약 1.06km로 16분정도 걸린다. 처음에는 대구시민들이 방천재시장을 살리기 위한 취지로 김광석이 어린 시절 살던 곳을 테마로 꾸민 것이라고 한다. 미리 김광석의 생애를 알고 간다면 그곳을 더 깊이 마음속에 담아올 수 있을 것이다. 김광석 거리는 350m밖에 되지 않는 짧은 거리지만 이곳에서는 고인의 음악 인생을 짧게 압축시켜놓은 것 같다.

이런 멋진 거리에 왔으면 당연히 볼거리와 음식도 빼놓을 수 없는 법! 대구 토박이 친구들에게 물어 물어 가본 김광석 거리의 볼거리와 맛집 중 몇 군데를 소개하고 싶다.

1. 김광석이 살아숨쉬는 김광석 조각과 사진들!



김광석 거리의 입구에 도착했음을 알 수 있는 김광석 조각상!! 김광석을 추모하는 취지에서 조각가 손영복씨가 만들었다고 한다. 이곳에서 사람들이 기념사진을 많이 찍는데 주말이면 줄서서 사람들이 찍을 만큼 유명하고 아름답다.

조각상을 지나 들어가다 보면 어릴 때 즐겨먹던 뽕기와 쫄면 등 추억의 식품(일명 불량식품)들도 눈에 띈다. 내가 갔을 때에는 다른 가족들이 나란히 앉아 뽕기를 하는 바람에 쫄면을 구입하지 못했다.T.T

이곳을 걸으면서 느낄 수 있는 한 가지 묘미가 바로 김광석과 관련된 벽화와 사진들이다. 김광석 거리의 한쪽 벽 전체가 벽화와 사진, 그리고 그의 삶과 관련된 시와 글로 가득 차있는데 이것을 읽고, 보고, 느끼면서 마음을 힐링 할 수 있다.

여기서 끝인가? No~!! 거리 곳곳에서는 김광석의 음악이 퍼져 나와 이 거리에 있을 때 만큼은 김광석과 함께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김광석 거리에서 노래가 나오는 시간은 평일에는 오후 2시~ 6시까지이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흘러나온다. 공짜로 멋진 음악도 듣고 눈과 마음까지 즐거운 곳! 여기만한 곳이 또 있을까!!!!?

2. 김광석 길에 왔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것을 먹어라! 로라방앗간의 치즈떡도그~!

앞서 소개한 김광석 조각상을 지나 메인스트리트를 따라 걸어가다 보면 고소한 냄새가 발길을 이끄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로라방앗간이다. 떡볶이와 튀김도 팔지만 그중 으뜸은 바로 치즈떡도그!!!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말을 하지 마시라~ 바로바로 조리해서 나오는 이 치즈떡도그를 한손에 들고 김광석 거리를 돌아다니면 출출한 배도 진정시키고 거리를 감상할 수 있는 마음의 눈까지 확~떠질 수 있을지도?!!

3. 더위에 지쳐 쓰러질 것 같을 때에는 당을 섭취하자! 마카롱 굽는 화가~!

이곳은 말 그대로 화가아저씨가 마카롱을 구워준다. 평소에 마카롱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여기서는 마카롱을 한꺼번에 8개를 해치워버렸다. 그리고 대프리카의 더위를 시켜줄 아이스아메리카노와 함께……. 마카롱과 차 한 잔으로 잔잔한 여유를 즐기는 것도 추천!

4. 배고픔을 이끌고 친구들과 김광석 거리에 갔다면? 투뿔로~!!!!

김광석 거리의 유명한 먹거리 중 하나는 바로 투뿔이라는 한우집이다. 덩어리로 고기나 나오는데 투뿔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불쇼다. 덩어리로 나오는 A++ 한우에 실제로 종업원이 불을 붙여 화르르르~ 타오르게 한다(종업원이 고기 구워주다가 나오라고 해서 당황했던 기억이.....). 윤기가 도는 고기를 잘라 씹으니 육즙이...‘아... 또 먹고 싶다. 여기가 천국인가. 또 와야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맛있는 고기집이다. 거기다가 밑반찬도 깔끔하고 종류가 많아 골라먹는 재미까지 있으니 친구들과 저녁 식사로 안성맞춤~

거리를 거닐다 ‘서른즈음에’라는 곡이 흘러나왔다. 내가 곧(:) 겪을 일이라 그런지 김광석 특유의 편안한 목소리가 내 마음속에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김광석은 참 많은 명곡을 남겼는데 그 노래들로 한 학기동안 알게 모르게 받은 스트레스를 치유 받게 되는 것 같았다. 비록 350m라는 짧은 거리였지만 김광석의 자취를 느낄 수 있었다. 마음이 힘들거나 여유가 필요할 때에는 기숙사에서 가까운 김광석 거리에 가서 그의 향기에 취해보는 것이 어떨지.....



살을 담은 찰나, LIFE 사진전

본과 2학년 박 해 진(90)

지난 여름 대구에서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정작 대구 시민들은 잘 모르는, 생각보다 유명한 전시회가 대구에서 자주 열린데요, 오히려 타지역 사람들이 전시회를 보기 위해 대구를 찾기도 합니다. 저도 시험 전 마음의 여유가 없어 너무 답답했던 찰나, 유럽 여행에서 만난 친한 친구가 서울에서 내려와 ‘그런 전시회가 대구에 있다며?’ 하기에 바람도 쉴 겸 가게 되었어요. 한적한 분위기를 생각하고 전시장을 찾았는데, 전시회 막판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랑 제 친구 모두 사진이라곤 셀카 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라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사진을 하나하나 구경했습니다. 설명을 듣는 것은 장단점을 모두 갖고 있었습니다. 몰랐던 역사적 사실들을 이야기하듯 들을 수 있었던 점은 좋았지만, 보이는 것만 보인다는 말처럼 그 외의 상상은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고보면 그 친구와 파리 루브르박물관에서 생판 처음 보는 그림을 보며 우리끼리 제목을 짓고 깔깔거리고 했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는데 말이죠.

모든 전시 작품들 중에서도 확실히 압도적인 인상의 사진들은 총과, 눈물과, 빈자리가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많은 의미들을 순간적인 한 장에 표현했어야 하기에 큰 의미 전달을 위해서는 그만큼 강렬한 순간이었어야만 했던 걸까요. 그 사진들을 보며, 지금 이 사진 속 주인공들이 전시장에 나타난다면, 사진을 보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했습니다. 그래봐야 너흰 그때를 이해 못 해, 꺾어보지 않았으면 말도 말라고 타박할까요. 아련한 사진으로 미화된 순간들에 쓸쓸해 할까요. 글썄요. 그저, 남겨진 세대는 그 순간을 직접 겪을 수는 없기에 이렇게나마 가까이 다가갈 기회를 사진사들이 준 거겠죠.

전시회를 친구와 함께 돌아보면서, 같은 사진을 보면서도 사람마다 받는 느낌이 다른 것이 무척 재미있었습니다. 그림이야 작가의 주관적 생각이 이입되는 것이기에 그런 것이 당연하지만, 사진은 객관적으로 주제를 표현한다고 생각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 친구는 지금도 군대에서 만난 친구들과 가깝게 지내서인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전우를 안고 있는 군인의 사진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제 발목을 한참이나 붙잡고 있었던 사진은 지금 왼쪽에 놓여진 사진입니다. 저는 종교나 절대자의 존재는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제가 세상에 존재하고 이 모든 것이 허구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죠. 언젠가 지구가 태양에 타 없어지고, 더 이상 우주에 인류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1+1은 2라는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진

리임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과학이란 제가 스스로의 존재를 믿을 수 있게 해주는 종교인 것이죠. 그렇기에 이 한 장의 사진에 저는 울고야 말았습니다. 그의 존재와 그의 부재로 세상을 바꾼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죽던 날 그의 연구실 사진이에요. 학부 때 현대물리 시험공부를 하며 그렇게 원망도 많이 했었는데, 나는 그를 지금껏 공식으로만 만났을 뿐이었는데, 이 사진을 보자마자 저 의자에 앉아있는 그가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전시회를 보기 전까진, 사진사들은 한 장의 사진을 만들기 위해 셔터 하나 누른 것이 전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이란 건 '어떤 것'의 보여지는 모습일 뿐이라고 생각했었죠. 이제 그렇게 넘겨버리기엔, 한 장의 사진으로 받은 위로가 너무나 큼니다. 학부 4년동안 나를 열심히 공부했던 공학지식들이 의전원에선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서 지금껏 투덜대던 제게, 사진들에 담겨있던 순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 순간 참 재밌지 않았냐며. 그래요, 그거면 된 거죠.



누가 런던을 맛없는 도시라 했는가

본과 2학년 강 주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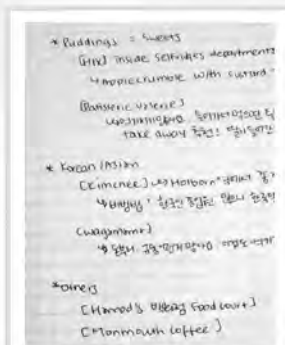
"Heaven is where the French are the chef, Italians lovers,
and the British the police.

Hell is where the British are the chef, the Swiss the lovers,
and the Italians the police."

(천국에는 프랑스인이 요리사이고, 이탈리아인이 배우자이며,
영국인이 경찰이다.

지옥에는 영국인이 요리사이고, 스위스인이 배우자이고,
이탈리아인이 경찰이다.)

유럽 사람들이 흔히 갖고 있는 편견이자 익히 들어봤을 농담이다. 그러나 영국인 요리사가 있는 곳이 지옥일 것이라는 편견과는 달리 내가 영국 런던에 작년에 이어 다시 간 가장 큰 이유는 다름아닌 그곳의 음식을 다시 먹기 위해서였다. 나는 먹는 것을 좋아하고 먹을 것을 보는 것을 좋아하며 먹었던 것을 기록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야말로 "맛집 순례자"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1월 3일, 이 맛집 순례자는 런던에 당도해 짐을 풀고 가장 먼저 옥스퍼드 거리로 향했다. 마침 숙소가 워렌 스트리트역에 있어, 런던에서 평소에 보기 힘든 좋은 날씨를 만끽하기 위해 산뜻한 마음으로 (사실은 고픈 배를 움켜쥐고) 거리로 나섰다.



내가 세운 야심찬 맛집 계획서



옥스퍼드가 Warren Street에서 지하철 한정거장 거리.



식당은 물론 유명 브랜드 옷가게가 즐비한 변화가 Oxford street

런던은 옛날에는 (옛날이라 함은 무역이 막 시작되었을 즈음, 물자 교환이 미처 활발하지 못해 열악한 기후 속에서 영국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자급자족해야했던 그 옛날 옛적을 말한다. 그러니까 위의 농담은 그때 쯤 만들어졌거나, 그 시절 런던을 트집 잡고 런던너들을 조롱하는 유

럽인의 장난일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 마땅한 식재료가 부족해 음식이 맛없기로 소문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나라의 위상이 급부상하고 유럽의 콧대 높은 회사와 은행이 밀집하면서 런던에 세계의 내로라하는 주방장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 런던의 중심가에는 영국 음식 피시 앤 칩스 보다는 유명한 외국 음식점이 줄지어 생기고 있다.

도착해서 가장 먼저 간 곳은 미국식 스테이크 가게 "Flat Iron"이다. 투박한 칼과는 달리 질 높은 고기만을 엄선해 그 주의 메뉴를 선정해서 파는 이 스테이크 가게에는 한국인들이 유난히 많았다. 작년 이맘때 갔을 때에는 내가 유일한 동양인이었던 것 같은데, 그사이 입소문이 났는지 줄을 서고 보니 내 앞뒤로 한국인들이 연이어 서 있는 것을 깨달았다. 악명 높은 런던 물가에 비해서는 저렴한 편인 이곳 Flat Iron의 또 다른 별미는 로즈 레모네이드이다. 런던에서는 해롯 백화점 식품관 이외에서는 본 적이 없는 장밋빛의 레모네이드는 밥 없이 고기만 먹으면 생길 법한 느끼한 식감을 이내 사라지게 한다.



〈Flat Iron〉 투박한 칼과 medium well done의 Flat Iron steak.



〈The Ping Pong〉

를 주문하면 딤섬 한 세트와 데리야키 덮밥까지 준다. 역시 물가 비싼 옥스포드가의 음식 중에서는 저렴한 편이라 더할나위없이 좋다.

그리고 다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곳은 딤섬가게 "The Ping Pong". 서빙도 중국인이 하고 요리도 중국인이 하는 퓨전 딤섬가게이다. 영국인들의 입맛에도 썩 잘 맞는지 영국인들도 더러 보였다. 비용 대비 가장 효율적인 메뉴인 세트

이렇듯 일품의 외국 요리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런던에 갔으면 빠질 수 없는 것이 피시 앤 칩스 아니겠는가. 지하철역에서 내려서도 세 블럭 쯤 걸어야 나오는 후미진 곳에 "The Golden Hind"가 위치하고 있다. 런던과 교외 도시를 다녀 봐도 이만한 피시 앤 칩스 가게는 없었는데, 알고 보니 100년이 넘는 전통을 갖고 오로지 피시 앤 칩스만 깨끗하게 팔아 온 전통 있는 곳이었다. 본드스트리트역에서 나와 매릴본 거리를 걷다 우연히 발견한 이곳은, 3시까지 break time이고 6시부터 다시 영업을 시작한다는 팻말만을 보고 용기를 내 들어섰던 곳이다. 맛집을 순례하며 깨달은 교훈은, break time이 긴 식당은 주로 시쳇말로 "아쉬울 것 없는" 식당인 경우가 많으므로 그곳은 마치 우리나라의 무궁화표 음식점과도 같다는 것이다. 이 곳도 마찬가지로

다. The Golden Hind 에서는 술은 팔지 않는다. 그래서 피시 앤 칩스와 함께 맥주를 한잔 하고 싶다면 근처에 있는 Tesco 마트에서 맥주를 한 병쯤 사 가는 것도 좋다 (단골 손님인줄 알고 더 큰 대구를 튀겨줄 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곳은 위의 어느 식당보다도 싸다. 런던에 가서 피시 앤 칩스를 먹었는데 별로 맛은 없더라, 고 하는 지인이 있었다면, 그것은 The Golden Hind에 가보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The Golden Hind>
Cod와 chips, 그리고 내가 사간 것은 어느 British Ale.

그 외 유명한 영국 음식점으로는 영국에서 탄생한 수제 햄버거 "The Byron," 유명한 영국 식요리사 Jamie Oliver의 "Jamie Oliver Diner"와 "Jamie Oliver's Union Jack" 등이 있다. 그리고 내가 런던에서 가장 사랑했던 곳 Covent garden의 Monmouth coffee에서는 받아서 한 모금 들이키는 순간 "음~"을 연발할 수 있는 최고의 커피를 내려준다.



Jamie Oliver Union Jack의 대표 메뉴와
홈메이드 진저에일



(감동의) Monmouth coffee

물론, 런던에 한 달 남짓 있으면서 위의 식당들은 물론이고 다른 식당에도 많이 갔다. 분명한 것은 단 한 끼니도 입맛이 없다거나 먹을 것이 없어서 거른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특히 식욕이 들끓는 여자이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둔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내 브런치를 책임져 준 단골 카페를 운영하는 이탈리아인 셰프와는 헤어지면서 아쉬운 작별인사를 나누기도 했고, 후식을 거나하게 그러나 여유롭게 먹고 떠나는 아시안 소녀가 흥미로웠는지 갈 때마다 이래저래 말 붙이는 "HIXX"의 영국인 알바생도 있었다. 영국은 먹방의 도시이며 미식가의 천국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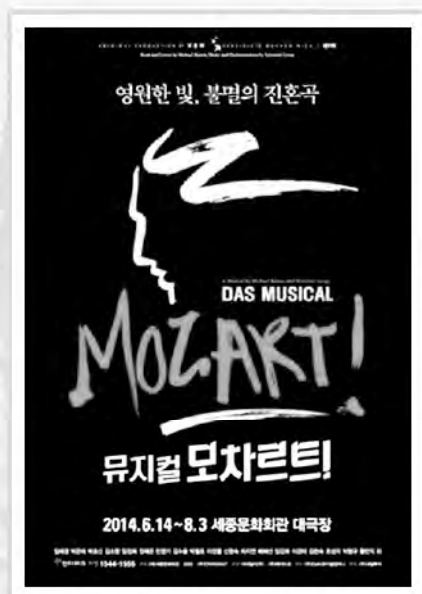
자, 이렇게 먹을 것이 많은데 누가 런던을 맛없는 도시로 매도했는가. 혹시라도 영국에서 무엇을 먹어야 할지 고민이라든가, 런던에 먹거리가 없어 고추장을 한 주먹 싸가는 여행객을 목격한다면 반드시 그것은 헛소문이며 편견이라고 말해준다. 오히려 먹을 것이 너무 많으니 쇼핑할 생각 말고 식대를 넉넉히 들고 가는 것이 현명하다는 오지랖 넓은 조언도 부탁하며 이 글을 마친다.

뮤지컬 <모차르트!>

본과 2학년 강 주 연

영화 <아마데우스>가 수년 전 한국에 당도했을 때, 발랄한 천재의 일생을 그린 영화는 미완성 레퀴엠과 함께 짙은 여운을 남겼다.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모차르트 탄생 500주년을 맞이해 축제를 열자, 많은 한국인들이 전설 속의 음악가가 남긴 자취를 찾아 잘츠부르크로 향했다. 최근에는 모차르트를 경외하고 동시에 질투했던 비운의 음악가 살리에르를 다룬 뮤지컬 <살리에르>가 한국에서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다. 유행과 단일화가 난무했던 대한민국에 별안간 모차르트 바람이 불었다.

3년 전,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의 멤버인 김준수가 모차르트 뮤지컬에서 볼프강으로 분해 노래했다. 모두가 반신반의했던 아이돌의 데뷔는 그야말로 '대박'이 났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정기적으로 공연되는 뮤지컬 명성황후가 어설픈 무대 연출과 플롯의 산만한 전개로 비난을 샀던 반면, 창작뮤지컬의 판도를 바꾼 Das Musical Mozart!는 세종의 오명을 삼시간에 씻어냈다. 모차르트의 초연 성공은 이후 두 번째, 세 번째 공연의 밑거름이 되었고 작년 네 번째 공연을 하게 되었다. 뮤지컬 모차르트는 <지킬 앤 하이드>, <아이다>와 함께 가장 보고 싶은 뮤지컬로 손꼽히고 있다.



그렇게 뮤지컬 팬들의 기대를 안고 드디어 네 번째 공연의 베일이 벗겨졌다. 8월의 첫날에도 뮤지컬은 계속되고 있었다. 서울에서 처음 전국 공연을 시작한 이후 서울 공연은 막바지로 내달리고 있었다. 제법 서늘한 여름 바람이 불고 광화문 뒤로 노을이 질 때 즈음, 세종문화회관은 아련한 조명으로 불을 밝혔고 광화문 광장은 한껏 들뜬 관객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이 많은 사람들의 뮤즈가 모차르트라니. 모두의 기대 속에 볼프강과 친구들이 등장했다. 합창은 유쾌했고 무대는 화려했다. 대학로의 김수로 프로젝트 이후 연극에 물이 오른 임정희와, 특이한 음색으로 매니아 층을 형성한 박효신, 그리고 박효신과 함께 볼프강을 맡아 화제가 된 뮤지컬 배우 박은태가 참여했던 것은 뮤지컬의 인기를 끌어올렸다. 신영숙의 정확하고 파워풀한 아리아는 연신 우레와 같은 박수를 자

아냈다. 또, 자칫 촌스러울 수 있는 드럼과 심벌을 마음껏 집어넣은 작곡가 실베스터 르베이는 그 어떤 규율에 의해서도 속박되지 않는 모차르트를 동경하는 듯 자유롭고 파격적인 비트를 뮤지컬 전반에 사용했다.

뮤지컬 <모차르트!>는 클래식에 익숙한 사람들과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모두에게 다가가기 쉬운 뮤지컬이었다. 다만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작곡한 많은 곡들 중 아주 일부만 짜깁기 되어 있어, 클래식을 주제로 한 창작뮤지컬의 한계가 드러난 것 같아 아쉬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뮤지컬 <모차르트!>는 많은 라이선스 뮤지컬 중에서도 큰 인기를 끈 작품으로 수년간 인정받았고, 한국 관객만을 위한 뮤지컬로 진화하는 성공적인 첫 걸음이 되었음은 틀림이 없어 보였다.

자전거 나들이

본과 1학년 전 온 유

수많은 시험과 실습에 치이고 잠깐의 틈이 나면 어디로 나들이가야 할지 생각이 많아진다. 과감하게 대구를 벗어나볼까 생각해보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고, 학교 주변은 이미 둘러본 곳 뿐이다. 이내 나들이는 단념하고 방안에서 모든 시간을 다 보내게 된다. 그러나 대구를 벗어날 필요도 없이 교외의 호젓한 경치를 즐길 수도 있고, 학교나 방으로부터 짧은 시간에 멀리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자전거타기이다. 개인 자전거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대구 시내에 위치한 지하철역사 중 대부분의 역사에서 무료로 자전거를 대여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목록에 있는 역사에서 무료로 자전거를 대여해 준다.

1호선	대곡역	2호선	문양역
	진천역		대실역
	월배역		강창역
	월촌역		계명대역
	성당못역		성서산업단지역
	현충로역		이곡역
	영대병원역		용산역
	명덕역		감삼역
	칠성시장역		반월당역
	신천역		경대병원역
	동대구역		대구은행역
	큰고개역		범어역
	아양교역		만촌역
	동촌역		대공원역
	울하역		연호역
	신기역		신매역
	반야월역		사월역
			정평역
			임당역
			영남대역

환승역이거나 변화가에 있는 역사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대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대여가 처음이라면 역무실을 방문하여 회원가입을 한다. 회원가입은 무료이며, 한번만 회원가입을 하면 이후로는 회원가입 시 필요했던 개인정보를 번거롭게 제시할 필요 없이 이름과 연락처만 적고 대여할 수 있다. 오전 6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8시까지 대여가 가능하며, 반납은 당

일 밤 10시까지만 하면 된다.

빌렸던 역으로 반납해야 한다는 점이 단점이다. 원래라면 왔던 길만큼 돌아서 가야하겠지만 이런 단점은 자전거를 가지고 전동차를 탈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면 해결이 가능하다. 자전거를 많이 타고 왔는데 돌아가는 길이 전체적으로 오르막이라거나, 너무 많이 와버려서 돌아갈 체력이 남지 않았다면 근처에 지하철역이 있는 지 확인하고 그 역에서 자전거를 가지고 전동차를 탑승하면 대여했던 역까지 이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경로를 설정할 때 지하철역이 연결되는 곳으로 하면 만약의 상황에도 너무 지치지 않으면서 자전거를 반납할 수 있다.(상세한 내용은 후술함) 전동차 내에는 주말 및 공휴일에만 자전거 반입을 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긴 하지만 보통 여가시간은 주말이나 공휴일에 갖게 된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큰 제약은 아닐 것이다. 평일에 자전거 대여를 할 생각이라면 전동차에 자전거를 실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자전거는 21단자전거나 미니벨로(바퀴가 작은 자전거, 마려된 대수가 적음)를 대여할 수 있다. 무료대여자전거이긴 하지만 성능 면에서 일반적인 자전거도로를 주행하는 데 문제는 없다. 자전거를 타기 전 자전거의 상태를 점검한다. 브레이크 상태를 점검한다. 최대의 힘으로 핸드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바퀴를 손으로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꽉 물 수 있어야 한다. 공기압도 점검한다. 공기압이 너무 낮으면 지면과 접촉 면적이 넓어져 마찰로 인해 속도가 잘 나지 않으며 금방 지치게 된다. 손으로 힘껏 집었을 때 약간 들어가는 정도여야 한다. 단, 여름에는 지나치게 공기압이 높지 않도록 한다. 거치된 자전거 중 공기압이 적절한 자전거가 없다면 역사 내에 있는 공기압 보충기를 사용한다. 물론 공기압을 직접 조절할 때에도 위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외의 장비로는 자물쇠만이 지급될 뿐, 일체의 안전장비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개별로 준비해야 한다. 헬멧 정도는 준비하자. 자전거 도로에 장애물이 자주 등장하며 사람들도 많이 통행하는데다 도로에 흙이 파져 있기도 하기 때문에 스스로 안전은 챙기도록 해야 한다.

대부분의 역사에서 자전거를 대여할 수는 있지만 자전거도로와 연계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도로와 함께 주행하다보면 안전상의 문제와 함께 신호가 많아 자주 가다 서다를 반복해야 한다. 자전거도로와 연계되며 볼거리도 많은 역사를 4군데 소개하려고 한다.

(1) 2호선 경대병원역

기숙사나 학교에서 교통비를 전혀 들이지 않고 도보로 가볼 수 있는 역이다. 필자의 경험을

빌리면, 경대병원에서 자전거 나들이를 출발하는 쪽이 가장 볼거리가 많다. 경대병원역에서 자전거를 끌고 나와서는 어디로 가든 일단 신천 방향으로 향하는 게 좋다. 신천에서 가창(파동) 방향으로 가려면 2번 출구 혹은 2번 출구와 연계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간다. 수성교 쪽으로 가다가 보면 김광석길이 나온다. 자전거를 천천히 굴리며 김광석길을 지나고, 이내 신천으로 내려가는 자전거도로를 찾을 수 있다. 신천에 닿아서 우회전하여 계속 저어가면 파동, 더 멀게는 가창면까지 가볼 수 있다. 가창면까지 가지 않고 도중에 다리를 건너 더 저어가면 수성못에도 금방 닿을 수 있다. 단, 이 코스에는 돌아갈 체력이 고갈되었을 때 자전거를 실을 수 있는 지하철역이 전혀 없다. 따라서 자신의 체력을 잘 계산하여 경대병원역까지 온전히 자전거만으로 이동해서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요지점까지 편도 소요시간: 가창면 약 30분, 수성못 약 25분

동촌유원지 방면으로도 갈 수 있다. 언급한 경로에서 신천 자전거도로로 내려왔을 때, 우회전하지 말고 좌회전해서 계속 진행한다. 진행하던 중 자전거로 건널 수 있는 다리를 만나면 일단 건넌다. 그렇게 하면 신천의 동쪽 자전거길을 따라 진행하게 된다. 그대로 계속 진행하면 동촌유원지까지 갈 수 있다. 혹시 돌아올 체력이 고갈되었다면 동촌유원지 근처에 동촌역이 있으므로 전동차에 실어서 다시 경대병원역으로 돌아올 수도 있을 것이다.(환승 한번은 필요)

-주요지점까지 편도 소요시간: 동촌유원지 약 40분

신천에 내려와서 좌회전 한 뒤 신천을 건너지 않고 진행하면 신천의 서쪽 변을 따라 진행하게 되는데, 계속 진행하면 금호강 자전거길을 만나게 되고 강정고령보에까지 이른다. 다만 강정고령보까지의 거리도 멀고 자전거도로 치고는 경사의 변화도 심한 편이다. 체력이 고갈되었다면 강정고령보까지 가거나 경대병원역까지 돌아오는 대신에 강창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주요지점까지 편도 소요시간: 강정고령보 약 1시간 10분, 강창역 1시간

(2) 2호선 강창역(대실역)

2호선 강창역을 나와 2번출구에서 계속 진행하면 금호강을 만난다. 다리를 건너 죽곡청아파트 옆길로 계속 진행하면 강정고령보를 만날 수 있다. 강정고령보는 낙동강과 금호강이 만나는 곳이고, 강정고령보를 지나서는 계속 낙동강자전거길로 이어진다. 인기 포인트인 만큼 자전거가 모두 대여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15분 정도만 더 걸어서 다리건너 대실역을 이용할 수도 있다.

-주요지점까지 편도 소요시간: 강정고령보 약 15분



강정고령보

(3) 1호선 동촌역

(1)에서 이야기한 코스와 이어지기도 하고, 여기서는 금호강 자전거길을 따라 라이딩이 가능하다. 금호강변을 따라 가다가 율하역과도 연결이 되고, 경대병원역에서 출발해 동촌역까지 갔다가 되돌아올 때 경대병원역까지 돌아오기 힘든 경우 도중에 칠성시장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할 수도 있다. 동촌 유원지와 그 주변에 펼쳐진 경치를 감상하며 라이딩을 즐길 수 있는 코스이다. 율하역이 있는 동네를 지나서는 더 이상 자전거길이 없으며 돌아오거나 지하철을 이용해야 한다.

-주요지점까지 소요시간: 동촌유원지와 인접

(4) 1호선 대곡역

대곡역 4번출구로 나가서 약간만 진행하면 자전거도로와 연결이 된다. 자전거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으며, 약 10분간 진행하다보면 낙동강 자전거길과 연결되어 (2)에서 이야기한 강창역 및 강정고령보까지도 연결이 된다. 자전거도로로 내려가지 않고 3번출구로 나가서 우회전하면 대구 수목원으로도 갈 수 있다. 대곡역이 1호선의 종착역이므로 자전거도로와 연결되는 지하철역이 1호선에는 없다. 대신 상기한 대로 낙동강 자전거길로 가서 강창역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전거를 타고 나들이도 즐기고 운동 양을 확보하면서도 체력단련실 등에서는 느낄 수 없던 시원한 바람이 땀을 식혀주는 기쁨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

#기차, #여행, #성공적

본과 1학년 이 소 래

방학이 다가오면 우리들은 제각기 다양한 여행 계획을 세우는데요, 저는 입학하기 얼마 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친구와 단둘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해외를 갈 것인가, 국내 여행을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다 만25세 이하의 청소년(?) 들만의 특권이기도 한 ‘내일로’를 통해 6박 7일간의 재미있는 추억을 만들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쉬웠던 것과 좋았던 것을 정리해서 몇 가지 팁으로 묶어봤습니다.

1. 지선을 적극 이용하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호남선’이나 ‘경부선’ 이외에도 코레일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열차 노선들이 존재합니다. 한번에 가는 경우도 있고, 목적지까지 한번 쯤 내렸다 다시 타야 하는 경우도 생기지만, 1주일 동안 무제한으로 기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활용한다면 같은 거리도 기차 칸과 기차 칸 사이에서 서서 이동하는 대신 편히 앉아서 이동할 수 있다는 점!

2. 여행 계획을 세울 때 ‘맛 집’ 만큼이나 ‘불거리’ 에도 신경을 쓰자.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요즘 국내여행을 떠날 때에도 해외여행을 떠날 때에도 ‘맛 집 탐방’의 키워드를 가지고 여행 많이들 하시죠? 저 역시 이번 겨울 내일로를 떠날 때 친구와 심혈을 기울여 검색한 ‘맛 집 리스트’를 가지고 다녀 왔습니다. 하지만, 사실 먹는 것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아쉬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정작 다녀와서 돌아보니 ‘전주 맛 집’ 보다는 친구와 밤에 다녀온 ‘오목대 야경’ 같은 것이 더 기억에 남더라고요. 먹을 것만큼이나 보고 느끼는 것에도 많은 비중을 두고 꼼꼼하게 알아보는 것이 좋은 여행을 만드는 팁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맛 집은 시내버스에서의 그 지역 아주머니와의 수다나, 택시 기사 아저씨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도 덧붙여 전해드릴게요.

3. ‘기차’ 여행이라는 점을 적극 활용하자.

내일로 여행을 계획하다 보면 일반 열차 외에도 정동진 역에서 탈 수 있는 ‘바다열차’나 서울역에서 탑승 가능한 ‘DMZ-train’ 등의 특별 열차를 보다 할인된 가격에 이용가능 합니

다. 저도 친구의 추천으로 인해 타기 전까지는 굳이 또 추가 운임을 지불하면서 기차를 타야 하나? 라고 생각했지만, 바다 열차를 타고 탁 트인 동해 바다를 보았던 시간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4. 여행 계획을 세울 때, 대중교통 시간을 고려하자.

많은 것을 보고, 맛보고 싶은 마음에 뽐뽐한 여행 계획을 세울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관광지'라고 생각하는 시 단위의 도시들은 대중교통이 지금 우리가 지내는 대구나 아니면 서울만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 못합니다. 실제로 제가 순천역에서 순천만까지 가는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에서 30분 가까운 시간을 기다려야 하기도 했고, 여수에서는 버스를 타겠다고 알아왔던 시내버스가 하루에 4대 밖에 다니지 않는 버스여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느라 생각지 못한 지출이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시내버스 노선표나 배차간격까지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구하기 힘든 경우도 있고, 또 알고 있는 사실과 실제 운영 간격이 다른 경우도 종종 있으니 소도시를 여행할 때에는 일정을 조금 넉넉하게 계획하는 것도 즐거운 여행을 위한 또 다른 팁이에요.

이 공연, 갈 수 있을까?

본과 1학년 이 해 진

동인동 2가를 벗어날 수 없는 숙명을 지닌 운명공동체들은 항상 그곳을 벗어날 꿈을 꾸다. 하지만 집과 학교만을 오가는 반복되는 일상과, 강의와 시험의 끊을 수 없는 고리의 연속에서 일탈할 만한 아이템은 잘 떠오르지 않는다. 이런 우리가 잠시나마 모든 걱정과 스트레스를 잊을 수 있게 할 만한 것은 정녕 없을까? 그래서 준비한 학년 별 시험걱정 없이 갈 수 있는 공연리스트!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대구경북에서의 공연들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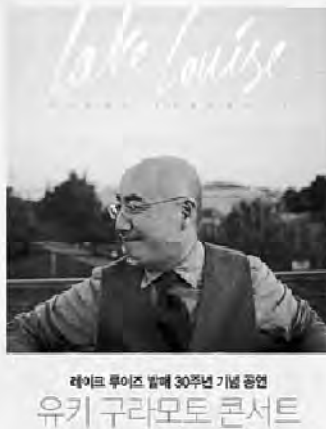


공연	청년 대구로 합창 페스티벌 - 경산	
일자	2015년 5월 2일 토요일 17시 30분	
장소	영남대학교 노천강당	
소개	조용한 일상에 몸과 마음을 두근거리게 할 비트를 느낄 수 있는 합창 페스티벌입니다. 공연에 우리가 갖고 가야 할 것은 끝까지 즐길 수 있는 체력!	
라인업	다이나믹듀오, 산이, 치타, 데프콘, [Brandnew music]산체스/각스/한해, [The Cohort]레디/오케이션/키스에이프, [HI-LITE records]비프리/허클베리피/팔로알토, [Grandline ent.]크루셜스타/각스/자메즈, [Just music]블랙넛/천재노창/바스코, [Vismajor company]낙살/던밀스/우탄/딤플로우/오디, [Daegu artists]지심X마일로, [불한당 BHDC crew]DJ스킵/MC메타/나찰/피타입/키비/라임어 택/넛업산/윙터컬라이즈XL/마이노스	
갈 수 있을까?	1학년	○ - 5월 2일 태강시험 이후입니다.
	2학년	○ - 5월 2일 신경과학Ⅱ 1차 시험 이후입니다.
	3학년	△
	4학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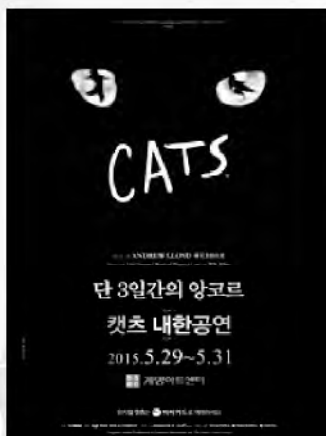
일곱



공연	2015 더 바이브 패밀리 콘서트 in 대구	
일자	2015년 5월 2일 토요일 19시	
장소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 그랜드홀	
출연진	바이브, 포맨, 벤, 미	
소개	윤후아빠 윤민수와 신용재가 있는 바이브 패밀리! 호소력 짙은 바이브 패밀리의 노래를 라이브로 들을 수 있는 콘서트입니다.	
갈 수 있을까?	1학년	○ - 5월 2일 태강시험 이후입니다.
	2학년	○ - 5월 2일 신경과학Ⅱ 1차 시험 이후입니다.
	3학년	△
	4학년	△



공연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레이크 루이즈>- 대구	
소개	유키 구라모토의 Romance와 Meditation을 라이브로 들을 수 있는 기회! 잔잔한 피아노 선율을 느낄 수 있는 유키 구라모토의 피아노콘서트입니다.	
일자	2015년 5월 19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대구 수성아트피아 용지홀	
갈 수 있을까?	1학년	○ - 5월 18일에 생리학 2차 평가 이므로 갈 수 있습니다.
	2학년	○ - 5월 16일에 신경과학2 평가이므로 갈 수 있습니다.
	3학년	△
	4학년	△



공연	뮤지컬<캣츠>내한 앙코르 공연 - 대구	
일자	2015년 5월 29일 19시 30분, 30일 14시&19시, 31일 19시	
장소	계명아트센터	
소개	최고의 고양이들 뽑기 위한 고양이들의 이야기를 엿볼 수 있는 뮤지컬입니다. 고양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젤리클릭을 추천합니다!	
갈 수 있을까?	1학년	○ - 5월 29일까지 행운제입니다.
	2학년	○ - 5월 29일까지 행운제입니다.
	3학년	△
	4학년	△



공연	2015 김태우 첫번째 전국투어 콘서트<T-Road>대구공연	
소개	달달한 발라드 하면 바로 김태우가 아닐까요? 김태우의 전국투어 콘서트가 오직 대구에서만 이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자	2015년 6월 20일 토요일 19시, 2015년 6월 21일 일요일 17시	
장소	대구 수성아트피아 용지홀	
갈 수 있을까?	1학년	× - 6월 22일 생리학 1차 시험 예정입니다.
	2학년	× - 6월 22일 심장병학 1차 평가 예정입니다.
	3학년	△
	4학년	△



공연	토토를 슈퍼콘서트 - 대구	
소개	토토가 출연가수들과 더불어 그 무대에서 보지 못했던 가수들까지 함께 볼 수 있는 콘서트입니다. 토토가의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분들께 추천합니다!	
일자	2015년 7월 18일 19시	
장소	대구월드컵경기장	
라인업	조성모, DJ DOC, 쿨, 지누션, 이정현, 코요태, 소찬휘, 클론, 박미경, 채정안, 김원준, 롤라, 영턱스클럽, R.ef, 철이와 미애	
갈 수 있을까?	1학년	○ - 생리학 4차 시험이 7월 11일입니다.
	2학년	○ - 환자의사관계평가가 7월 11일입니다.
	3학년	△
	4학년	△

열심히 공부한 우리들, 즐겨라!

본과 2학년 박 해 진(90)

2015년 학사력에 따르면, 올 1학기가 끝나는 시기는 7월 10일. 본과생들은 이때부터 2학기가 시작하는 8월 10일까지 약 한 달 가량의 휴식기간을 갖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쯤 비행기표를 구매하고 해외여행을 계획중이라 생각되는데요. 먹고 떠돌고 마시며 음악을 좋아하는 저는 그 모든 것을 갖춘 국내 음악 페스티벌을 무척 좋아합니다. 지금 이 글을 보며 방학을 떠올리고 있으실 여러분들께, 해외 여행만큼이나 음악페스티벌 또한 강렬한 휴가가 될 것이라 자부합니다.



1.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8/7 - 9 송도 펜타포트 공원)

ABOUT)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인천펜타포트락페스티벌. 펜타포트PENTAPORT란 인천광역시 가 트라이포트, 즉 Airport, Seaport, Teleport에 비즈니스, 레저분야를 추가한 다섯가지 포트를 결합시킨 신도시전략 펜타포트에서 유래되었고,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연결고리로 삼고 있는 5개의 철학과 정신을 표방하기도 합니다. 빨간색 별 모양의 심볼은 음악, 열정, 자연주의, D.I.T, 우정이라는 5가지 의미를 지니며, 별 모양은 사람의 팔, 다리, 얼굴의 형상 또한 나타내어 5가지의 의미 안에 사람이 중심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MY TIP)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매년 아름다운 송도공원에서 대규모로 진행되며, 국내/외 정상급 락밴드들 뿐만 아니라 인디밴드, 어쿠스틱, 일렉트로닉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을 아우릅니다. ‘아~ 락은 내 취향이랑은 좀 먼데?’ 하시는 분들도 음악을 좋아하신다면 편하게 즐기실 수 있어요. 교통도 서울에서 공항철도/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구요, 공원의 캠핑장이 있어 서두르신다면 캠핑을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올해 10주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더욱 기대가 많이 되기도 합니다!

INFO) LINE-UP: 프로디지, 쿡스, 10cm, 쏘애플 외 / 가격: 3일권 220,000

2015 ANSAN M VALLEY ROCK FESTIVAL

2. 안산M밸리록페스티벌(7/24-26 대부도 바다향기 테마파크)

ABOUT) 안산M밸리록페스티벌은 예전 지산밸리록페스티벌이 장소를 옮기며 명칭과 색깔이 살짝 바뀐 페스티벌입니다. 안산 대부도에서 개최된 지는 벌써 3년 째. 사실 작년엔 가까운 곳의 안타까운 사고로 한 해 쉬었습니다. 그로인해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움과 함께 더더욱 올해에 대한 기대를 키웠는데요. 2013년 라인업을 살펴보면 다른 락페스티벌에 비해 국외 최정상급 밴드들을 초대하는 어마어마한 페스티벌임에도, 국내에서의 인지도는 되려 타 페스티벌의 라인업보다 낮게 평가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작년의 공백을 무너뜨리기 위함인지 무려, 노엘갤러거(OASIS), 푸파이터스가 온다고 합니다!

MY TIP) 안산밸리록페스티벌은 안산대부도에서 열립니다. 즉, 페스티벌을 즐기는 것은 좋으나 그 페스티벌을 즐기기 위해서 대구에서 가기에 엄청난 교통불편을 겪어야 하죠. 개최측도 그 불편을 아는 지라 관객들에게 호텔패키지, 펜션패키지 등 다양한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만큼 비싸다는 점이 함정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노엘갤러거가 오는군요. 노엘갤러거. 노엘..

INFO) LINE-UP: 푸 파이터즈, Deadmau5, 루디멘탈, 노엘 갤러거 외 / 가격: 3일권 260,000

Chilpo Jazz Festival



3. 칠포 재즈 페스티벌

ABOUT) 2007년부터 매년 포항 칠포 해변에서 열리는 재즈 페스티벌입니다. 국내외 정상급 재즈 뮤지션들이 참가할 뿐만 아니라 작년 8회 공연에선 전인권 밴드, 박완규 등의 대중적인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관람의 편의를 위해 공연장 내에 음료, 차, 해산물 등의 다양한 먹거리 또한 제공됩니다. 또한 공연 마지막 날에는 밤바다에서 불꽃놀이가 이어져 여름 밤이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MY TIP) 포항에서 학부를 나왔던 저는 2012년 칠포재즈페스티벌을 보러 갔었습니다. 마음이 맞는 친구 2명과, 마트에서 맥주캔과 땅콩을 조금 사서 버스를 굵이 굵이 타고 칠포해변까지 갔었죠. 큰 무대와 그 앞 모래사장에 아무렇게나 박혀있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으니, 어느덧 해가 지고. 옆에선 파도소리가 반주로 깔렸고, 그 위에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이 엮어졌습니다. 맛있는 맥주와 여름 임에도 늘 시원한 바닷바람과, 친구들과 키득거렸던 그 감각들이 아직도 느껴집니다. 재즈를 좋아하지 않으시더라도 여기서 포항은 가깝고, 입장료도 부담없습니다. 그러니 소중한 사람과 여름, 바다, 음악 모두를 느끼시길 적극 권해드립니다.

INFO) LINE-UP: 미정 / 입장료: 2만원-지정좌석 없음(2014년기준)

일곱

三樂

음악+사람+자연 ECOGREENFESTIVAL

2015.08.07~09 삼락생태공원

4. 부산국제락페스티벌(8/7-9 부산 삼락생태공원)

ABOUT) 벌써 16회를 맞은 부산국제락페스티벌은 아름다운 바다가 자원인 부산의 도시 이미지인 '해양성, 개방성, 젊음'을 나타내는 삼락의 축제이며, 공식적으로 알려진 가장 오래된 연중 음악페스티벌 중 하나입니다. 지난 2014년엔 전인권밴드, 신중현그룹, 몽니 등 한국 고전락부터 현대 모던락까지 모두 아우르는 라인업을 선보였죠. 초창기엔 락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듣기 힘든 하드코어 위주였지만, 최근들어 대중적인 음악도 함께 선보여 많은 시민들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MY TIP) 부산국제락페스티벌의 최강점은 가격! 얼마나구요? 무료입니다. 부산시가 음악팬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죠. 뿐만 아니라 대구에서 부산까지 KTX로 약 1시간 거리이고, 부산역에서 공연장까지도 지하철로 편리하게 갈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조금 외진 곳에 있긴 하지만, 라인업이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지만, 이런들 어땠고 저런들 어떠리. 공짜인걸요!

INFO) LINE-UP:미정 / 가격: 무료

여덟. 영화와 독서 그리고 우리들의 일상

- ▶ 조선시대 양반의 발자취 - 김혜진
- ▶ BLACK - 강주연
- ▶ 향수 :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 - 유지훈
- ▶ 두근두근 내 인생 - 박혜진(92)
- ▶ 우리가 잘 하는 것 - 윤영상
- ▶ 커피에 관하여 - 유지훈
- ▶ 어벤져스2 재밌게 보기 - 조형준
- ▶ 세계 10대 금지구역 - 노현영

조선시대 양반의 발자취

『양반 - 역사적 실체를 찾아서』를 읽고.

본과 2학년 김 해 진

오늘날 일반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신만의 성과 본관을 가지고 있다. 이 글을 쓰는 나의 경우 경상남도 김해가 본관인 김(金)씨 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웬만한 친족집단에서는 자신들 나름의 족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내가 포함되어 있는 김해 김씨 족보는 나의 친조모가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본관과 족보가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대부분 어렸을 적 우리들의 집안은 양반가의 후손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하곤 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조선시대 후기에 족보를 사고파는 행위가 급증하여 조선 초기에 5퍼센트 미만이었던 양반의 비율이 19세기에는 80퍼센트에 육박한다는 것을 국사 시간에 배우게 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고개를 갇우뚱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나의 성씨와 본관, 족보는 과연 믿을 만 한 것인가. 이전부터 가졌던 이러한 질문을 품은 채 미야지마 히로시의 『양반』의 첫 번째 페이지를 열게 되었다.

저자는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양반’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이 책을 읽기 전에 내가 가진 양반이라는 개념은 어떤 명확한 정의보다는 TV매체에서 자주 보던 사극에서의 장면들이 먼저 떠올랐다. ‘가장은 주로 사랑채에 기거하며 책을 가까이 하고, 좀처럼 밖에 나오지 않는다. 부엌은 금남의 구역이다. 집안의 일은 ‘마님’이 처리하며 기타 잡일은 천한 노비들이 도맡아 한다. 일 년에 한 번씩 소작하는 농민들이 한해 농사의 곡식을 갖다 바치고 머리를 조아린다.’ 이런 모습이 내 머릿속에 떠오르던 양반의 모습이였다.

책의 저자는 국어사전에 나오는 양반의 정의 중에 두 번째인 ‘신분’으로써의 양반을 논의의 시작으로 삼는다. 법제적 절차가 아닌 사회 관습에 의해 형성된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 이전에 내 머릿속에서 양반이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떠오르지 못했던 것은 양반이 특정한 법률에서 정한 것도 아니며 특정 직업에 종사하거나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양반은 관습적으로 형성된 어떤 신분 계층을 의미하며 이는 시대에 따라 그 구분이 변해왔음을 말해준다. 저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주어진 상황에 따라 변경 설정되는 어느 특정 지역의 특정 상황 하에서 관련된 사람들의 의식 구조상에 설정되는 주관적 기준’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보아야 할 점은 과연 양반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형성된 이후 어떻게 변화해갔는지에 대한 분석이 될 것이다.

저자는 양반 계층을 재경 양반(또는 경반)과 재지 양반(또는 향반)으로 구분하고 주로 재지 양

반에 관심의 초점을 맞춘다. 재지 양반이란, 과거 합격자를 조상으로 하며(무과, 잡과 보다는 문과 위주) 세거지(일종의 동족촌을 의미한다)를 구성하고 특정한 그들만의 생활양식을 가지고 있으며 같은 계층 내에서만 혼인관계를 갖는 양반을 의미한다. 저자가 재경 양반보다 재지 양반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재지 양반의 형성 과정이 국가 주도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재지 양반층의 형성과정을 살펴보면 저자는 안동 권씨의 문벌인 유곡 권씨의 시조 권벌(權機)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모든 족보에는 '시조'가 있는데 그 시조의 직계 존속계가 시조에 오르지 못한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 족보는 그 가문의 실제적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후대에 그 가문에 소속된 사람들의 사회적 위상에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족보의 시조는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후에 정치적 박해를 받게 된 가문이 다른 가문에 편입하거나 사후 명예 회복이 된 경우 다시 본 족보를 복원하는 것에도 중요한 이유가 된다. 사회 계층으로써의 양반층은 주로 15~17세기 사이에 형성 되었으며 주된 출신 모체는 고려시대의 토착 이족(吏族)이었다. 그들의 후손 중 중앙관료로 출세한 자가 생겨나고 지방의 세거지에 정착하면서 재지 양반계층이 성립된 것이다.

이어서 저자는 재지 양반층의 경제적 기반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분재기(分財記)'라는 문서를 이용한 점이 새롭다. 분재기란 일종의 재산 상속 문서로써 허여문기(許與文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가, 죽었을 때는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줄 때 작성하는 분재기), 화회문기(和會文記: 양친이 모두 사망 후 상속인들이 모여서 작성하는 분재기), 별급문기(別給文記: 별도로 특정인에게 상속하는 분재기)로 나누어진다. 분재기를 분석함으로써 당시 재지 양반 계층의 재산 규모와 구성 내역을 살펴볼 수 있다.

재지 양반 계층의 재산의 가장 주요한 구성 요소는 노비와 토지였다. 권벌은 317명의 노비를 소유했는데 조선 사회에서는 '종모법(從母法)'과 '일천즉천(一賤則賤)'의 원칙 하에 노비의 인구수는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일천즉천의 원칙은 부모 중 한명이라도 노비가 있다면 그 자손은 무조건 노비가 되는 원칙이다. 이는 아버지가 양반이어도 예외가 없었는데 오늘날의 관점에 의하면 일견 이해하기 힘든 점이 있다. 특히 구(口) 단위로 그 수가 세어지는 등 인격적인 대우가 없었던 당시에 양반의 자식이 노비가 될 수도 있다는 당시 규칙은 다소 낯설게 느껴지는 점이 없지 않다. 저자의 논의에서는 이 점에 대해 더 자세한 언급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일천즉천의 원칙 하에서도 암묵적으로 예외적인 사례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보았다. 재지 양반 계층이 조선 사회에서 지배층에 해당했고 주자학적 사상에 의해서도 집안 잡일과 농

사일을 담당할 사람이 필요했던 재지 양반 계층에게는 노비의 존재는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노비 인구의 증가는 재지 양반 계층 성립을 공고화하였다.

또한 토지(농지)가 양반층의 재산의 주요 구성요소였기 때문에 분재기에는 역시 이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었다. 다만 특기할 점은 보유 토지 중 상속 받은 토지의 비율이 그리 높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후술하는 농지 개발 및 산간·해안지역 개간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당시 양반들이 노비를 이용하여 직영지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농사기술과 새로운 토지의 간척에 깊은 관심이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저자는 재지 양반층이 자신들의 경제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데, 양반 자신이 농사 관련 서적을 집필하였다는 점이 나에게서는 새롭게 느껴졌다. 농사의 작황이 자신들의 수입과 직결되기 때문에 농사기술의 발달은 양반들의 주도로 이뤄졌다. 특히 『금양잡록(衿陽雜錄)』등의 사찬농서는 당시 기준으로 상당히 세련된 농사기술을 소개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전국의 농지 규모도 상당히 증가했다고 판단되지만 관련 기록에서는 그 증가분이 크지 않다. 그 이유는 조세를 걷기 위한 양전제도가 조선 전기보다 후기에 허술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분석했다. 양전제는 토지의 등급에 따라 작황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인데 1등급 토지 한 단위는 6등급 토지 한 단위보다 훨씬 작은 면적이다. 양전제가 허술하게 적용된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낮은 등급을 매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높은 등급 토지의 단위수가 낮은 등급의 토지 단위수와 비슷하다면 실제 면적은 훨씬 넓어졌다는 것을 추리해볼 수 있게 된다. 반면 조수 간만의 차가 큰 호남 해안 지방에서는 해안 간척 사업이 폭넓게 이루어졌는데 특히 '입안절수(立案折受)'가 시행했다. 입안절수는 개간을 조건으로 관청으로부터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미리 획득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 책에서는 양반의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그들의 일상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다루고 있다. 불행히도 왕가와 중앙 정치에 관한 보물과 같은 기록인 조선왕조실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의 양반의 일상생활에 대해 자세히 서술한 기록은 많지 않다. 책에서는 '쇄미록'을 이용하여 양반층의 일상생활을 묘사하고 있다. 쇄미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양반들의 일상생활의 가장 큰 특징은 '봉제사(奉祭祀)', '접빈객(接賓客)'에 나타나 있다. 유교사상이 조선 중·후기 사회를 지배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유희춘이 『미암일기(眉巖日記)』에 기록한 것처럼 증답의 기록이 하루 평균 두 번 이상에 달했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내용이었다. 그 규모가 당시 양반층의 경제생활에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저자가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알지 못했던 내용이었다. 이는 단순한 관례 수준을 넘어서 고정적 수입의 일종이었다는 것은 눈여겨 볼 점이

다. 그리고 화폐경제의 관점에서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음을 유추해볼 수도 있었다.

양반의 보유 재산 중 노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컸음을 차지하더라도, 당시 인구구성 특성 면에서 양반과 노비와의 관계가 실제로 어땠는가에 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노비는 양반의 수족이자 동시에 양반의 사회적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다. 일단 가정 내의 온갖 잡일을 담당했으며 각종 선물의 운반, 농업 노동 등에 종사했다. 비록 노비가 독립된 인격으로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독립된 가정을 꾸리고 자신만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다는 내용은 알지 못했던 부분이었다. 정규 교과과정의 국사 교과서에서는 주로 양반 지배층과 정치에 주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노비들의 생활과 양반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없었는데, 노비들의 생활이 어땠는지 엿볼 수 있었다.

여기까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 계층적 측면에서 양반의 지배체제가 성립되었는지에 대해 저자는 여러 측면에서 소개한다. 추론컨대 양반이라는 개념 자체가 명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당시 양반 계층에서도 이를 명문화하려는 욕구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향안은 지방마다 작성된 양반들의 명부였는데 여기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는 엄격한 자격 심사를 받아야만 했다고 한다. 향안에 이름을 올리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기존 향안에 소속된 양반들이 자신들만의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노력이 컸음을 의미한다. 이는 후에 서얼과 향리들이 향안에 입록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향안의 역할은 양반들의 경제적 기반이 점차 정제되고 후퇴하는 시기에 양반들의 결속 수단으로 그 기능이 더해졌을 것이다. 향약은 향촌 사회를 규율하는 원칙들이다. 향약의 작성자가 재지 양반층이었다는 점 자체로 이미 향약의 기능을 유추할 수 있다. 재지 양반층은 향리층을 모체로 하여 중앙 정계로 진출했던 사람과 그 자손이 다시 농촌 지역에 거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는데 스스로의 지위 확립을 위해서는 향리층과 자신들을 구별할 필요가 있었다. 향소를 설치하여 지방통치 체제의 일익을 담당하고 관리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받기도 했다.

또한 결혼과 학연의 관점에서도 재지 양반 계층의 성립을 논하고 있다. 양반 족보에서 조선 초기에 다른 가문과의 결혼이 양반 계층의 개방성을 의미한다면 16세기 이후 양반 족보에서의 결혼은 자신의 가문보다 더 높은 계층의 양반과의 결혼을 명문화함으로써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하고자 하는 의도가 더 컸다고 본다. 저자 역시 같은 논의를 본문에서 펼치고 있어서 나의 생각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양반들의 경제력 증가가 둔화되면서 재지 양반층은 보수화되고 동족 결합의 강화를 보여준다. 양반들의 경제력 증가 둔화는 상속 제도의 변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남녀균분 상속에서 장남 우대상속으로 바뀌었으며 족보에서는 성별 불문 연령순의 기재가 아닌 남자 우선의 기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성별 구분 없이 자식들을 동등하게 대우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경제력이 필요한데 그 경제력의 약화는 다른 계층과 자신들을 구분 짓는 생활양식인 '제사'를 모시는 자식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상속 제도와 족보의 형식에 영향을 주었다.

끝으로 저자는 양반 계층으로의 지향에 대해 다루고 있다. 양반 계층의 경제력 약화와 대비되어 서얼과 향리층의 계층 상승 욕구가 터져 나오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이미 언급한 향안예의 입록 요구가 빚발쳤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경제력을 갖춘 자가 권력과 명예를 욕망하게 되는 것은 고금을 불문하는 것 같다. 저자의 분석 중 주목해야 할 점은 위와 같은 양반 계층으로의 지향 현상이 당시의 양반 지배 사회를 전복하고자 하는 시도라기보다는 양반 계층으로의 편입을 욕망한 것이며 이는 양반들의 유교문화가 향촌사회의 뿌리까지 스며들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었다.

이 책을 다 읽은 후에 우리 가족에 남아있는 양반 문화의 흔적이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외가와 친가가 종교와 상관없이 매년 명절에 증조부의 제사를 치르는 것을 거르지 않는 점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났다. 비록 그 제사의 형식이 전통적인 형식에 비하면 매우 약소하지만 아무리 중요한 다른 행사가 있더라도 제사 참여에는 부모님께서 엄격하게 하였다. 오히려 조선 초기에는 장남 뿐 아니라 모든 자식들이 제사를 모셨고 그 참석 여부가 엄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에 근대는 전통이 더 깊게 사회 전체에 침투해가는 과정이라는 저자의 결론의 언급이 더욱 깊게 다가왔다. 결국 근대라는 시대가 전통적인 것을 해소해나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통적인 것을 더 명확하게 의식화하고 강화시킨 측면이 있었다는 저자의 의견에 동의를 표하며 본 서평을 마치고자 한다.

BLACK

- 영화감상 -

본과 2학년 강 주 연

장르도, 국적도, 내용도 몰랐지만 이 영화를 선택했던 것은 제목이 주는 인상과는 반대로 영화의 포스터가 따뜻했기 때문이다. 실화를 그린 이 영화는 한 소녀의 상처와 호기심을 적나라하게 그렸지만, 그 어떤 영화보다 눈부셨다.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호기심이 있다. 하지만 앞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는 소녀 미셀에게 지식은 절실했다. 빛도 소리도 없는 지옥은 순식간에 소녀를 잡아먹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는 깊어지기만 했다. 사람들은 괴팍해진 미셀을 피하고, 가두고, 방치했다. 미셀의 가족은 부유했지만 미셀은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자신을 이해해 주지 않는 가족 곁에서 외로워져만 갔다. 냉혹한 현실을 두려워하던 미셀에게 사하이 선생이 찾아왔다. 사하이 선생은 미셀에게 손으로 사물의 모양을 느끼는 것, 빨간색과 초록색의 차이, 차가움과 뜨거움이 무엇인지를 손수 가르쳤다. 언제 어디에서나 미셀의 그림자가 되어 헌신적으로 미셀이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왔다. 간혹 그는 미셀의 난폭한 행동을 다스릴 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처했고, 도리어 어긋난 행동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깨닫게 했다.

모든 것을 가르친 헌신적인 스승이 단 하나 가르치지 않은 것은 “불가능”이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제약이 많았던 미셀에게 좌절은 치명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미셀이 무언가를 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손발을 걷고 나섰다. 그가 미셀의 집에 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미셀의 아버지가 채워놓은 그녀의 족쇄를 푸는 것이었다. 그렇게 사하이가 가르치려 했던 것은 정작 족쇄가 없을 때 세상은 더욱 두려워진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이든 도전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지난 해 “1박 2일”에서 마흔 명의 반 학생들의 이름을 번호를 외어가며 호명한 어느 젊은 선생님이 화제가 되었다.

**선생이 편하면 애들이 망가진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내면서 출세하는 건 소용이 없다.**

이 젊은 선생님에게는 자신만의 굴직하고 진심 어린 교육관이 있었다. 앞이 안보이고 귀가 들리지 않는 미셸을 가르친 사하이 만큼이나 그도 굳건한 소신이 있었다.

나는 세상의 모든 스승이 갖는 사명감을 존경한다. 영화 <블랙>은 아무리 세상이 어두컴컴할 지라도 포기를 가르치지 않은 어느 훌륭한 스승의 숭고한 사명을 가장 정중하고 고결하게 그린 영화였다. 세상의 만물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대상이 되지만, 인생에서 단 한 분의 기억할 만한 스승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행운이 아닐까. 매년 스승의 날이면 선생님들을 찾아 뵙곤 했는데, 바빠진 의대 일상에 허둥대느라 그 정성을 잊고 지냈다. 혹 잊고 지냈던 소중한 선생님들 없었는지 돌이켜보고,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 소중한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것은 어떨까.

미움 받을 용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아들러의 가르침

본과 4학년 이 승 제

미움 받을 용기

제목부터 참 괴상하다. 용기면 용기지 미움 받을 용기란 무엇이란 말인가.

아니면 백번 양보해서 그런 용기가 있다고 쳐도 미움 받을 용기라는 것을 알면서 실행에 옮긴단 말인가? 제목만 보고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개인적으로는 철학책을 싫어하는 편이다. 남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거나 혹은 남들과 같은 의견을 공유하고자 한다면 간단하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해야 하는데 일단 너무 어렵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웬지 본인의 지식 수준을 앞세우거나 이 정도는 모르지?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거부감도 드는 게 사실이다. 이 책 역시 아들러 심리학이라는 철학적 내용이 기반이다. 하지만 내용 진행 방식이 플라톤의 대화법 처럼 제자와 철학자간의 대화를 통해 이뤄지고 있고 우리가 읽으면서 생기는 궁금증이 제자를 통해 투영되어 질문하고 철학자는 대답을 해준다. 그래서 좀 쉽게 읽힌다. 오랜만에 서점을 들렀는데 책 제목만으로 책을 들게 만들었고(알고 보니 베스트셀러였다.)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 다 읽을 수 있었다. 그럼 지금부터 필자와 함께 자기 자신의 가치를 평가해 보도록 하자.

고민 1

“어떤 사람으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경험 안에서 목적에 맞는 수단을 찾아낸다. 경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부여한 의미에 따라 자신을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 목적에 맞는 수단을 찾아낸다니, 그게 무슨 뜻인가요?

- 남의 시선이 두려운가?

필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가 본인의 선택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대해 책에서 철학자는 냉정하고도 명확하게 일침을 가한다. ‘내 얼굴을 주의 깊게 보는 사람은 나뿐이다’ 그렇다. 솔직히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작은 변화, 행동의 달라짐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너무 자신을 높게도 낮게도 평가할 필요는 없다.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의미를 부여한 주관적인 세계에 살고 있다. 객관적인 세계에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 그리고 스스로 결정지어놓은 과거 일에 대한 의미부여가 본인 스스로를 얹어매고 있는 것이다. 철학자는 그 원인을 원인론과 목적론에서 찾는다.(누가 철학자 아니랄까봐...) 과거 마음의 상처(트라우마)가 현재의 불행을 일으킨다. 즉 프로이트의 ‘트라우마 이론’은 전형적으로 원인론에 입각한 생각이다. “당신이 괴로움에 시달리는 것은 과거의 그 일이 원인이다. 그래서 당신에게는 잘못이 없다.” 이게 자기 자신에게 주는 위안이다. 하지만 아들러의 심리학은 트라우마를 명백히 부정한다. “어떠한 경험도 그 자

체는 성공의 원인도 실패의 원인도 아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받은 충격(트라우마)으로 고통 받는 것이 아니라 경험 안에서 목적에 맞는 수단을 찾아낸다” 바로 목적론이다. 결국 인생이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본인이 과거의 경험에 부여한 의미에 따라 그리고 목적에 따라 인생이 그리고 선택의 결과가 달라진다.

고민 2

자네가 전에 말했지? “행복해 보이는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가 없다”라고 말이야. 그것은 인간관계를 경쟁으로 바라보고 타인의 행복을 ‘나의 패배’로 여기기 때문에 축복하지 못한 걸세. 하지만 일단 경쟁의 도식에서 해방되면 누군가에게 이길 필요 없이 ‘진짜 모르다’는 공포에서도 해방되지.

‘그 사람’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살지 말라.

타인에게 인정받으면 확실히 기분이 좋아진다. 하지만 인정받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 보통 타인의 인정을 통해서 본인의 가치 있음을 느끼고 이는 곧 열등감을 이겨내는 것으로 통한다. 인정받기를 바란 나머지 ‘나는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 같은 타인의 기대에 자신을 맞춰 살게 된다. 즉, 진정한 자신을 버리고 타인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쉽지 않다. 사람에게서는 보상심리 라는 것이 있다. 내가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키면 타인 역시 자신의 기대를 만족시켜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상대는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가? 거의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서운하고 화가 난다. 그렇다고 화를 낼 것인가? 그것은 아니다.

고민3

감을 느껴 나는 허탈하다. 더 노력하자”라고 결심한다면 도리어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열등 콤플렉스는 자신의 열등감을 변명거리로 삼기 시작한 상태를 가리킨다네. 구체적으로는 “나는 학력이 낮아서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거나 “나는 못생겨서 결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고민’이다. 고독, 외로움, 무가치함.

이런 감정은 본인이 혼자 느끼는 감정이다. 하지만 이 또한 내가 혼자가 아닌, 나를 둘러싼 타인, 사회,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느낄 수 있다. 정말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고독을 느끼는 것 또한 타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이러니 하지 아니 한가? 즉 인간은 사회라는 맥락 속에서 비로소 ‘개인’이 된다. 결국 인간의 고민은 이러한 주위의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고민이다.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면서 비교 우위를 느낄 때 만족하고 혹은 열등감에 빠져서 본인을 힘들게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세상에 혼자 남겨서 고독 없는 삶을 살지 않는 이상 혼자 독야청청하게 이러한 관계에서 벗어나 살 수는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해결?

형 년 무슨 뜻이죠?

লেখক '내'가 바뀌면 '세계'가 바뀐다. 세계란 다른 누군가가 바뀌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의 힘으로만 바뀔 수 있다는 뜻이지. 아들이 심리학을 배우고 나면 내 눈에 보이는 세계는 이제 과거의 세계가 아니라네.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려면'

나는 공동체에 유익한 존재이다. 공동체 즉 나에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것, 타인에게 좋다는 평가를 받을 필요 없이 자신의 주관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공헌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 이러면 비로소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실감하게 된다. 평가를 내리고 평가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수직관계에서 바라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은가? 그렇다면 스스로 본인이 수직관계에 종속되어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셈이다. 그것은 본인에게도 해당된다. 타인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감사나 존경, 기쁨의 인사등과 같은 수평적인 표현이 필요하고 그것을 들었을 때 스스로 타인에게 공헌했음을 느낄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인간관계의 속박에서 벗어나 본인의 인생을 만족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이 책을 다 읽은 후에도 잘 모르겠다. 해답을 얻기 위해서 읽기 시작한 것은 아니었지만 한편으로는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점에서는 위안이 되기도 했다. 책 속에는 수많은 명언이라 불릴 수 있는 문장들이 있다. 명언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된 것은 아닐까 하는 뼈뚫한 생각을 해보기도 한다. 그냥...자기 자신을 찾자. 인간은 변할 수 있다. 세상은 단순하다. 그리고 누구나 행복해 질 수 있다.

미움받을 용기

‘아무리 어려워 보이는 관계일지라도
· 마주하는 것을 회피하고 뒤로 미루서는 안 돼.
가장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상황.
‘이대로’에 멈춰서 있는 것이라네.’

이 책을 접했던 시기는 한동안 나 자신이 만든 굴레를 못 벗어나고 열등감에 휩싸이기도 했다. 그럴 때 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내가 그렇지 뭐’ 하고 그냥 적당히 현실과 타협해서 받아들이고 넘어갈

때가 많았다. ‘다른 사람은 왜 내 생각대로 나를 생각해 주지 않을까.’ ‘내가 잘 못 된 것일까.’ 등의 스스로 던진 의문 속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열등감은 결국 자신 스스로를 낮게 보기 때문이며 과거의 일에 지나친 의미부여를 하기 때문이다. 나는 집 환경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된거야.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내 인생은 달라질거야. 여자친구가 생기면 담배를 끊어야지. 등등의 의미부여한 사건에 따른 결과론 역시 본인의 생각과 가치를 작게 만들어버린다. ‘인간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낄 때만 용기를 얻는다.’ 결국 이 책의 제목은 역설적이기도 하다. 자기 가치를 느끼고 타인에 의해 휘둘리지 않고 환경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용기이며 미움 받을 용기란 없는 것이다.

영화 '향수 :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를 보고

본과 2학년 유 지 훈

냄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있을까? 그저 기분 좋은 음식, 기분 나쁜 오물을 구분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는 것이 보통 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단순한 감각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전 부라면 어떤 느낌일까?

이야기의 시작은 냄새에 관하여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남자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된다. 말보다 냄새로 대화하기 시작한 그는 남이 보기에 '역겹게도' 오직 냄새라는 감각 하나만을 이용하여 세상과 소통하게 된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없어 불결하고 거친 탁아소에서 지내던 불운한 그의 어린 시절, 친구가 되어준 것은 내 옆에서 자고 있는 또래들이 아니라 주변의 냄새였다. 하지만, 이처럼 수동적인 대화를 이어가던 그가 자라나 도시에 도착하게 되면서, 자신이 자라온 환경에서 내뿜던 악취와는 다른, 매혹적인 향수의 냄새를 처음 맡게 된다. 이때, 그는 세상의 모든 냄새를 갖고 싶다는 욕심을 처음 느끼게 된다. 그렇게 다양한 향수의 냄새의 매력에 빠져 가던, 어느 밤, 아리따운 한 여자의 냄새에 충동적이고 강렬한 사랑을 느끼게 되어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뒤를 밟게 되고, 놀라 소리치는 그녀를 우연치 않게 살인해 버리고 만다. 꺼져가는 생명을 따라 사라지는 그녀의 냄새를 맡으며, 사랑했던 그녀를 영원히 내 품에 가두고 싶다는 욕망을 가지게 되고, 향수제조사의 길에 접어들게 된다. 풋내기 시절을 지나 자신의 향수를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치명적이고 극단적인 욕망을 실행하기 시작한다. 가장 매력적인 향수를 만들겠다는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 아무렇지 않게 생명을 앗아가는 그의 모습을 뒤따르며, 영화는 그의 최후까지 함께한다.

주인공의 원초적인 욕망을 매개하는 것이 바로, 이 영화의 제목 향수(香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향기로웠던 그녀에 대한 기억을 잃기 싫었던 그가, 그녀의 기억을 영원히 가둬두고 싶어 사용했던 것이 바로 향수(香水)인 것이다. 물론, 그녀를 추억하려했던 완벽한 그 향기가, 그녀를 대신할 수 없음을 깨닫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영화는 마무리 된다.

영화는 전반적으로 냄새라는 보이지 않는 감각을 최대한 시각적으로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전체적으로 우울하고 불쾌하며 더러운 중세시대의 분위기를 끝까지 유지하면서도 향기에는 모든 감각을 집중하도록 영상을 구성했다. 산들바람의 은은한 냄새부터 생명이 없는 차가운 금속들, 강아지, 고양이 같은 살아있는 동물들과 주인공이 사랑에 빠졌던 그녀의 냄새까지, 보는

관객으로서는 직접 말지는 못하는 냄새를 색이나 음악으로 섬세하게 표현하여, 생명을 빼앗는 잔혹한 살인자의 모습과 동시에 스스로 주체할 수 없는 본능이 이끄는 향수에 대한 집착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끼게 해주려 노력했으며, 이를 이용해 광란의 살인마가 집착하던 그 냄새를 간접적으로 느끼게 만들어 몰입도를 증가시켰고, 불쾌한 분위기의 영화를 흥미롭게 동행할 수 있게 하는 이유가 되어 주었다.

이쯤에서 우리 주변의 냄새에 관해 한번쯤 생각해보자. 주인공처럼 극단적이지는 않지만 냄새는 우리에게 비슷한 욕망을 느끼게 해준다.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보자. 자신이 사랑하던 이가 즐겨 쓰던 샴푸 냄새가 누군가의 머릿결에서 열게 나마 흩어져 나온다고 생각해보자.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랑스럽던 그 이의 기억을 더듬어 보게 될 것이다. 혹은 다른 경우로, 이른 아침, 등교하며 집을 나설 때, 습한 공기의 냄새가 바람에 담겨 들어온다면, 오늘 점심이나 저녁에는 곧 비가 올 것을 짐작하기도 한다.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에게는 호감을 갖기도 하며, 심한 악취에 감정이 상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을 파고든 것이 이 영화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단순히 냄새라는 감각 하나로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감독의 스토리텔링과 드라마 구성은 영화를 다시 찾게 할 만큼 매력적이다. 매력적인 향기를 눈으로 맛볼 수 있는 영화를 찾는다면 꼭 한번 보는 것을 추천한다.

두근두근 내 인생

본과 2학년 박 해 진(92)

학기 중에는 그렇게나 고대하던 방학이건만 정작 방학이 되니 폭 퍼져서 잠만 자다가 잠깐 일어나 먹고 다시 잠드는 일상을 반복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할 일은 없고 심심해서 책이나 읽어볼까? 하고 베스트셀러 목록을 뒤적이게 되었다. 그러던 중 알록달록한 색깔의 풍선이 그려진 두근두근 내 인생이라는 제목의 책이 눈에 들어왔다. 사실 이 책은 작년에 읽어 보려고 도서관에서 빌려오기까지 했었지만 고이 모셔만 두다가 결국 한 장도 읽지 못한 채로 반납했던 책이었는데, 이번에는 꼭 끝까지 다 읽으리라 다짐하며 책을 집어 들었다.

책에는 열일곱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된 엄마, 아빠와 열여섯 어린 나이에 여든살의 몸을 가지게 된 아름이 가족의 일상이 담겨있었다. 16세 아름이가 80세의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선천성 조로증이라는 병 때문인데 이 병은 전세계적으로 250여 명만이 앓고 있는 희귀한 질병으로 비정상적인 빠른 속도로 노화가 진행되어 남들보다 빨리 늙게 되는 병이라고 한다. 아직까지 치료법이 없어 노화로 인해 아름이의 심장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고 복용하는 약으로 위가 상하고, 뼈도 점점 약해지는데다가 급기야는 황반변성으로 시력을 잃을지도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있다. 한 번도 큰 병으로 입원해 본 적도, 큰 수술을 받아본 적도 없이 건강했던 나로서는 아름이의 고통이 상상조차 되지 않았다. 나를 낳아준 부모님보다 내가 더 늙었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먼저 죽게 될 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 또한 또래의 친구들이 학교에 등교할 때 학교는커녕 병원을 내 집처럼 드나들며 살아야하는 기분은 어떤 것일지. 책에서 조금이나마 아름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아래와 같다.

“나는 내게 몸이 있단 사실을 깨닫는데 생애 대부분을 보냈다. 햇바늘이
돌은 순간만큼 혀에 대해 자주 생각하는 때도 없는 것처럼, 각 기관들을
아주 세부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의식하며 살아야 했다. ...(중략)...
나는 건강에 무지한 건강, 청춘에 무지한 청춘이 부러웠다.”

우리는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지만, 각 신체적 일부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지는 않는다. 숨을 쉬는데 힘이 들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나 움직일 때 고통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건강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건강하다는 사실에 무지하다. 아프지 않을 때는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잘 알지 못한다.

나는 지금 보내고 있는 이 2-30대가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고 소중한 시간인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 입학한 이후로 하루를 또 한 주를 그저 보내기에만, 견뎌내기에만 급급해서 정작 내가 왜 이 길을 선택해서 힘겹게 공부하고 있는 것인지 잊어버린 것 같다. 입학 할 수만 있다면 열심히 공부해서 꼭 좋은 의사가 되겠다고, 혹은 나는 어떤 특별한 이유로 꼭 의사가 되어야만 한다고 열심히 어필했던 입학면접에서의 뜨거웠던 열정들은 다 어디로 날아가 버린 건지. 무념무상의 자세로 머릿속을 이 지식으로 채웠다가 다시 비워내고 다시 저 지식으로 채우는 과정을 반복하는 내가 서글프다.

이런 나에게 아름이는 삶은 두근거리는 것들 투성이라고 말한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삶일 것임에도 아름이가 얘기하는 그들의 이야기는 결코 슬픔만으로 가득하지도, 우울하거나 절망적이지도 않다. 이른 아침 어머니가 밥을 하기 위해 황토쌀독 뚜껑을 열고 닫는 소리를 들을 때, 오락프로그램에서 좋아하는 연예인이 재치 있는 애드리브를 던질 때, 여러 가지 색깔이 뒤섞인 저녁 구름을 볼 때 살고 싶어진다고, 내 주위를 둘러싼 모든 것이 나를 두근거리게 한다는 아름이. 우리에게서 일상이고 아주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로 인해 살고 싶어진다는 아름이가 대견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남들보다 열 배나 빠른 삶을 살고 있는 아름이에게는 1분 1초, 사소한 일들이 너무나 소중한다는 말 같아서 마음 한 구석이 아렸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아무렇지 않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지. 인생이 너무나 무료하고 지칠 때면 이 책을 한 번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삶이 얼마나 두근두근 거리는 것인지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가 잘하는 것

본과 3학년 윤 영 상

2014년, 지난 해 **‘월드컵’**이 한국에서 열렸다. 월드컵은 월드컵처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League Of Legend’게임 대회로 매 해 진행되는데 지난해 대회가 한국에서 열리기로 결정된 것이다. 월드컵이 한국에서 열리게 된 데에는 2013년 월드컵을 한국 팀이 우승한 것도 한 몫 했겠지만 KeSPA(한국 e스포츠 협회)의 노력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 같다.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우리나라에는 **‘프로 게이머’**라는 직업이 존재한다. 단순히 프로게이머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게임단과 프로게임 리그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게임이 아닌 게임 경기와 많은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하나의 문화 산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e스포츠 콘텐츠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들고 발전시켜온 종주국이 바로 한국이다. 한국의 e스포츠는 15년 전부터 KeSPA의 보호 아래 발전해 왔고 그 결과 우리나라 게이머의 실력은 세계 최정상에 있으며 콘텐츠의 질 또한 우수해 우리의 e스포츠 콘텐츠는 세계 각국의 언어로 해설되며 방송되고 있다. 최근 유럽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게임 프로리그제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e스포츠 콘텐츠 개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임개발 상황은 어떨까? 지금까지 e스포츠의 주요 소재가 되어온 **‘커다란 게임’** 두 개 모두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게임이 아니다. 지금 인기를 한창 끌고 있는 League Of Legend를 개발한 게임회사 Riot은 세계 각지에서 열리는 게임 리그에 협조적이지만 과거 e스포츠의 대명사였던 게임 Starcraft를 개발한 회사 Blizzard는 그렇지 않았다. 때문에 지적재산권 문제부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로 e스포츠 콘텐츠 개발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e스포츠의 특성상 게임 개발사에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해당 게임으로는 더 이상의 콘텐츠 개발이 불가능하다. 다른 나라의 회사들에 상당히 의존적인 산업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e스포츠의 소재가 될 세계적인 게임을 개발 할 수는 없는 것일까?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 산업은 세계 1위이다.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따라잡으려 노력하고 있다. 게임 산업이 전체 문화콘텐츠 사업 수익의 45% 정도 차지하며 한류 수익의 60%가 넘는 수익 역시 게임 산업이 올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게임을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난 것 같다. 지원금을 끊어 게임회사의 수익은 줄어들었고 게임 개발자들의 환경은 열악해졌

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차기 문화콘텐츠 산업의 선두주자를 게임으로 생각하며 게임산업에 대규모 지원을 약속했고 중국, 독일등 세계적으로 게임 키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게임을 마약처럼 보고 **‘게임중독’**을 경계하며 학교폭력의 원인을 게임으로 돌린다. 오후 10시가 넘으면 청소년이 게임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인 청소년 셧다운 제도 같은 것이 그 예이다. 이 제도 때문에 2013년 중국에서 개최한 온라인 스타크래프트2 대회에서 세계 랭킹1위였던 한국선수가 경기 도중 10시가 넘어 게임이 종료되는 바람에 경기에서 패배하는 사건도 있었다. 대부분의 프로게이머가 고등학생 나이에 데뷔하고 스물다섯 살만 되어도 노망 취급을 받는 프로게임 세계에서 셧다운 제도는 큰 불편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게임의 중독성이 심각한지, 정신질환이나 학교폭력, 폭력범죄의 원인이 게임에 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왜 우리가 잘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칭찬하지 않는 것일까’

리는 이승기의 노래 한 소절이 깊이 와 닿는다.

커피에 관하여 : 양탕국에서 아메리카노까지

본과 2학년 유 지 훈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 예부터 대표적으로 중요한 3가지로 꼽았던 의, 식, 주 중에서 생존에 가장 직결되는 식사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과거라면 하루 삼시 세끼 꼬박꼬박 챙겨먹는 것이 낙이었겠지만, 풍요로운 음식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단순한 주식 말고도 후식, 즉, 디저트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다. 이런 관심 속에서 어느 샌가 우리네 후식의 한자리를 꿰차 꾸준하게 사랑받고 있는 음료가 바로 커피다. 길 가다보면 한집 건너 한집 있을 정도로 많은 카페들과, 이제는 큰 기업이 되어버린 여러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이런 인기를 실감나게 해준다. 특히나 의대생들에게는 애증의 음료로, 에너지음료를 가볍게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카페인 제공원이 되어주기도 하는 고마운 음료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커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사람들이 커피를 섭취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일까? 정확히 언제인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먼 옛날 에티오피아의 고원지대에서 특정 콩을 먹은 양들이 밤새 자지도 않고 뛰어 노는 것을 보고 각성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아내 찾아 먹기 시작했다는 것이 기원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를 기원으로하여 전 세계로 확장된 것은 이슬람 세력과 함께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무슬림들이 예배 시 졸음을 쫓기 위해 각성효과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섭취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이슬람을 통해 확산되다 보니 유럽에서는 도입 초기에 커피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커피를 우연히 마시기 시작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찾아 섭취하기 시작하면서, 전 유럽으로 커피가 자연스럽게 확산되었다. 우리나라에 커피가 도입된 것은 꽤 늦은 시기인 19세기 말로 알려져 있다. 서양인들이 조선에 유입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즐겨마시던 음료인 커피도 국내에 소개되었는데,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고종 황제께서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전해진다. 서양에서 들여온 탕약이라고 하여 커피를 양탕국으로 부르거나, 커피의 발음을 한자로 음차한 가배라고 불렀다고 한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19세기 말이었지만, 십 수 년 전만 해도 커피는 그렇게 대중적인 음료는 아니었다. 씹쓸한 맛은 둘째 치고, 커피 자체의 인식이 어른들이 향유하는 음료라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 어린 학생들은 마시지 못하게 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찻집, 다방 문화에서, 2000년대 초반 세계적 카페 체인점인 스타벅스가 국내에 입점하면서, 본격적인 커피 열풍이 불기 시작했고, 이후 국내에서도 굼직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개인 카페도 많이 늘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했다. 이제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커피는 기본 음료로 팔고 디저트가 중심이 된 새로운 카페 브랜드들이 생기거나 집에 커피 드립머신들을 들여놓고 원두를 직접 내려 커피를 먹는 등, 커피는 대중적으로 널리 보급된 정도를 넘어서서,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음료가 되어버렸다.

이제는 일상적인 음료가 되어버린 커피는 흔히 찾는 ‘깔끔한 맛’ 이외에도 다양한 효능이 있다. 2008년 9월 1일자 영국 인디펜던트지에는 여러 연구가 진행되며 밝혀진 대표적인 효능이 소개되었는데, 가장 기본적인 각성효과 외에도, 기분을 좋게 만들어줘 자살률을 낮추기도 하며 심한 운동을 마친 운동선수들의 회복을 돕는다고 한다. 또한, 뇌세포를 파괴하는 콜레스테롤을 억제하여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의 위험성을 낮춰주고, 심장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등 특정 질병의 발병확률을 낮춰준다고 한다. 하지만 모든 음식들이 그러하듯 부작용도 밝혀져있다. 아주 당연하게도, 카페인 존재하므로 카페인 유발성 두통을 조심해야하고 자주 커피를 마신다면 카페인 중독에 빠질 수 있다. 카페인중독은 각성효과에 익숙해진 상태가 지속되는 상태인데, 딱히 금단증상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커피 섭취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담배를 피우며 섭취한다면 고혈압, 암 발병률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술과 함께 섭취할 경우 심장에 큰 무리가 오거나 동시에 소화기 계통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져 있다.

이렇게 장점과 부작용이 뚜렷한 커피를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지한 하루 카페인 권장 섭취량은 400mg이다. 이를 우리가 흔히 마시는 커피에 대입해보면 하루 한 잔에서 두 잔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한다.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커피! 바로 오늘 식사 후에 가볍게 한 잔하며 바쁜 학교생활 속 소소한 재미를 찾는 것은 어떨까?

어벤져스2 : Age of Ultron 재밌게 보기

본과 2학년 조 형 준



The Avengers : Age of Ultron (이하 어벤져스 2) 가 4월23일 드디어 개봉하였습니다. 2000억이 넘는 제작비, 한국 배우 수현의 출연, 서울을 배경으로 한 액션 장면 등 다양한 흥행요소들이 넘쳐나는 이번 영화는 역시나 개봉과 동시에 모든 극장을 먹어 삼켜버렸습니다. 한명만 나와도 두 눈이 휘둥그레지는 슈퍼히어로들이 단체로 나와 눈앞에서 전투를 펼

치는 어벤져스2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흥미를 끄는 영화입니다. 단순히 어벤져스2 내용을 소개한다면 스포일러...가 되어 버릴 테니 어벤져스2를 조금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마블 코믹스, 그 순서를 알아보자

어벤져스에 등장하는 수많은 히어로들, 그 각자의 스토리들 또한 마블코믹스에선 영화로 만들어 제작하고 있습니다. 마치 소녀시대나 빅뱅이 그룹 활동을 하고 또 흩어져 개인 활동을 하듯, 어벤져스의 영웅들은 헤어 모여를 열심히 반복하고 있죠. 하지만 아쉽게도 마블에서는 시대적 순서대로 영화를 개봉하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지금 소개드리는 순서는 개봉순서가 아닌, 영화의 연결고리를 이어나갈 시대적 순서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① 캡틴 아메리카 : 퍼스트 어벤저

어벤져스의 캡틴이 등장하는 영화입니다. 사실상 어벤져스 리더의 탄생을 그리고 있으며, 캡틴 아메리카의 인간적인 모습이 보고 싶다면 추천합니다!



② 아이언맨1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억만장자이자 바람둥이인 '토니 스타크'라는 매력적인 캐릭터를 처음 만날 수 있는 영화입니다. 고철덩어리가 엄청난 수트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③ 인크레더블 헐크

녹색 괴물의 탄생기입니다. 감마선의 노출로 인해 분노하면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는 괴물이 되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주연배우가 애드워드 노튼 인데, 후에 어벤져스 촬영엔 참가하지 않아 마크 러팔로가 어벤져스의 헐크를 맡게 되었답니다.)



④ 아이언맨2

아이언맨이 전 세계적으로 더욱 인기를 끌게 된 작품이 아닌가 합니다. 토니 스타크가 자신이 아이언맨임을 밝히며,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며 생기는 갈등을 그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시리즈를 보며 마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인생이 아이언맨과 동일하게 흘러가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⑤ 토르1 : 천둥의신

드디어 어벤져스 팀에 합류할 신이 등장합니다. 다른 캐릭터들은 모두 인간의 틀 안에 있지만, 토르만큼은 신의 영역에 존재하는 영웅입니다. 이번 어벤져스2에서 자신의 무기인 망치 (몰니르의 망치)를 오직 자신만 이룰 수 있음을 뽐내는 장면이 인상적이네요.



⑥ 어벤져스1

첫 번째로 영웅들이 힘을 모아 뭉치게 되었네요. 개인적으로 세상을 구하기 위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던 히어로들이 이번엔 한 곳에 모여 힘을 합쳐 싸웁니다. 슈퍼히어로들이 모인 만큼 '지구'를 걸고 전투를 할 만큼 스케일이 어마어마하네요.



⑦ 아이언맨3

아이언맨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단독출연 시리즈가 무려 3편째네요. 제가 본 슈퍼히어로물 중 가장 재밌게 본 작품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화려한 전투와 멋진 액션장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슈퍼히어로인 아이언맨과 평범한 인간인 토니 스타크 사이의 정체성의 갈등을 잘 표현해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 꼭 보세요!



⑧ 토르2 : 다크월드

어벤져스 활동이 끝나고 다시 신들의 고향 아스가르드로 돌아온 이후의 토르 이야기입니다. 토르의 야성미를 좋아하는 여자 관객 분들이라면, 토르만 2시간 동안 쪽~ 볼 수 있어요!



⑨ 캡틴 아메리카2 : 윈터 솔저

캡틴 아메리카의 절친 버키가 윈터솔저로 돌아와 그와 대결을 펼칩니다. 어벤져스 팀 내에서 가장 무기와 초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원초적 무술을 좋아하는 그의 액션이 그림다면 추천!



⑩ 어벤져스2 : 에이지 오브 울트론

다시 뭉친 어벤져스 팀들의 이야기. 내용은 직접 영화관에서 확인하세요!

2. 슈퍼 히어로가 한국에서 전투를 한다

촬영이 결정된 순간부터 국내에 수많은 화제를 몰고 왔던 어벤져스2의 한국촬영. 헐리우드 영화가 국내에서 촬영된 경우가 처음은 아니었으나, 이토록 전 세계의 모든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영화가, 그것도 잠깐 스쳐지나가는 것이 아닌 20분간의 전투씬의 배경이 된다는 것은 충분히 화제가 될 만 했습니다. 인터넷에선 어벤져스 팀이 김밥천국에서 회식하는 사진도 돌아다녔습니다.

실제로 영화에 등장한 한국의 모습은 당초 기대했던 광고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평소 우리가 아는 길이 나오고, 우리에게 익숙한 자동차들이 전복된다고 그 영화가 더욱 익숙하고 우리에게 와 닿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단순히 슈퍼 히어로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추격전을 펼치며 초능력을 사용한다는 것은 유쾌하며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여배우 수현의 출연도 화제였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유능한 과학자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는데, 똑 부러지면서도 당찬 모습을 잘 연기한 것 같았으며, 개인적으로 스칼렛 요한슨보다 수현의 모습이 더욱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3. 스파이더맨의 합류

어벤져스1 제작 당시부터 말이 많았던, 스파이더맨! 거미인간 스파이더맨이 드디어 어벤져스 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마블코믹스의 대표적인 히어로인 그가 지금껏 어벤져스에 합류하지 못했던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바로 판권... 스파이더맨의 판권을 소니픽처스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극적으로 마블

과 소니픽처스가 캐릭터 공유를 합의하였고, 자연히 스파이더맨의 어벤져스3 합류설은 사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어벤져스2의 쿠키영상에 스파이더맨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마블이 제작한 영화의 쿠키영상은 항상 속편을 예고하는 형식을 가지는데, 스파이더맨이 등장하지 않은 점은 스파이더맨의 합류가 확실한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2016년에 개봉될 예정인 캡틴아메리카3 : 시빌워에 스파이더맨의 출연이 확정되며 전 세계인들의 기대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어벤져스 팀에 스파이더맨이 합류한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가슴 설레네요. 하루빨리 그 모습을 볼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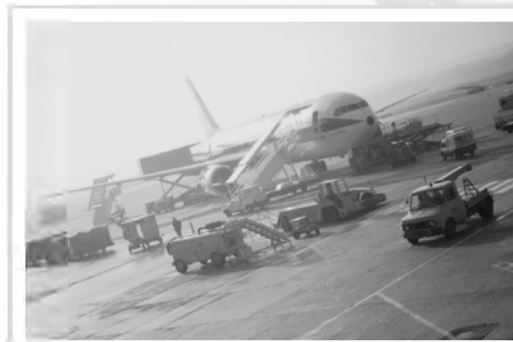
위에서 소개해드린 다양한 부분 말고도 무궁무진한 흥미요소를 가지고 있는 어벤져스 및 마블코믹스 시리즈! 단순히 영화를 보는 것도 좋지만, 약간의 배경지식과 포인트를 챙겨가서 더욱 즐거운 영화관람 되세요!

세계 10대 금지구역

본과 1학년 노현영

1. 미국 네바다 주 Area 51

‘Area 51’은 미국 네바다 주에 위치한 군사 작전 지역으로 정식 명칭은 그룸 레이크(Groom Lake) 공군 기지로 위도 51도에 위치하고 있어 51구역으로 불린다. 이 지역은 1955년 정찰기인 U-2기를 최초로 네바다 주에 보내면서 설립된 것으로, 이후 신무기 개발 및 시험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철저하게 비밀 기지로 여겨졌다. 한동안 미국 정부는 해당 기지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2013년 6월 미국중앙정보국(CIA)의 기밀문서가 공개되면서 이 지역의 실체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관할지인 탓에 출입 금지 지역에 조금이라도 진입 시에는 즉각 발포하거나 체포해버린다. 또한 촬영도 금지되어 있고 허가를 요청해도 거절당하기 때문에 취재도 불가능하다. 금지구역이다 보니 사람들 사이에서 이 지역은 무엇을 하는 곳인지에 대한 추측들이 많다고 한다. 예를 들면, 미국의 비밀리에 연구하는 스텔스 전투기의 연구시설, UFO의 연구시설, 세계 각국의 미스터리한 것들을 모아서 연구하는 비밀시설, 미국이 비밀리에 연구하는 무기 연구시설, UFO들이 거주하는 지역, UFO들과의 교신을 통해 접선을 하고 있다는 시설과 같은 다양한 추측들이 존재한다.



2. 체르노빌 금지구역

체르노빌 금지구역은 체르노빌 원자력 사고로 인 해 발전소 주변 30km를 말한다. 체르노빌 참사는 1986년 4월 26일 우크라이나 공화국 수도 키예프시 남방 130km 지점에 있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의 4호 원자로 폭발에 의해 방사능이 누출된 사건을 말한다. 이로 인해 발전소에

서 누출된 방사성 물질들이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와 러시아 등에 떨어져 심각한 방사능 오염을 초래했다. 이 사고의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방사선 노출로 인하여 기형아가 태어나는 등 그 피해는 실로 엄청나며 인근 유럽 국가에 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결국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인간이 만들어 낸 인위적인 재난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으로 체르노빌은 금지구역으로 정해졌다고 한다.



3. 평양 room 39

북한 평양에 있는 방 중에 39번 방이 있다고 하는데 일반인의 접근이 금지되어 있는 정부 관할 공간이다. 평양에서도 꽤 고급스러운 빌딩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반인에게 공개는 절대 안 되고 있다. 이곳에서 마약거래와 무기 밀수가 일어나기도 하고 내부에서 기밀회의를 진행할 때나 외국과 거래를 할 때 이용된다는 설이 있다. 또한 최근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

상류층의 타락한 생활이 도를 넘고 있다고 하는데 이와 같이 북한 상류층의 비밀스러운 모임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듯 보인다.



4. 영국 RAF Menwith Hill 공군 기지

RAF Menwith Hill은 영국 잉글랜드 북동부 노스요크셔(North Yorkshire)에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1960년에 만들어져 1970년에 인프라가 확충되기 시작했다. 220km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의 시설은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되고 있어 일반인의 출입은 어렵다. 일부 학자들과 민간단체에서 내부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국가

기밀에 속하는 부분으로 통보되어 철회되었다. 이러한 곳이 만들어진 이유는 냉전 시대 러시아를 좀 더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현재에는 다방면으로 기능하고 있다. 3분의 2

가 미국요원, 육군 및 해군, 해병대로 구성되어 고주파에서 나오는 통신 모니터링, 무선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각종 테러와 위험을 미리 알아차린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개인의 사생활까지 모두 도청하고 있다는 설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그만큼 미스터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라고 한다.



5. 모스크바 Metro 2nd

모스크바 지하철과 분리되어 비밀리에 존재하는 지하철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스탈린 시대에 건설 되었으리라고 추정되며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비밀 지하철로 국가 보안위원회의 암호명 D-6라고 한다. 이곳은 비상 시에 쓰여지는 비상 방공호나 핵 공격을 대비한 지하통로로 크렘린궁과 중요시설을 통과하게 되어 있고 지하 7층 깊이에 위치해 있다고 한다.



6. 프랑스 Lascaux Cave

Lascaux Cave는 프랑스 남부 도르도뉴(Dordogne)에 위치한 몽티냐크(Montignac) 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동굴로 1940년 9월 12일에 마을 청년들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었다. 이곳에 상부 구석기시대(Upper Paleolithic)의 동굴 벽화들이 보존되어 있고 2000개 가량의 그림들이 있는데 동물, 인간, 추상적인 기호로 크게 3개의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주로 거대한 동물들의 모습을 그림에서 발견할 수 있고 1979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하다. 1948년 동굴이 대중에 공개되었으나 이산화탄소, 열기, 습기, 그리고 다른 오염원들에 의해 벽화들이 손상됨으로써 1963년에는 동굴 벽화의 보존을 위해 출입이 금지되었다. 현재는 복제 벽화인 Lascaux II가 만들어져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있다.

7. 호주 Pine Gap

호주 Pine Gap은 호주 중부 사막지대에 위치한 곳으로 앨리스 스피링스(Alice Springs)에서 남서쪽으로 19km 떨어진 곳이라고 한다. 이곳은 미국의 비밀군사기지로 추정되며 CIA, NSA, NRO 등이 합동 운영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미국이 지구 궤도상에서 운영하는 모든 첩보위성들의 지상 통제센터라고 한다. 하지만 호주 정부를 비롯하여 시민과 학자들이 시설의 정확한 목적

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호주 국방성은 명령을 유보하고 있고 이곳의 건물 모양까지 이상하여 비밀기지와 관련된 설들이 많이 존재한다.



8. 러시아 관할 핵 미사일 구역

이 구역은 러시아에서도 존재여부에 대한 확실한 입장이 없고 관련 정보 공개조차도 되지 않는 곳으로 일부 담당자들의 증언에 의해 서서히 그 존재가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래서 미국에 대항했던 소련에 의해 마련된 지역이라고 추정될 뿐 확실한 위치도 알려져 있지 않다. 또한 냉전시대 소련이 핵을 실험하던 장소와 보관 장소라는 설이 있고 방사능으로 오염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곳이다.



9. 바티칸 비밀 기록 보관소

바티칸 비밀 기록 보관소에는 바티칸역사에서 중요한 갈릴레오의 재판기록, 독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파문한 교황의 문서, 영국 왕 헨리의 이혼 문서를 비롯하여 중국 황후가 17세기에 비단에 썼던 편지 등이 보존되어 있다. 이곳은 원래 출입 금지구역이었으나 최근에 일반 대중들에게도 공개되기 시작한 곳이라고 한다.

10. 일본 후쿠시마와 일본 동쪽 전역

2011년 3월 11일 도쿄(Tokyo)에서 대략 370km 떨어진 일본 도호쿠(Tohoku) 지방에서 발생

한 도호쿠 대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도쿄전력 때문에 일본 후쿠시마(Fukushima)에서 일본 역사상 최악의 원자력 사고가 발생했다. 원전 건물 4개의 폭발로 태평양을 포함한 주변 지역으로 방사성 물질들이 유출되어 많은 사람들이 방사능에 노출되었고 일본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 주변 30km 지역 철수를 권고함으로써 금지구역이 되었다.



예과생을 위한 10계명!

1. 내가 잘할 수 있는 취미 활동에 매진해 보자!

Why? 본과와 트레이닝은 힘들다!. 지금부터 운동, 악기 등 내가 잘 할 수 있는 취미를 개발하고, 이를 스트레스 해소 수단으로 삼자!

Tip. 하프나 심벌즈 같은 악기 말고 피아노나 기타 같이 혼자 즐길 수 있는 악기가 좋다.

2. 방학 때는 여행을 다니자!

Why? 의사가 되는 트레이닝은 길고 또 바쁘다. 방학을 적극 활용하여 그동안 가보지 못한 곳들을 가보자. 예과 때만 할 수 있는 장기여행은 꼭 해보자!

Tip. 앞으로 학회 등을 통해 갈 수 있는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은 피하자!

3. 다른 과 친구들을 사귀어 보자!

Why? 의대에서 공부하다보면 의학 지식은 풍부하지만 다른 학문에 문외한이 되기 쉽다. 다른 과 친구들과의 교제를 통해 다른 학문을 이해하여 보자!

Tip. 음대생? 무용학과? 신방과? ㅎㅎ

4. 본과 선배들과 교류하라!

Why? PK 실습을 편하게 할 수 있다! 좋은 학점은 덤!

Tip. 의대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5. 외국어를 공부하라!

Why? 이제 한글 논문은 없다! 영어 학습을 열심히 하자! 중국어도 하면 좋다!

Tip. 몰려오는 중국인을 기억하라!

6. 인문학에 심취하라!

Why? 의사는 병 자체가 아닌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이다. 인간에 대한 공부를 하자!

Tip. 대학추천도서를 참고하자!

7. 의학사에 관심을 가지자!

Why? 의학사를 잘 알게 되면 의학을 이해하는 수준의 폭이 넓어진다!

Tip. 의학 오디세이, 한국의학인물사를 읽어보자!

8. 의료관련 신문을 읽어라!

Why? 현재 의료계의 이슈를 잘 알고 있어야 미래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Tip. 원격진료, 수가제도 등의 현안에 민감하자!

9. 해외병원 임상 실습을 준비하자!

Why? 해외병원 실습을 통해 선진 의료 시스템을 경험해보자!

Tip. 미국의 병원이 실습하기도 여행하기도 좋다!

10. 기초과목에도 관심을 가지자!

Why? 본과 과목을 이해하기 위해 기초 과목의 올바른 이해가 중요하다! 기초의학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아홉. 동아리 소개

- ▶ 아름(유화 그림동아리)
- ▶ 포커스(사진동아리)
- ▶ 행림(서예동아리)
- ▶ PMA(봉사 동아리)
- ▶ 여명(봉사동아리)
- ▶ 천광(봉사동아리)
- ▶ 한빛(봉사동아리)
- ▶ 장승(봉사동아리)
- ▶ 정우회(봉사동아리)
- ▶ 눈사람(스키/스노우보드 동아리)
- ▶ 포물선(농구동아리)
- ▶ 쿠스막(산악부)
- ▶ MII(축구동아리)
- ▶ CPR(춤동아리)
- ▶ 이검(검도동아리)
- ▶ 반야회(불교동아리)
- ▶ CMF(기독교동아리)
- ▶ 카당(카톨릭동아리)
- ▶ Medical sound(음악밴드)
- ▶ 에델바이스(아카펠라/합창동아리)
- ▶ 우리하나(기타, 노래동아리)
- ▶ MCO(오케스트라)
- ▶ 현우회(클래식기타동아리)
- ▶ 의향회(클래식음악동아리)

경북의대 미술동아리

아 리



아름은 1974년 미술동우회를 시작으로 하여 1976년부터 현재의 명칭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아리입니다. 아름은 여러 미술 장르 중에서도 '유화'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만큼 많은 졸업생 선배님들이 후배들에게 항상 따스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십니다.

또한 학교생활을 친절하게 도와줄 많은 재학생 선배들이 있습니다. 아름은 사람의 온기가 가득한 동아리입니다.

어떤 활동을 하나요?

행운제 전시회(5월), 여름방학 MT, 가을 스케치여행, 겨울 전시회(1월)

학기 중에 특별한 활동이 없고, 그 어떤 동아리보다 시험 스케줄을 철저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미술에 소질이 있어야 할까요?

저희 대부분 아름에 와서야 처음으로 붓을 잡아봤습니다. 유화를 그려본 경험이 없더라도 동아리 활동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더 중요시 합니다.

2015년 새롭게 함께 할 40대 아르미인을 기다립니다♡

회 장: 윤오준 (2학년) 010-3867-8886

부회장: 이겨레 (2학년) 010-5536-1788

총 무: 이선휘 (2학년) 010-2628-2005

하 리



경북대학교 의학과 189

아름

FOCUS

경북대 의대·의전원 사진동아리
SEIZE ETERNITY IN AN INSTANT

“ 순간을 영원으로 ”

안녕하십니까! 사진 동아리 포커스입니다.
우리 포커스는 1969년을 시작으로 올해 46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현재, 재학생만 44명의 메이저 동아리로 사진에 대한 열정과
사람에 대한 정을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후배 간의 끈끈한 정! 동기들 간의 즐거운 추억!
반복되는 시험과 일상 속에서의 일탈과 재미!
이 모든 것을 사진, 아니 사람 동아리!! 포커스에서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비싼 카메라가 없어도, 사진에 대해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사진에 대한 열정! 그거 하나면 됩니다 !

1년 중 두 번의 전시회, 두 번의 MT& 출사,
동아리 사람들과 산과 바다로 떠나는 번개 출사& 친목도모 모임.
빡빡한 의전원 생활을 한 장의 사진과 함께 즐겁게 보낼
여러분을 포커스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 장	47대	우 민 석	010 4622 8509
총 무	47대	이 혜 승	010 7109 4105
부회장	48대	박 단	010 7423 0313

190 행운 제3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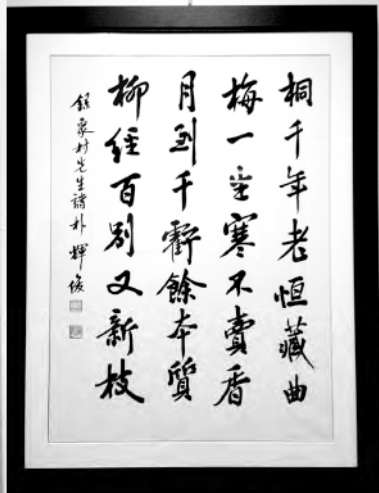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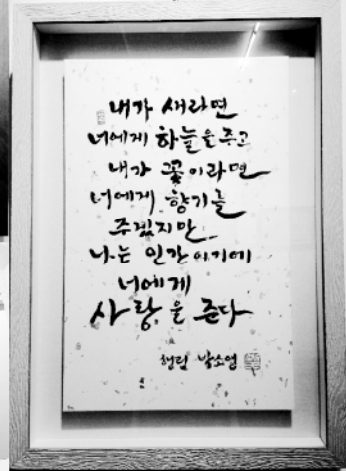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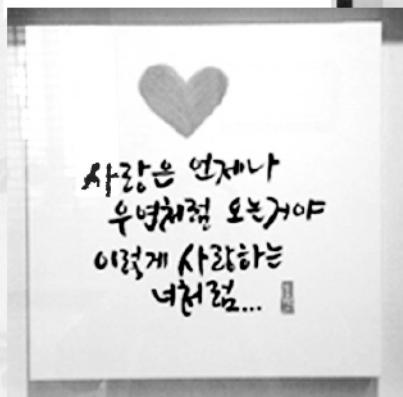


서른번째 행림서전 杏林書展



일시: 2015년 2월 6일(금)-2월 8일(일)
장소: 대구광역시립 중앙도서관 1층 가운데갤러리

慶北大學校 醫科大學 杏林總書會





의료봉사 동아리 PMA

(Pharmacy Medical Association, 의약회)

PMA 는 경북대 의대, 대구가톨릭대 약대, 영남대 약대 총 3개 학교의 연합 동아리입니다. 매년 여름 2박 3일동안 무의촌에서 전공의 선배님들과 약사 선배님들과 의대 약대 재학생들이 함께 의료봉사 활동을 하는 동아리입니다.



요즘은 무의촌 지역이 거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의료시설이 있어도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이용하지 못 하는 분들이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우리 PMA는 그런 지역을 찾아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쉽게 모일 수 있는 마을회관 및 분교 등에 진료소와 약국을 설치하여 그 마을과 주변 마을의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를 대상으로 재학생들은 혈

압 및 혈당 등 을 체크하고, 전공의 선배님들이 진료를 봐주시며, 약사 선배님들이 약을 지어주십니다. 전공의 선배님들이 진료하실 때는 재학생들은 옆에서 진료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또한 여러 의료기기 등을 이용하여 농사일로 지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피로를 풀어드리고, 말동무가 되어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PMA 는 40년이 넘는 긴 역사를 자랑합니다. 2015년 신입생들이 45代 가 되는 전통의 동아리입니다. PMA 구성원은 500분이 훌쩍 넘으며, 경북대 병원에 저희 PMA 선배님이신 교수님이 10분 이상 계시고, 대구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 수많은 의사 선배님들과 약사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의료봉사활동, PMA의 밤, 신입생 환영회, 봄나들이, 겨울 MT, 국시100일 행사, PK 진원식, 졸업생 환송회를 비롯하여 작은 소모임을 포함한 많은 행사에 졸업하신 선배님들도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십니다. 그 분들이 운영하는 병원 이야기, 약국 이야기, 학창 시절 이야기 등은 재학생들의 학교생활과 진로 결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의촌 봉사활동에는 자녀분들까지 데리고 올 정도로 많은 애정을 갖는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의료봉사를 하기 전에는 대구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과 약사 선생님들을 찾아뵙습니다. 각 지역의 맛있는 음식들을 사주시고 동아리 활동에 보탬이 되라며 지원금도 많이 주십니다. 그 때 받는 수많은 지원금들은 동아리 활동에 큰 힘이 됩니다.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탄탄히 다져온 선후배간의 끈끈한 정, 3개 학교 연합인 만큼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넓힐 수 있는 인간관계, 그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 게다가 의대생으로서의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무의촌 의료봉사활동까지... 이 모든 것을 함께할 PMA 신입생을 기다립니다.



여 명



안녕하세요, 신입생 여러분, 입학 축하드립니다!!!

저희는 노인 봉사 동아리 '여명'입니다. 선배님들과 후배님들의 많은 도움과 관심 덕에 여명이 벌써 26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여명 진료소를 운영하여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동안 진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명 출신 선배님들이 오셔서 진료를 총괄해 주시고 학생 여명인들은 혈압, 맥박, 혈당, 약 제조를 돕고 있습니다. 또, 같은 건물에서 공부하는 경북대 간호학과 학생들과 연합을 하여 좋은 분위기 속에서 즐겁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봉사가 끝나면 맛있는 저녁이나

간단한 티 타임을 가지며 수다도 떨면서 선, 후배 끼리 서로 친한 친구처럼 지냅니다^^.

여명에서 직접 어르신들을 진료해보면 학업에도 큰 도움이 되고 선배님들이나 간호학과 학생들과도 친해 질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명에서 봉사참여 여부는 전적으로 개인에게 맡기며 본인이 올 수 있으실때만 오셔서 부담 없이 활동 하시면 됩니다. 신입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매달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권진영 선생님,
그리고 여명회원들 입니다.

26대 소장 김성훈 : 010-6545-7202

26대 총무 박정민 : 010-4811-4732



경북대학교 의학과 193

천광 (하늘빛 꿈의 시작)

천광은 경북의대/의전원 유일의 보육원 봉사동아리 입니다.



천광은 한 달에 한번, 토요일에 대구 산격동에 위치한 '천광원'이라는 보육원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내용은 생일이 있는 친구들의 생일 파티를 한 후, 한 가지 활동 주제를 정해 색종이 접기, 점토 만들기, 그림 그리기, 케익 만들기, 야외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원활동 이외에 행운제 기간 중에 천광 주막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천광 아이들의 생일 선물을 사거나 활동비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 혹은 겨울 방학 중에는 중, 고등학생 친구들과 함께 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또한 일 년에 한번 홈커밍데이 '천광의 밤'을 통해 졸업하신 선배님들과의 맛있는 식사와 좋은 시간을 가진답니다.

우리 아이들은 모두 착하고 순수한 친구들입니다. 처음엔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만 아이들은 금방 마음을 열고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시험도 많고 힘든 의대 생활... 조금씩 지쳐갈 무렵, 아이들과 함께한다며 미소가 번진 :) 여러분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좋은 선배님들도 많은 천광에서 재밌는 추억 만들어갑시다.



우리 함께 아이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회장 : 강원일 (010-4254-1017)

총무 : 이채진 (010-6505-1872)

의료 봉사 동아리 한빛



신입생 여러분 경북대 입학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 ! ! !

안녕하세요. 봉사 동아리 한빛 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반월당역 쪽에 있는 카톨릭 회관이라는 곳에서 매달 첫째 주와 셋째 주 일요일에 12시 부터 14시 까지 외국인 근로자분들을 진료하고 약을 처방해 드리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 재학생들은 차트를 찾고 환자를 예진 (혈압, 혈당 측정, 병력 청취), 채혈, 약 조제 등을 하고 있습니다.

매 봉사마다 졸업하신 선배님 한분씩 나와 주셔서 진료를 봐주시고 봉사가 끝난 후엔 재학생들과 식사를 하기 때문에 선후배의 교류도 활발합니다. 재학생들 끼리는 봉사 외에도 모여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거나 같이 여행도 하면서 돈독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봉사는 본인이 원할 때 참석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봉사활동에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에 돈독한 선후배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좋은 동아리 입니다.

한빛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을 묻거나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한빛’ 진료소에서

의미 있는 ‘나눔’을 함께하고자 하시는 분,
즐겁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자 하시는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회 장 33대 정재균 010-2882-4955
부회장 33대 김도형 010-5533-0887



경북대학교 의학과 195

경북대학교 의전원/의대 외국인 근로자 진료소

장 승

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의전원/의대 외국인 근로자 진료소 '장승'입니다. 저희는 매달 2,4 번째 일요일 14시부터 17시까지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열리는 외국인 근로자 진료소(대구의료원 내)에서 의사 선생님들의 진료 업무 보조(기초검진, 접수, 안내, 진료보조 등)를 맡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대구의료원과 대구소재 병원 전공의협의회에서 직접 지원을 나오시고 경북의대 '장승', 영남의대 '나눔자리', 경북대 중국어과 학생들이 참여하여 원활한 진료가 이루어 질 수 있게 매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대학교 의전원/의대 '장승'에서는 재학생 총 34명(4학년 12명 3학년 9명 2학년 13명)이 활동하고 있고 봉사활동 자체가 스스로의 의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자율제로 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분들과 좀 더 소통하고 그 분들이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에서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대 커리큘럼 상에서 배운 혈압, 심전도 등도 봉사활동 과정에서 측정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으며 졸업 전까지 필수적으로 채워야 하는 봉사 시간도 자연스레 채워 나가실 수 있습니다. 또 경북대학교 의전원/의대 뿐 아니라 영남대 의대, 간호대, 경북대 중국어과 학생들도 같이 참여하고 여러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오시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하면서 인간관계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북대 의과대학-간호대학 연합 테니스 동아리

정우회



안녕하세요, 51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테니스 동아리 정우회입니다! 역사가 깊은 만큼 실력 있고, 든든하게 지원해 주시는 선배님들도 넘치는 저희 동아리를 소개합니다.

1. 평생 스포츠 테니스

테니스는 평생 스포츠입니다. 새벽마다 코트에 나와서 게임하시는 모닝클럽 '할아버지' 선배님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면 할수록 테니스 특유의 묘미와 승리의 짜릿함에 빠져들게 되는 운동인데요, 한 평생 즐길 수 있는 스포츠를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2. 교내에 마련된 테니스 코트

공부에 쫓기다 보면 운동은 뒷전에 몸 관리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정우회의 테니스 코트는 교실에서 걸어서 1분! 왔다 갔다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주 화요일, 수요일, 주말마다 낮이든 밤이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대회를 통한 타 대학 의대생 및 간호대생과의 교류

5월에 서울대에서 열리는 "전국의학대학 테니스대회", 여름에 열리는 "전국8개국립의대 테니스대회", 겨울에 열리는 "전국3개국립의대 테니스 대회"를 비롯한 여러 대회를 통해 타 대학 의대생 및 간호대생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4. 화기애애한 동아리 내 분위기

운동 동아리 특성상 모여서 함께 연습하고 게임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돈독한 정이 쌓이기 마련입니다. 술을 강요하는 엄한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고 서로 형, 동생 하면서 격 없이 테니스를 즐길 수 있는 동아리입니다.

5. 실력 있는 정우회

2010-2015년 '3개국립의대 테니스대회' 우승, 2010년, 2012년 '전국8개국립의대 테니스대회' 우승 등, 어느 대회를 나가도 항상 상위권의 성적을 내는 실력 있는 동아리입니다! 정우회가 참여하는 큰 대회 3개 중에서 2개는 여름/겨울 방학을 이용해 참가합니다. 방학 때 마다 2주간 실력향상을 위한 강습회가 우수한 성적을 내는 정우회의 비결입니다. 테니스를 배우고 싶다는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은 정우회에서 많은 추억과 즐거움을 얻어 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름

경북대학교 스키/스노우보드 동아리 눈사람(SNOWMAN)



Winter 눈사람은 경북대학교 스키/스노우보드 동아리로, 2회의 겨울캠프가 가장 주요한 활동입니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재학생과 현재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 OB선배님까지 두루 두루 캠프를 참석하여 친목을 다지는 동아리입니다. 14-15 시즌에는 1차는 하이원, 2차는 용평 리조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각자의 스케줄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1, 2차 중 1회 이상 본인이 맞는 스케줄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 눈사람에는 스키/스노우보드 실력자가 많기 때문에, 어느 레벨의 슬로프이든 함께 라이딩을 즐기실 수 있으며, 첫 초행길의 신입생도 자세하게 스키, 스노우보드에 입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스키, 스노우보드가 궁금하다면? 눈사람에 문을 두드려보세요-!



Summer 눈사람은 여름 방학 때 1회의 여름 캠프를 기획합니다. 작년 여름 캠프에서는 가까운 팔공산 오크밸리에 다녀왔습니다. 학기 중의 활동이 거의 없을 정도로 최소화 하고, 1박 2일의 캠프를 기획하기 때문에 전혀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스키, 보드를 좋은 사람들과 즐기고 싶다면! 여러분의 삶이 소중하고, 즐거워야 한다면-! 자신 있게 눈사람을 추천합니다 :)

회장 : 13대 김보경 010 7531 1626 / 부회장 : 14대 김동효 010 3824 3413



경북대학교 의학과 농구동아리 포물선(PARABOLA)

신입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경북대학교 의학과에 입학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땀 흘리고, 서로 몸 부딪히며 웃고, 운동의 참의미를 아는 분이라면 주저 없이!! 농구동아리 포물선을 추천합니다!

여기엔, 남학우 선수뿐만 아니라 여학우 매니저들도 포함됩니다.

연습과정은 크게 몸풀기, 명랑운동회, 연습 및 시합으로 나뉘집니다.

먼저 농구장에 오면, 다치지 않기 위해 간단한 조깅을 합니다. 그 다음엔 스트레칭을 하여 몸을 충분히 풀어줍니다. 스트레칭 후에는 패스훈련이나 레이업연습 등이 진행되며, 여학우 매니저분들도 함께 합니다. 그 다음엔 5on5 풀코트 시합을 합니다.

여학우분들께 강조 드리고 싶은 점은 포물선에선 매니저는 그저 구경만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같이 스트레칭과 슛 연습도 하고, 풀코트연습 중에는 기록지도 작성하며 농구경기를 보는 재미도 배울 수 있습니다!!

방학 중에는 대구&부산에 있는 약 6개 의대가 참여하는 대구한마음대회, 재학생들만 참여하는 YB대회, 겨울에는 사천시에서 주최하는 전국 의료인대회에 나갑니다. 대회에 나가면 모든 학우들이 함께 웃고 즐기면서 우승이라는 참 맛을 느낄 수 있고, 선배·동기·후배들과 잊지 못할 추억을 쌓을 수 있습니다.

포물선은 절대 농구 잘하는 사람이 아닌, 이 글을 읽고 가슴이 뛰는 열정 있는 당신을 원합니다.

정말 농구 처음 해보셔도 됩니다. 당신의 Heart 만 있다면 언제든 환영입니다.

궁금하신 것 있으면, 문자나 카톡 하셔도 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YB대회 준우승트로피



2014년 포물선 OBYB전

회 장 26대 장태양 : 010-8347-0247
부회장 25대 김유정 : 010-7279-5027

아홉

경북의대 산악부
KUSMAC

KUSMAC
Kyungbuk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Alpine Club

안녕하세요~! 경북의대 산악부 KUSMAC입니다!!

여러분을 꿈과 사랑이 가득한 경북의대 산악부 KUSMAC에서 인사드립니다!!



설악산-대청봉(공룡능선)



지리산-천왕봉

우리 산악부의 Main event는 설악산으로 떠나는 여름산행과 지리산으로 떠나는 겨울산행입니다.

한국의 산을 대표하는 설악산과 지리산 종주로 멋진 추억을 만들어 보아요!!



산악부는 가족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의 새로운 가족이 되길 마음속으로 바랍니다.

어쩌면 산행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같은 마음으로 서로 돕고 의지해 가며 평생 나눌 수 있는 추억을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0 행운 제36호



축구 동아리

M11 (엠일레븐)



안녕하십니까! 경북대 의전원 축구 동아리 M-11 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경북 의대 자타공인 최고의 분위기를 자랑하는 동아리입니다. 그 누구에게 물어도 저희만큼 즐겁고 신나고 관계 또한 끈끈한 동아리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재미있는 사람도 많고, 서로 터놓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가지기 때문에 편하고 즐거운 동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소 딱딱해질 수 있는 선후배간에 서로 형 동생 하고 지내면서 축구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서로 공유하고 하나 되는 동아리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동아리 생활 뿐 만 아니라, 나아가 의대생활에서도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축구동아리라고 하면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들어가야 한다?? 저희 M-11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축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는 것, 축구게임을 좋아하는 것 등 다양한 축구관련된 것들을 좋아하는 그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GO, GO! 뿐만 아니라, 축구를 전혀 모르는 분들도 사람을 좋아하고 앞으로의 의대 생활을 밝고 즐겁게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수많은 동아리 중에 우리 엠일레븐과 함께 하기를 강력 추천합니다!!

이전에 어떤 스포츠 또는 취미생활을 즐기셨을지라도 이곳 경북의대에서 축구라는 이름으로 동아리생활을 하고 또한 그 동아리 구성원으로서 하나 되길 원한다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2015년!! <M11>과 함께 즐거운 의대생활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께 이렇게 외칩니다!

자! 파이팅 하겠습니다. 일레븐~~~~~악!



아홉

당신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C P R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댄스동아리 CPR입니다.

저희는 춤을 사랑하고, 춤을 배워보고 싶고, 춤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동아리로, 올해 7년차에 접어들었네요. 새로 생긴 동아리이니 만큼, 동기, 선배님들의 애정도 각별하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동아리입니다.

새터공연, 행운제 공연을 중심으로, 의대/의전원 연합 동아리 대회 및 길거리 공연 등을 함으로써 공연의 설렘, 그리고 춤을 통해 자기 자신을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무대 위에서 나를 비추는 조명과, 그리고 열띤 응원을 보고 있으면 심장이 쿵어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운동도 되고, 조금씩 향상되어 가는 춤 실력을 보면서 더 배우고 싶다! 잘하고 싶다! 는 열정에 불타오르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춤을 배워 보고 싶은데, 잘 추지 못해서 두렵다? 상관없어요. 다들 처음 시작하는 사람도 많고, 몸치로 시작한 사람도 많지만, 하다 보면 늘게 되니까요. 춤을 통해 즐거움을 찾는 것이 모토이기 때문에,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 없어요. 누구든지 멋진 댄스 공연을 통해 나의, 그리고 우리의 무대를 지켜볼 관객의 심장에 뜨거운 무언가를 다시 쿵어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좋고, 운동이 좋고, 춤이 좋다! 혹은 대학교 들어왔는데, 춤 동아리에 대한 로망이 있다! 하는 사람들이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같이 무대에서 호흡을 맞추실 새로운 CPRer를 기다리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연락주세요~

CPR 6대 회장: 예채검 010-3002-4258 / CPR 6대 총무: 이재연 010-3338-0744

202 행운 제36호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과대학 검도동아리

이 검

以劍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검도동아리 以劍(이검)입니다.
현재 재학생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검과 함께할 후배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검은?

학업? 연애? 진로? 이검과 함께 이겨봅시다! 경북의대 유일의 검도 동아리인 이검은 검도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체력을 위해 같이 운동하는 의학도들의 모임입니다.

★이검만의 특징은?

검도는 남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중 하나입니다. 학기 중에는 매주 도장에서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며, 여름방학 일주일, 겨울방학 이주일은 좀 더 밀도 있게 그동안 쌓았던 실력을 가다듬고 보충합니다. 1월 말에는, 전국 의대생 검도대회에 참가해 타의대학생들과 실력을 겨뤄 볼 기회도 가집니다. 올해는 남자부 3위라는 영예로운 수상을 하게 되어 더욱 고무적인 분위기입니다.

★검도를 못해봤다면?

저희 이검의 구성원 과반수가 이검을 통해 검도를 처음 접해 본 학우들입니다. 죽도 한 번 잡아보지 못한 분도 이검과 함께라면 매력적인 검도와 학교생활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검에 관심이 있다면?

매력적인 검도의 세계에 저희와 함께 빠져보실 분, 함께 땀 흘리며 선후배 간의 끈끈한 정을 느끼고 싶으신 분,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신입생에게는 호구와 죽도가 모두 무료로 제공되니 건강한 신체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후배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회장 : 19대 전태하 010-9030-6402 / 총무 : 19대 정혜미 010-68881614



경북대학교 의학과 203

아름



경북대학교 의대/의전원 불교동아리

반야회(般若會)



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의대/의전원 불교동아리 반야회(般若會)입니다. 반야(般若)의 어원은 불교의 근본교리 중 하나로 지혜를 뜻합니다. 저희는 부처님의 지혜를 배우고 이를 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이미 여러분에게 친숙한 종교가 되었습니다. 휴일이나 부처님 오신 날이면 누구나 한 번쯤 산속의 사찰을 방문하여 그 특유의 고요한 분위기를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헤민 스님께서 지으신「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이 세간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것을 보아도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진작 필요로 했던 것은 한번쯤 쉬어가고 조용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동아리에서는 이러한 마음의 여유, 성찰의 시간을 갖고자 하시는 분은 누구나 어울릴 수 있는 동아리입니다.

반야회는 정기적으로 금강사를 방문하여 예불 드리는 법을 배우고 스님과 소통할 수 있는 법회를 가집니다. 곧 다가올 부처님 오신 날과 저희 학교의 축제인 행운제 때는 연등 만들기, 염주 만들기 행사가 있으니 누구나 오셔서 세상에 하나 뿐인 자신의 염주를 만들어 가지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제례의식(위령제)을 하고, 방학 중에는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를 갑니다. 반야회의 창립초기부터 활동하신 선배님들께서는 반야후원회를 따로 구성하시어 물심양면으로 저희 반야회의 활동을 지원해주시고 1년에 한 번씩 반야회-반야후원회 간의 정기적인 모임과 소통의 시간을 가집니다. 선배님들께서는 저희 학생들에게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며 쉽게 읽을 수 있는 불교서적 등을 선물해주십니다.

스님과의 대화, 템플스테이, 누구나 한번쯤 해보고 싶지만 일생에 가 볼 기회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반야회와 함께 소중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떠신지요.



회 장 47대 심창균 010-6810-8893

총 무 47대 김승호 010-5199-9039

204 행운 제36호



CMF(한국 누가회)

한국누가회(Christian Medical Fellowship)는 의료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의,치,한,간호사들과 의,치,한,간호대생들로 구성된 복음적인 초교파적 신앙운동체입니다. 한국 누가회는 회원들의 전인적 신앙성장을 돕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료사회를 변화시키며, 의료를 통해 이웃과 사회와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캠퍼스 모임 - 매주 월요일 예배, 학년 기도회, 아침 기도회
 홈커밍 데이 (졸업 선배님들 모시고 예배 & 교제)
 축제 기간 중 친구들과 교수님을 대상으로 드라마, 댄스, 찬양 등을 선보이는 CMF 카페 운영
 전체 MT, 학년별 MT, 야외 바비큐 파티
2. 대구, 경북 모임 - 경북의전, 경북치전, 대구 가톨릭대, 대구 한의대, 영남대, 동국대 학생들
 그리고 졸업한 선생님들과 함께 개강, 종강 연합예배
3. 전국 모임 - 여름, 겨울 방학 일주일간 전국에 있는 900여명의 의,치,한,간 학생들과 수련회
 겨울 방학 중 3박4일 동안 캠퍼스리더학교, 세계관학교, 사회선교학교, 의료선교학교 등 다양한 주제로 그리스도인 의료인으로 살아가는 배움의 기회를 제공
 방학 중 2주일가량 CMFer들과 졸업선배님들이 함께 인도, 캄보디아, 베트남 등으로 의료선교

신입생 여러분~ 힘든 의전원 생활에서, CMF가 여러분의 버팀목이 되어 드릴게요.^^ 오셔서 여러분들을 많이 기나려온 언니, 누나, 오빠, 형, 친구, 동생들과 함께해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회장 : 3학년 김태경 010-3005-5248 부회장 : 3학년 이진석 010-7735-2149
 총무 : 3학년 김진희 010-4931-2042 클 럽 : knucmf.cyworld.com



아홉

경북대학교 의학과 카톨릭 학생회

카 당

안녕하세요~! 후배님들 입학을 축하드려요. :)

카당은 카톨릭의 '카'와 한자 집당(堂)의 '당'을 합친 합성어로 교내에 있는 하느님의 집을 뜻합니다.

병원성당

매주 토요일 입원해 있는 환자분들을 위해서 병원성당에서 미사가 진행됩니다. 이때 같이 미사를 보면서 전례 및 미사 준비/정리를 도와드리고 봉성체를 통해 환자들을 직접 만나 기도해드리곤 합니다. 이런 병원봉사는 봉사시간으로도 인정되고 있어서 꾸준히 나오면 신앙생활과 봉사시간 두 가지를 잡을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



프로비타

'프로비타'는 대구에 있는 의대/의전원/간호대학 학생연합입니다. 카당에 가입하면 프로비타를 통해 다른 학교 학생들과 만나고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어요.

행운제(팔빙수 행사)

저희 동아리도 행운제 기간 동안 팔빙수와 커피를 팔고 있습니다. 가격도 싸고 맛도 좋아서 행운제 준비로 지친 많은 분들에게 인기만점입니다~ 이렇게 번 돈으로 맛있는 화식도 하러 같이 가요!



의대생활 동안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 때 함께 신앙도 공유하고 마음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카당"으로 오세요~:D

회장 공상민 010-4939-5813 / 총무 김소현 010-2066-6294

2016 행운제36호



〈경북의대 그룹사운드 동아리〉
=*MEDICAL SOUND*=

- 1974년 1대 부터 결성되어 30대 까지 이어진 Rock band 동아리입니다.
- Guitar, Bass , Drum, Keyboard, Vocal, Manager 6개 파트 각각 1명씩으로 구성된 소수 정예 동아리입니다.
- 헤비메탈부터 하드락, 펑크 , 모던락, 가요등 장르를 가리지않고 음악을 좋아하고 연주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 환영합니다.
- 2회 대학가요제 본선진출 : 곡명 : 우산이 없네

- MEDICAL SOUND 활동
- 행운제 공연



- 패밀리 콘서트
- 당대 콘서트
- 크고 작은 비정기 공연



아홉

EDELWEISS

안녕하세요^o^ 반갑습니다!!!

저희는 경북의대의 중창동아리 에델바이스♥입니다.

(가족!!! 에델!!! 가족!!! 에델!!!!)



저희 에델바이스는 다함께 화음으로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중창부터 아카펠라 그리고 비트박스까지 다양한 노래는 마음껏 불러볼 수 있는 동아리입니다.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흥이 많은 사람, 가족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개개인의 노래실력이 뒷받침되면 더욱 좋겠지만 그보다도 서로 목소리 톤부터 음색까지 다르지만 이들이 함께 어울렸을 때 얼마나 좋은 화음이 쌓이는지를 자신 있게 보여주는 동아리가 바로 에델바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어울림’이라는 말은 저의 에델바이스를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에델바이스는 여름방학 때 모여서 연습을 하고 에델바이스의 꽃인 정기공연을 8월에 하게 됩니다. 공연을 준비할 때도 그리고 공연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즐겁지만 매년 많은 분들이 보러 와 주시고 아낌없는 칭찬을 해 주실 때면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에델바이스의 다른 장점 중 하나는 입학하면서부터 선배들의 엄청난 관심과 지원으로 감동하고, 매년 여름 공연을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가족에델”이라는 확실한 소속감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학교의 큰 행사들에 참여하면서 뜻 깊은 학교생활도 보낼 수 있습니다. 졸업식에는 환송가를 부르며 졸업하시는 선배님들을 응원하기도 하고 이번에는 총동창회에 초대되어 대선배님들에게도 저희의 목소리를 들려드릴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노래하는 동아리 에델바이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 경북의대 통기타 동아리 ♫ 우리하나를 소개합니다.

* 우리하나? 우리하나!!

통기타로 하나되는 동아리 !!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통기타 동아리
우리하나입니다^^ 기타를 좋아하는 사람,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훈훈한 동아리입니다 :)

* 통기타 !! 음악 !!

누구나 한번쯤은 가져봤을 법한 통기타에 대한 로망, 있으시죠?^^ 슈스케나 다른 오디션 프
로그램에서 기타 치는 모습을 보며 두근거리셨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하지만 배우기 어려워서
고민만 하고, 쉽게 포기하지 않으셨나요? 우리하나에서 함께 여러
분들만의 기타소리를 채워나가세요! 우리하나에서는 기타초보들도
선배들이 친절하게 가르쳐 드립니다^^ (잘 치시는 분도 환영이예
요!) 평소에는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우고, 정기공연을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곡을 연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노래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평소에는 통기타 연주가 주가 되지만, 정기공연 때는 베
이스나 일렉등의 기타도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아, 기타가 없어서 고민이시라고요? 동아리방
에서 여러분들의 손길이 필요한 기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우리하나에서 당신도 버스커버스커, 아이유가 되어 보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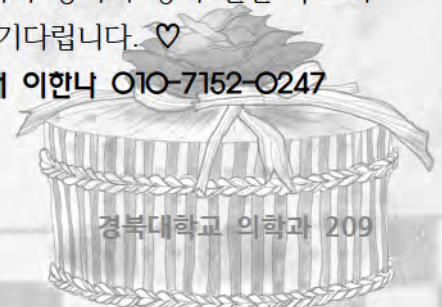
* 통기타만? No !!

기타말고는 없냐고요? 함께 하면 항상 즐거운 우리하나 사
들이 있습니다^^ 항상 어디에 있든 끈끈한 우리하나 인들의
情 !! 기타가 있어도 즐거운 우리하나 사람들이지만 기타가
없어도 함께하면 더욱 즐겁고 가족 같은 우리하나 사람들! 다
방면으로 끼 넘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재밌는 동아리 생활, 기대 되지 않으시나요? 힘든 의대
생활 속에서도 활력소가 되어줄 기타, 그리고 우리하나 인들의 매력에 푹 빠져보세요!

* 우리하나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기타가 좋다 ! 음악이 좋다 ! 사람이 좋다 ! 우리하나로 오셔서 이 모든 걸 다 채워가세요 :)
우리하나가 더 알고 싶으시다면 부담 없이 학생회관 2층 우리하나 동아리 방의 문을 두드리
거나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우리 하나는 항상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

회장 : 3학년 16대 김도형 010-5533-5749 / 총무 : 2학년 17대 이한나 010-7152-0247



아홉



안녕하세요~ ㅎㅎ

경북대 의대/의전원 오케스트라 동아리 MCO입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부하는 저희 MCO가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MCO가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_ ^

MCO에서는 서로가 한마음이 되어 부족한 우리만의 음악을 조금씩 완성해나갑니다.
MCO는 폭넓은 인간관계를 쌓아가면서 나만의 음악 가치관과 취미를 만들어 나갑니다.
MCO는 음악실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회장이 악보 못읽음. 샅이 먼가요,,?)

평소에 악기를 하시거나 클래식 & 오케스트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
아직 해보지는 못했지만 의대 생활 중 단원으로서의 꿈을 펼쳐보실 분들 !!!!
처음이고 서툴지만, '나도 이번에 한번 현악기나 관악기를 배워볼까? 하시는 분들 !!!!!'
30명 이상이 함께 만들어가는 오케스트라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연주하는 것과는 차원이 오케스트라를 경험해보고 싶으신가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0^

누구든지 걱정 불들어 매시고 언제든지 저희 MCO를 찾아주세요~~
두 팔 벌려 신입생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

♥♥ 클래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즐겨봅시다. ♥♥



경북대 의치대 클래식기타동아리



현 우 회 (www.hyun-woo.net) 는 경북대 의치대 연합 클래식기타 동아리로, 1973년에 결성된 이후 현재 44대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깊은 만큼 현 지도교수님이신 소아청소년과 최 병 호 교수님 (13대)을 비롯하여 많은 교수님들과 선배님들께서 초기 멤버로 활동하신 엘리트 동아리입니다. 현우회는 선후배 간의 튼튼한 인연의 끈이 되어 줄 것입니다.

1. 기타는 칠 줄 몰라도 된다!!

현재 멤버 대부분이 입학 후 기타를 처음 접한 아마추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타리스트 제정민 선생님께 지도를 받아 제법 전문 연주단 못지않은 연주를 한답니다. 클래식 기타는 어려운 악기가 아닙니다. 늦게 시작해도 멋들어진 취미로 삼고 즐길 수 있는 악기입니다. 현우회에는 기타 치기보다 어울려 놀기를 좋아하는 현파가 아닌 "우파"도 많으니 걱정 마시길~ 그리고 동아리방에 연습용 기타가 많아서 기타를 따로 구입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2. 가족과 같은 동아리

현우회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가족과 같은 훈훈함이 아닐까 하는데요? 현우회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과 치과대학의 연합 동아리입니다. 의과대학 생활을 하다보면 곧 학교 밖 세상과 단절된 듯한 느낌을 경험하실 거예요. 매주 시험과 바쁜 학교일정에 쫓기다 보면, 학교 밖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도 흔치 않습니다. 그런 갑갑함 속에 동아리 활동을 통해 치대 학생들과 어울리면서 '가깝지만 다른'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

3. 현우회는 클래식 곡만 연주한다?

현우회는 기타를 위하여 작곡된 클래식 곡들은 물론 영화음악, 재즈, 뉴에이지, 스페인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연주합니다. 아름다운 기타 선율을 통해 심신을 가꾸고 학교생활의 활력소를 얻고 싶은 분들 대환영!!!

회장 김승호 010-5199-9039 / 총무 최진영 010-5304-4032



경북대학교 의학과 211

아름

경북대학교 의대/의전원 - 간호대 연합 음악감상 동아리

의 향 회

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의대/의전원 - 간호대 연합 음악감상 동아리 의향회입니다

저희 의향회는 올해로 50년째를 맞는 동아리로 긴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긴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많은 교수님들과 선배님들이 의향회를 거쳐 가셨습니다.

음악 감상 동아리이지만 인간 관계 강조 동아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대 교육과정이 길고 지치기 때문에 마음의 안식처를 찾고 싶으신 분!

선배들과 돈독하고 깊은 관계를 맺고 싶으신 분!

의대만 아니라 간호대와 교류를 가지고 싶으신 분!

모두 환영합니다. 의향회는 한 달에 한번만 음악 감상회를 가지고 있고 따로 좋은 음악 공연회가 있으면 가게 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은 절대 보장합니다! 빠셴 의대/의전원 일정으로 마음이 지치시면 음악을 들으시면서! 몸이 지치시면 안락한 음악감상실에서 잠을 청하시면 됩니다. 의향회는 사랑♥입니다.

의향회는 2015년 12월 31일 23시 59분까지 후배님들의 가입 문자를 기다리겠습니다



회 장 : 박 태 영 010-8389-7819 / 총 무 : 조 제 현 010-2403-9983



편집후기



4학년 오정석

입학한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4학년이 되었네요. 제 이름이 실린 행운지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앞으로 좋은 후배님들의 글을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운지 편집을 위해 힘써준 편집장 이하 후배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4학년 김찬근

표지 만드는 작업도 벌써 마지막이 되었네요. 이제 떠날 때가 되었는데, 처음 학교에 들어왔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모두들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즐거운 추억들도 많이 쌓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4학년 정지윤

벌써 네 번째 행운지입니다. 한 2년전쯤 4학년선배님이 제게 ‘졸업할 때 되면 학교가 예뻐보인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 말을 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1년에 한 층씩 올라가면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풍경들이 보이네요. 많이 부족한 글들이었지만 행운지에 실려 경북대의 전원 식구들과 동문님들께 가 닿을 수 있었던 것이 무척 영광이었습니다. 예과신입생들, 본과 신입생들이 들어오고, 또 풍경이 바뀌어 더 멋진 이음이 될 것 같은 행복한 기대가 듭니다. 많은 수고를 해준 1,2,3학년 편집부원들과 좋은 글을 맡겨주신 기고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학년 김로데

여름방학이 너무 짧다고 징징대던 신입생 시절이 언제였는지 모르게 지나가고 어김없이 행운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부족하나마 한 편의 글을 쓰고 나면 평소에 무엇을 끄적이는 습관을 들이지 못한 것이 아쉽기도 하지만 곧 손에 쥐게 될 2015 행운지에 대한 기대감에 한편이라도 더 쓰길 잘했다 생각합니다. 정말로 많은 수고를 해준 윤편집장님께 감사, 좋은 글을 실어주신 이음 식구들과 기고자 분들에게 또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



3학년 정재현

이음에 들어온 후 두 번째 행운지입니다. 이음에서 쓴 기사와 글들이 드디어 실린다고 생각하니 참 가슴이 벅차네요. 한 줄을 쓰기 위해 책상에 앉아 계속 고민하고 애썼던 시간들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특히 행운지 제작에 많은 수고를 해주신 편집장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편집장님이 있어서 행운지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네요. 다른 모든 이음 식구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학년 안상준

편집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선배님들도 후배님들도 동기님들도 모두 수고많으셨습니다.
읽으신 분들, 결국 이 편집후기 까지 읽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행운지의 주인공은 읽어주시는 독자 학우님들이십니다.



2학년 강주연

바쁜 학교생활 중에 불가능할 것 같던 글쓰기였는데, 어느새 우리 이름으로 쓴 글이 몇 편이나 실린 행운이 발간되는군요. 처음부터 끝까지 수고 해주신 편집장님과 선배님들, 올 해 새로운 이음식구가 되신 후배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동기들♥ 모두 자랑스럽습니다.



2학년 김혜진

글을 쓸 때마다 항상 '이 부족한 글을 실을 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지만, 그럴때마다 격려해주는 동기들과 선배님들이 있었기에 올해도 무탈하게 행운지에 제 글을 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바쁜 2학년들 시간 맞춰서 기고날짜 정하시느라 고생하신 편집장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쓸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음 기자 김혜진이 되겠습니다.^^



2학년 박혜진

지금까지 정말 많은 시험들을 치렀음에도, 졸업하기엔 아직 지나지 않은 시간들이 더 많다는 것에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럼에도 어느새 행운지가 출판될 준비를 하고 있는 걸 보니, 시간이 흐르고 있긴 한가봐요. 한 권의 책을 위해 수고하신 편집장님, 선후배 그리고 동기님. 눈 감았다 뜨면 시간이 흘러있길 바라며, 내년 행운지 편집후기를 쓰게 될 순간까지 앞으로도 힘내서 수고해요 :)



2학년 박혜진

행운지에 실을 글을 미루고 미루다 해부학 시험기간이 다 되어서야 부랴 부랴 썼던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두 번째 행운이라니 기분이 묘합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예쁘게 봐 주세요 :) 폭풍 같았던 시험기간 짬짬이 글 쓰고 수정한 2학년 이음미들♡, 누구보다 수고하셨을 편집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님들과 정신없는 3, 4월이었을 텐데 글 쓴다고 고생한 1학년 후배님들까지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읽는 행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행운 되기를!



2학년 유지훈

처음 실리던 글의 감동이 아직도 생생한데, 벌써 1년이 지나 두 번째 행운지 제작에 참여하게 됐네요. 투고, 기고문을 받아 행운지 제작에 참여하면서 동기들, 선배님들, 후배님들의 열정과 재치가 가득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작에 고생해주신 윤영상 편집장님, 그리고 기자님들께 고생하셨다고,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학년 조형준

작년엔 행운지에 글을 실는 쪽이 아니었고, 완성된 행운지를 읽어보는 입장이었습니다. 동기들보다 조금 늦게 '이음'에 들어와 첫 번째로 제작하는 행운지라, 2015 행운지는 저에게 더욱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한 편의 글이 완성되고, 그 글이 행운지에 실리기 위해서 수많은 과정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으며, 그 과정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으며 많은 사람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많은 도움 주신 편집장 및 선후배님들께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고, 앞으로 좋은 글을 쓰기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전온유

두 번째로 맞은 1학년, 겨우 두 달이 지났지만 그 두 달을 돌이켜보니 정신없던 작년과 다르게 주변에서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주변에 관심을 갖게 되고 다양한 것들을 누리다가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신게 되었습니다. 좋은 분들과 좋은 경험 함께 누렸으면 합니다. 또한 좋은 글들을 기고해주신 분들의 경험들도 감사히 받아보았고, 역시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1학년 이해진

제게는 입학 후 첫 행운지가 될 2015 행운지에 부끄러운 제 첫 글이 실린다는 사실이 설레기도 하고 신전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매년 이맘때면 첫 글이 실린 행운지가 나오는 지금의 계절을 잊지 못할 것 같은 기분입니다. 다음에 쓰게 될 글들은 좀 더 좋은 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학년 이원석

이름에 처음 들어와 처음 글을 쓰게 된 신입생 이원석입니다! 신입생 동기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글을 적고 싶어 열심히 써 보았으나 부족한 글 솜씨에 부족한 글을 쓰게 되어 선배님들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부족한 저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신 선배님들께 감사하며 앞으로의 기회들에서 성장하여 좋은 글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학년 이소래

학부 때와는 여러모로 많이 다른 1학년 1학기를 보내는 도중에, 이름에 첫 번째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많이 부족한 글이지만, 부족한 것은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채워 갈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행운지 발간을 위해 수고하신 편집장님과 선배님들 그리고 함께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기들에게 감사하다는 말 전하며 이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1학년 윤민혁

입학하고 두 달 동안의 신입생 생활을 어떻게 느끼고 생각했는지 글을 통하여 적어볼 수 있어 정말 좋았습니다. 이음에 글을 투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정리되었고 마음의 여유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많은 선배님들, 동기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글로 적고 또 나눈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보람을 느낍니다. 항상 수고하시는 편집장님들 비롯한 이음 가족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학년 노현영

2015 행운지에 입학 후 해부조직학을 공부하면서 평소에 든 생각들과 시험을 치고 나서 느낀 점들을 적어볼 수 있었던 기회가 되어 정말 좋았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한 제 글이 부끄럽기도 하지만 입학 후 행운지에 실리는 첫 글인 만큼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여 좋은 글이 행운지에 실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편집후기

2015년 5월, 36번째 행운(杏雲)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편집부 이음의 임원 구성부터 우여곡절이 많아 2015년 행운의 기획이 늦어지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2015년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축제 '행운제' 기한에 맞춰 행운을 발간할 수 있게 된 것은 많은 분들의 도움 덕입니다. 바쁜 와중에도 빠듯한 기한에 맞춰 글을 내어주신 교수님과 많은 투고를 해 준 동기, 선후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편집장 윤 명 상

36번째 행운은 편집부 내의 글뿐만 아니라 많은 투고를 받아 다양한 글을 다루고자했습니다. 올해부터 다시 들어오게 된 예과학생들의 생각과 담화도 담아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한 아쉬움이 남지만 어느 해보다 많은 투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1959년 행운의 역사를 시작한 창간호를 발견하여 이번호를 빌어 그 역사를 기념하고자 했습니다. 표지뿐 아니라 이번호 곳곳에 행운과 이음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글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의 기획과 달리 표지에 특별한 의미를 두게 되어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사진을 사용하지 않게 된 점 이 글을 통해 사과드립니다.

작년 겨울부터 기획해야 했던 행운을 예기치 않게 올 봄부터 기획하게 되어 행운을 편집하는 짧은 기간, 항상 시간과 싸워야 했습니다. 기획부터 많은 도움을 준 선대 편집장을 비롯해 유독 인원이 적어 힘들었을 테지만 흔쾌히 행운 편집을 도와준 13학번 편집부 동기들과 누구보다 가장 수고해준 14학번 후배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기획부터 시작해 책 한권이 만들어 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즐겁게 행운을 읽는 많은 분들과 투고를 통해 편집에 참여해준 많은 분들이 있기에 편집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편집부 이음의 가장 큰 연중행사 행운편집을 마치며 편집후기를 쓰고 있는 지금 뿌듯함과 동시에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한 채 편집후기를 끝으로 36호 행운의 편집을 마칩니다.



**경북대학교 의학과
편집부 이음**